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白裕相 · 洪元植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A Study on the use of Gimi(氣味) in 『Naegyeong · Ungi-pyeon(內經 · 運氣篇)』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1. Result in investigation of 『So-Mun · Janggibeopsi-Ron(素問 · 藏氣法時論)』, the how to apply *O-mi*(五味) is a medical treatment for the pathological conditions that *O-jang*(五臟) suffer from the influence of outside or *O-jang*(五臟) cannot revolve their *Gi*(氣). It differ from the application of original taste(本味) which generally attached to *O-haeng*(五行) in sequence of five-taste(酸苦甘辛鹹) and grow the *Jeong-Gi*(精氣) of *O-jang*(五臟). And in 『Janggibeopsi-Ron(藏氣法時論)』, the how to apply *O-mi*(五味) to a case of *Ojang-Sogo*(五臟所苦) is a temporary helping to the suffering of *O-jang*(五臟), to the case of *Ojang-Soyok*(五臟所欲) is a controlling over the revolution of *Gi*(氣) of *O-jang*(五臟) with *Bo-beop*(補法) and *Sa-beop*(瀉法). The *Sa-beop*(瀉法) deter *Ojang-Soyok*(五臟所欲), but in the end helps *O-jang*(五臟) with their work, on the other hand it is similar to the original taste(本味) of *O-jang*(五臟), so combine the function of helping the *Jeong-Gi*(精氣) of inside.

2. In 『Naegyeong · Ungi-pyeon(內經 · 運氣篇)』, the reason why the how to apply *O-mi*(五味) follows after the original taste(本味) of *O-jang*(五臟) in the case of *Taegwa*(太過), *Bungeup*(不及) of *O-un*(五運) and *Pyeong-Gi*(平氣) is that the all things(萬物), when the all things(萬物) acts by influence of *O-un*(五運) it reveals its character according to the original nature(本性) of 五行. In the case of *Pyeong-Gi*(平氣) it follows after only its original taste(本味), in the other case of *Taegwa*(太過) or *Bungeup*(不及) the mutually destructive(相克) tastes are appeared together.

3. The type of application of *O-mi*(五味) to reply to the change from the *Taegwa*(太過) or *Bungeup*(不及) of *O-un*(五運) in two. One is *Ojang-sabeop*(五臟瀉法) when the change caused by the *Taegwa*(太過) of *O-un*(五運), the other is *Ojang-bobeop*(五臟補法) when the change caused by the *Bungeup*(不及) of *O-un*(五運). And when apply the *Sa-Gi*(四氣), it is the principle that apply *Ryang-yak*(涼藥) to *Mok-Un*(木運), *Han-yak*(寒藥) to *Hwa-Un*(火運), *On-yak*(溫藥) or *Yeol-yak*(熱藥) to *To-Un*(土運), *On-yak*(溫藥) to *Keum-Un*(金運), *Yeol-yak*(熱藥) to *Su-Un*(水運)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 of change of four season(四時變化), which is the general rule. But in the case of *Bungeup*(不及) of *Un*(運) generally apply the a medicine of mild(和平)-*Gi*(氣)

4. Compared with *O-un*(五運), the *Yuk-Gi*(六氣) is highly effective and excessively change because its rise and decline appear at the shape of *Gi*(氣) by outside. So the application of *O-mi*(五味) to *Yuk-Gi*(六氣) is mixed the *Ojang-bobeop*(五臟補法) and the *Ojang-sabeop*(五臟瀉法) together. Of *Yuk-Gi*(六氣), the *Ju-Gi*(主氣) follows after the change of four seasons in order to *O-haeng*(五行) exactly, so apply *Bo-beop*(補法) and *Sa-beop*(瀉法) regularly in the same way of *O-un*(五運). On the other hand, the phase of change of the 客氣 is much complexible than that of *Ju-Gi*(主氣), so apply the method of *Goyok*(所苦) which can cover the extraordinary conditions, besides *Goyok-bosabeop*(苦欲補瀉法) in 『*Janggibeopsi-Ron*(藏氣法時論)』

5. Of *Gaek-Gi*(客氣), the *Sacheon-Gi*(司天之氣) and the *Jaecheon-Gi*(在泉之氣) are doing the role of leading the change of the year so the effect is strong, and occupying an appointed situation in time and space, so the change appears in a typical respect. Therefore, apply the *Pyochi*(標治) for the purpose of driving out the *Sa-Gi*(邪氣) quickly or saving *O-jang*(五臟) from suffering. In *Pyochi*(標治) usually use a typical taste(味) owing to the difference of time and space, it's not a general application of *O-mi*(五味) that described at number 4. But the principle that it can be applied the *Bo-beop*(補法), *Sa-beop*(瀉法), the method of *Sogo*(所苦) together at the same time is as useful as ever. And in the case of *Jaecheon-Gi*(在泉之氣), its effect is weaker than *Sacheon-Gi*(司天之氣), so apply the *O-mi*(五味) mainly by *Bo-beop*(補法).

7. Result in investigation of the composition of important prescription in 『*Sanghan-Ron*(傷寒論)』 and its annotation which annotated by *Seonmugi*(咸無己), it comes out that in many cases, the application of 五味 agree with the application of *Gimi*(氣味) in 『*Naegyeong · Ungi-pyeon*(內經 · 運氣篇)』 . S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pplication of *Gimi*(氣味) in 『*Ungi-pyeon*(運氣篇)』 is founded in actual clinical medicine. And in 『*Sanghan-Ron*(傷寒論)』 in a same taste(味), various kinds of medicine are prescribed owing to the difference of acting site or effect, it differ from the case in 『*Naegyeong*(內經)』 that the medicine is simply expressed by *O-mi*(五味).

8. Result in investigation of the contents in 『*Saminbang*(三因方)』 , in the case of *Oun-taegwa*(五運太過), the prescription is composed for the purpose of driving out the *Sa-Gi*(邪氣) or setting free the accumulated *Gi*(氣). And in the case of *Oun-bulgueop*(五運不及), the prescription is composed in the direction of revolving the *Jung-Gi*(精氣) of *O-jang*(五臟). S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osa-beop*(補瀉法) which applied in 『*Naegyeong*(內經)』 is more or less applied in 『*Saminbang*(三因方)』 . In the case of *Yuk-Gi*(六氣), the *Sacheon*(司天) and *Jaecheon*(在泉) compose the prescription one of a pair, and it can be concluded that it is similar, in basic con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O-mi*(五味) of 『*Samueomsamyang-Jeong*(三陰三陽之政) in 『*Yukwonjeonggidae-Ron*(六元正紀大論)』 .

Key words: *Gimi*(氣味), 『*Naegyeong · Ungi-pyeon*(內經 · 運氣篇)』

1. 序論

運氣學이란 宇宙가 人間에 미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氣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거나 또는 이미 미치고 있는 영향들에 대응하여,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질병 치료의 목적 하에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나가는 학문 분야라고 규정할 수 있다. 運氣學은 이미 「內經·運氣篇」¹⁾이 편집된 시기에 온전한 형태를 갖추었으며 그 이후로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져 내려왔다²⁾. 運氣學 理論을 바탕으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었는데 우선 「內經·運氣篇」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五運六氣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氣味를 運用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³⁾. 그러나, 「運氣篇」에서는 五味 運用의 原則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運氣篇」에서 제시한 五味 運用 方法이 담고 있는 기본 原理도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原理의 근거를 특히 「內經·藏氣法時論」의 五味 運用法⁴⁾에서 찾아 그 관련성을 검토

해 보고자 하였다.

方劑 구성의 원칙은 古方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분명해지는데⁵⁾, 古方 구성의 특징은 형식적으로 君臣佐使의 조화를 이루면서 치료 목표에 있어서 六淫 및 臟腑虛實, 經絡表裏 등에 대한 분명한 辨證 과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古方은 「傷寒論」이 편찬되면서 그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內經」 이후 前漢期까지 이어져 온 방제 분야의 성과들이 정리되면서 결집된 것으로 보인다. 「運氣篇」이 「內經」에 補入된 것이 唐代이나 그 내용의 형성은 補入될 당시의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漢代 이후 南北朝 시기에 발전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⁶⁾. 「運氣篇」의 정확한 형성 시기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傷寒論」과 「運氣篇」의 형성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서로 간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內經·運氣篇」의 五味 運用이 六淫 및 臟腑 病機에 기반하고 있으며 君臣佐使의 원칙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古方 형성 과정에

- 1) 「運氣篇」이 「內經」의 篇名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運氣篇」, 「運氣七篇」이라 일컬으므로 「內經·運氣篇」, 또는 「運氣篇」, 「運氣七篇」 등으로 표기하였다.
- 2) 唐代에 王冰이 「運氣七篇」을 「素問」에 補入한 이후 많은 醫書에 運氣 理論이 기재되었고 運氣學 전문 서적도 나왔으나 「內經」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 3)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眞要大論」에서는 五運의 太過와 不及, 司天之政과 在泉, 主氣와 客氣, 六淫, 勝復, 反勝 등의 여러 경우에 각각 氣味 運用法을 제시하고 있다. 단, 寒熱溫涼 四氣의 경우에 君藥과 佐藥 중에서 君藥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佐藥 및 추가적인 약물 운용에 있어서는 酸苦甘辛鹹 五味만을 들고 있어 五味 중심의 약물 運用法이라 할 수 있다.

4) 五臟의 所苦와 所欲에 따라 五味補瀉法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른바 五臟苦欲補瀉法이라 이른다.

5) 金元四大家 이전의 方劑 중 특히, 「傷寒論」, 「金匱要略」의 처방들을 가리키는데 구성 약물의 가지 수가 적고 君臣佐使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치료 방향에 있어서도 表裏寒熱虛實 辨證에 따라 한두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용되었다. 이에 비하여 後世方으로 불리는 金元時代 이후의 처방들은 臟腑 內傷 이론이 발달하면서 補法 위주의 치료 방향을 가지고 表裏寒熱虛實을 겸하여 치료하는 處方이 많아졌으며 따라서 약물 가지 수가 많아지고 君臣佐使의 의미도 희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6) 「運氣七篇」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며 그것이 「內經」의 다른 篇들의 주요 理論들을 음화시켜 다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저작으로 보기를 힘들며 運氣學의 오랜 발전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傷寒論』이 六經病證 체계를 통한 辨證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후 易水學派⁷⁾로부터 시작된 方劑 분야의 발전은 구체적인 약물의 氣味, 歸經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귀납적 방법을 통하여 臟腑, 經絡에 대한 해석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⁸⁾. 易水學派의 약물에 대한 연구의 주요 부분은 『內經·藏氣法時論』의 五臟苦欲補瀉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藏氣法時論』의 五味 運用法이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상당 부분 응용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易水學派의 五味 運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運氣 處方に 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약물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傷寒論』의 古方 構成이나 易水學派의 藥物 研究와는 달리 순수한 運氣學 분야에서 運氣處方を 제시한 것으로는 宋代 陳言⁹⁾이 지은 『三因方』을 들 수 있는데, 『三因方』에서 제시한 처방들은 이후 여러 醫書에서 계속적으로 인용되어 온 대표적인 運氣 處方이라 할 수 있다¹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역대의

運氣 處方이 『內經·運氣篇』의 五味 運用法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또한 運氣學이 현실 臨床에서 어느 정도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해 왔는가를 가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運氣篇』에서 제시하고 있는 五味の 運용을 『素問·藏氣法時論』의 五味 理論에 근거하여 그 원리를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藏氣法時論』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臟腑, 經絡 등이 天地 宇宙의 時間과 空間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것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運氣篇』의 내용과 관련이 많으며 또한, 五味の 運用法에 있어서는 『運氣篇』의 五味 運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運氣篇』에서 기술한 五味の 구성이 실제 한의학의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제 구성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傷寒論』의 처방을 분석해 보았다. 이미 金代의 成無己¹¹⁾는 『注解傷寒論』에서 『內經·運氣篇』의 六淫에 대한 五味 運용의 조문을 인용하여 『傷寒論』의 주요 처방들을 注釋하였는데 이를 검토하여 『內經』의 五味 運用法과 『傷寒論』의 方劑 구성의 유사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宋代 陳言이 지은 『三因方』에서 제시한 五運의 太過, 不及과 六氣의 司天, 在泉에 따른 처방들을 검토하여 『內經』의 運用法과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傷

7) 張元素로부터 시작된 學派로 臟腑病機 理論을 근거로 삼아 藥物 치료를 통하여 氣血陰陽을 조절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학풍은 이후 李杲, 羅天益, 薛己, 張介賓 등으로 이어져 갔으며 臟腑 理論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8) 이러한 연구의 과정을 통하여 脾胃, 腎, 命門 등에 대한 臟腑 理論이 발전해 갔으며 그 결과 金元時代의 補土, 滋陰 등과 明代의 補陽 理論 등이 완성되어 갔다.

9) 南宋의 醫家. 字는 無擇. 1174년에 『三因極一病證方論』 약칭 『三因方』을 저술하였다.

10) 우리나라에서 1613년에 간행된 『東醫寶鑑』에서도 『三因方』의 처방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중국 명나라 彭用光(彭用光)이 편찬하여 1549년에 간행된 『體仁匯編』에도 인용되어 있다. 근세에 이르러서 英祖 때 尹東里(字는 子美 號는 草窓)가 지은 『草窓訣』 등에 책에서는 개인의 生年에 따라 현재의 해당

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運氣 處方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運氣學과 命理學을 결합시키려 한 것으로 『內經』의 運氣 運用法과는 차이가 있다.

11) 金代의 의가. 1144년에 『傷寒論』에 대한 최초의 전면적인 주석서인 『注解傷寒論』을 저술하여 후대 傷寒論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寒論」 및 「三因方」 그리고 易水學派의 五臟補瀉法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된 약물들을 五味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內經」의 五味 運用 方法이 후대에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運氣學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內經」 이후 韓醫學의 理論의 발전에 運氣 理論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¹²⁾.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氣味論 연구에서부터 출발한 本草, 方劑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도 「內經·運氣篇」의 五味 運用 方法이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각 약물의 효능과 방제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運氣學이 현실 임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本 論

「內經·運氣篇」의 氣味 運用을 살펴보기에 앞서 「素問·藏氣法時論」에 나오는 이른바 五臟苦欲補瀉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藏氣法時論」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十干的 체계를 기반으로 時空을 분할하여 그 특성을 규정짓고, 그에 따라 우리 몸의 五臟이 각각의 時空 속에서 변화를 주관하며 때로는 질병을 야기하는데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즉, 疾病 治療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五行 相克

12) 君火와 相火의 관계, 三陰三陽과 標本中氣 이론 등은 臟腑, 經絡에 대한 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여러 病因 病機와 治法 原則들은 이후 한의학 理論의 發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원리에 의하여 疾病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藏氣法時論」의 내용은 運氣論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¹³⁾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素問」, 「運氣七篇」과 「藏氣法時論」 등 여러 篇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지속되어 왔다¹⁴⁾.

「運氣七篇」의 성립 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타 素問의 여러 편들보다 후대에 편집되었다고 보는 견해에 입각해 본다면 「藏氣法時論」의 주요 내용들이 「運氣七篇」 形成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으며¹⁵⁾ 이러한 추정을 기반으로 「藏氣法時論」에 나오는 所謂 苦欲補瀉의 方法이 「運氣篇」의 氣味運用의 원리로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藏氣法時論」의 五味 運用이 전적으로 그대로 「運氣篇」에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분명히 같은 운용 정신에 바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상 일부 차이점도 이론적인 규칙성에서 벗어나 현실 상황에 맞추어 응용하려는 목적 하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러면 우선 「素問·藏氣法時論」의 五味 運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3) 時空의 분할과 그 특성에 대한 규정 및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運氣學 분야의 기본 바탕이 되는 내용이다.
- 14) 方約中, 許家松은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4, p.33)에서 「靈蘭秘典論」, 「舉痛論」, 「六節藏象論」, 「藏氣法時論」 등을 예로 들어 「內經」과 「運氣七篇」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藏氣法時論」의 五臟苦欲補瀉法이 「運氣七篇」의 五味 運用法과 같음을 말하였다.
- 15) 「運氣七篇」의 내용은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정확한 생성 연대를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運氣七篇」이 다른 「素問」의 여러 篇들보다 後代에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運氣七篇」이 만들어진 시기가 「內經」의 그것보다 後代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 『素問·藏氣法時論』의 五味¹⁶⁾ 理論에 대한 考察

「藏氣法時論」의 篇名을 살펴보면 藏氣란 五臟의 氣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몸 내부의 精氣를 말한다 할 수 있다. 이 藏氣가 시간을 법삼고 있다는 뜻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이 변하고 공간의 변화에 따라 氣의 편차가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몸의 精氣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精氣가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순응하여 따라갔을 때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설령 이미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藏氣法時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黃帝問曰 合人形以法四時五行而治，何如而從，何如而逆。得失之意，願聞其事。岐伯對曰 五行者，金木水火土也，更貴更賤，以知死生，以決成敗，而定五藏之氣，間甚之時，死生之期也。

黃帝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형체를 통틀어서 四時 五行의 變化를 법삼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여야 쫓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거스르는 것입니까? 얻고 잃는 뜻에서 원하건데 그 실재를 듣고자 합니다.”라 하셨다. 岐伯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五行이라는 것은 金木水火土의 변화로서 갈마들어 귀해지고 갈마들어 천해지니, 그것으로써 죽고 삶을 알아 성패를 결정하여서 五臟의 氣와 병이 낮고 심해지는 시기와 죽고 살아나는 시기를 정

16) 「藏氣法時論」의 五臟苦欲補瀉에는 五味로만 약물을 표현하였고 寒熱溫涼 四氣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運氣篇」에서도 君藥의 경우에만 四氣가 나타나며 佐藥이나 추가적 약물 運用法에서는 주로 五味로만 표현되어 있다.

합니다.”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宇宙의 기운 변화에 따라 萬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도 小宇宙로서 그에 어떻게 相應하고 있는가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 몸의 기운이 어떻게 時空의 변화를 쫓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바로 五味 運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肝主春，足厥陰少陽主治，其日甲乙，肝苦急，急食甘以緩之。

心主夏，手少陰太陽主治，其日丙丁，心苦緩，急食酸以收之。

脾主長夏，足太陰陽明主治，其日戊己，脾苦濕，急食苦以燥之¹⁷⁾。

肺主秋，手太陰陽明主治，其日庚辛，肺苦氣上逆，急食苦以泄之。

腎主冬，足少陰太陽主治，其日壬癸，腎苦燥，急食辛以潤之，開腠理，致津液，通氣也。

17) 「素問·藏氣法時論」 뒷부분과 「靈樞·五味篇」에 나오는 각 五臟에 대한 食餌 방법에서는 모두 “脾色黃，宜食鹹，大豆豕肉栗藿皆鹹.”이라 하여 脾에는 마땅히 鹹味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다. 鹹味가 脾에 배속되어야 五味가 五臟에 대하여 골고루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藏氣法時論」의 “脾苦濕，急食苦以燥之.”에 대해서 丹波元堅(日本の 醫家. 저서로는 《약치통의(藥治通義)》 《상한광요(傷寒廣要)》 《금계요략술의(金匱要略述義)》 등이 있음)은 “按肺云食苦以泄之，是五臟中宜食苦者有二，而無一宜食鹹者。此末段列五藏色味，正與此段相發，而有脾色黃宜食鹹句，然則此苦字爲鹹字之誤明矣.”라고 하여 鹹味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우선 「內經」의 원문에 충실히 따르고자 하였으며, 또한 「藏氣法時論」의 五臟所苦에 대한 五味 運用은 五臟의 本味 개념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 할 수 있으므로 脾病에는 濕邪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燥濕작용이 비교적 강한 苦味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앞부분에서 계절마다 어떤 藏이 주관하는가를 말하고 다음으로는 五臟의 운동에 따라 어떠한 經絡이 주관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 즉 우리 몸에서 안으로는 五臟, 밖으로는 經絡이 모두 四時에 따라 변화하여 貴賤을 달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하루하루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十二月이나 二十四節氣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四時 다음으로 하루 晝夜의 변화가 인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 하루의 변화는 바로 天干에 의하여 달라진다고 설명한다¹⁸⁾. 여기까지가 바로 四時와 晝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 기운의 특성이 바뀌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각 五臟이 그러한 貴賤에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물론, 四時와 晝夜의 변화에 완전히 순응한다면 고통도 질병도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각 시기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자신이 변화를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우주변화에 동참하여 주체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고로움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괴로움(苦)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각 五臟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을 받으며 그에 따라서 藥物의 運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1) 五臟의 所苦에 대한 五味 運用

肝을 살펴보면, 肝은 급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급함이란 우리 몸의 기운이 돌아가는 것이 보통보다 빨라지려

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반드시 氣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운을 빨리 돌리려고 마음만 앞서고 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혀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좁은 골목을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봄이 되어 싹이 트듯이 氣가 精으로부터 化하여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함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그 氣를 급하게 돌리려고 마음만 앞서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肝이 원래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서 일을 시작하고 推動하는 將軍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특히 봄이나 甲乙의 날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氣가 급하게 돌아감으로 인하여 肝이 고통을 받을 때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 甘味를 먹어서 늘리지게 하라고 하였다. 甘味는 그 성질이 끈적끈적하여 서로를 붙잡아 매는 작용이 있으므로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것이다. 또한 甘味는 에너지원으로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氣를 돌려주어 일단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즉,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급한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甘味는 土의 木味이니²¹⁾ 木과 土가 서로 相克

19) 張介賓은 “肝爲將軍之官，其志怒，其氣急，急則自傷，反爲所苦，故宜食甘以緩之，則急者可平，柔能制剛也。”라고 하였고, 新校正에서는 “按全元起云，肝苦急，是氣有餘。”라고 하였다.

20) 陽氣를 발생하여 기운이 몸에 충만해지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반대로 기운이 부족하면躁急함이 나타난다.

21) 여기서 甘味를 肝病에 쓰고는 있으나 五味의 근본적인 속성을 五行에 따라 배속했을 때는 酸苦甘辛鹹의 순서가 되어 甘味는 脾土의 味가 된다. 여기서 근본적인 속성이란 만물이 生成할 때 五行의 기운을 받는 것을 말하는 데, 각각의 사물은 그 기운의 성질에 따라서 형질이 만들어지고 그 형질의 고유한 성질로서 酸苦甘辛鹹 五味를 띠게 된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六氣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성질과는 다른 것으로 “東方生風，風生木，木生酸，酸生肝.”에서와 같이 곧바로 우리 몸

18) 十干의 기원을 살펴보면 원래 殷代의 紀日 즉, 하루 하루의 날을 세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으로서 길항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²²⁾.

다음으로 心을 살펴보면, 늘어짐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 心이 주관하는 계절은 여름이고 날로는 丙丁日이다.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의 氣가 外部로 발산되어 가장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외부에서 볼 때에는 가장 강성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内部의 氣가 虛해져 있으므로 허장성세라고 할 수 있다²³⁾. 그러므로, 실제로 여름에 기운이 없어서 몸이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心은 君主之官으로 온몸의 변화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데, 만약 임금이 늘어져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할 것이다. 임금은 君子의 象을 가지고 生生不息하며 굳건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²⁴⁾. 이러한 때에는 酸味를 먹어서 기운을 추스리라고 하였다. 酸味는 陰性으로²⁵⁾ 안으로 氣를 수렴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酸味는 먹었을 때 실제로는 몸이 차가워지지는 않지만 차가운 듯한 느낌을 주는 맛이다. 신맛의 '시'라는 말과 추위를 느낀다는 '시리다'라는 말

이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때 신맛은 실제로는 차갑지 않더라도 겉으로 느끼기에 추운 듯한 기분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맛을 먹었을 때 갑자기 소름이 돋듯 떨리고 몸을 움츠리게 된다. 즉, 酸味가 자체로 寒性이 강하다기보다는 表에서부터 内部로 氣를 수렴하는 작용에 의하여 표면적으로 寒性을 느끼는 것이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기운이 없으며 몸이 늘어지고 잠도 안 올 때 신맛을 먹으면 생기가 돌면서 정신도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²⁶⁾. 즉, 신맛을 먹어서 외부로 흩어져 늘어져 버린 血脈을 다시 안으로 추스르면 기운을 회복하여 氣行이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方劑 중에서 여름에 五味子가 들어간 生脈散²⁷⁾을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脾는 계절로는 長夏에 해당하고 戊己의 날을 주관하고 있다. 脾는 土藏으로서 만물을 모아 뒤섞고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그것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것을 섞어서 엮어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濕이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 이 濕은 새로운 形과 氣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운동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즉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는 먼저 熱을 생각할 수 있다. 熱을 가해서 말

의 五行 속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五味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작용할 때에 收散與堅緩急과 같이 氣의 흐름을 조절하기도 하나 근본적인 五行 속성에 따라 곧바로 五臟으로 들어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五味의 五行 배속을 각 五臟에 대하여 本味라고 말할 수 있다.

- 22) 木은 陽氣를 발산하여 일을 推動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土는 氣를 안정시켜서 거두어들여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氣의 운동방향에 있어서 서로 반대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
- 23) 新校正에서는 “按至元起本云, 心苦緩, 是心氣虛.”라고 하여 氣虛의 현상으로 보았다.
- 24) 姚止庵은 “蓋心生血而爲一身之主宰, 善動多慮, 其血易虧, 病則緩弱, 是其常也. 然緩則必散, 故欲補心必用酸收.”라고 하였다.
- 25)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辛甘味는 發散하여 陽의 작용을 하고 酸苦味는 湧泄하여 陰의 작용을 한다고 하여 五味의 陰陽 속성을 설명하였다.

- 26) 熱에 의하여 기운이 밖으로 퍼져버린 경우 이외에도 張介賓은 “心藏神, 其志喜, 喜則氣緩而心虛神散, 故宜食酸以收之.”라고 하여 지나치게 기쁜 경우에도 心志를 손상시켜 기운을 늘어지게 만든다고 하였다.
- 27) 人蔘(甘微苦微溫), 麥門冬(甘微苦微寒), 五味子(酸甘溫)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五味子가 기운을 수렴시켜 心氣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 28) 土의 統合 작용과 相火의 變化 작용을 거치면서 外部의 氣가 변화되어 나의 氣로, 즉 後天의 氣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러서 없애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濕을 밖으로 泄하여 빼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苦味를 써서 말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말리기는 하지만 열을 가하여 말리는 것은 아니고 濕邪를 밖으로 빼냄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말리는 것이다.

苦味는 '쓴맛'이다. 우리는 쓴 것을 먹으면 얼굴을 돌리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즉, 사람이 싫어하는 것의 대명사인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우선 경직되고 다음으로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밖으로 그것을 내보내려는 작용을 하게 된다²⁹⁾. 그러므로, 苦味가 딱딱하게 응축시키고(堅之) 밖으로 邪氣를 내보내며(泄之發之)³⁰⁾ 또는 氣를 아래로 내리는(下之) 등 여러 가지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脾病에서 濕邪가 발생하는 것과 그에 대하여 苦味를 쓰는 이유를 五臟의 相克관계로 보기도 한다³¹⁾.

肺의 경우를 살펴보면, 氣가 위로 거스르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니 급히 苦味를 먹어서 泄하라고 하였다. 이것도 역시 氣를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苦味의 작용에 의거한 것으로 苦味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의 기운이 응축되어 아래로 쏠리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肺는 우리 몸의 上部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陰藏으로서 아래로 氣

를 肅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밖에서부터 氣를 안으로 들여와야 하므로 실제로는 많은 氣를 소모하고 있는데 가을이 되거나 庚辛의 날이 되면 더욱 안으로 급하게 氣를 수렴해야 하므로 내부로부터 상충하는 氣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다³²⁾. 물론 가을에 속으로부터의 氣의 상충이 다른 계절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는 없으나 下降이 제대로 안 되어서 氣가 막히게 되면 그것이 쌓였다가 위로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苦味를 먹어서 강력하게 아래로 기운을 내려보내어 결과적으로 肺의 작용을 돕게 된다. 苦味와 마찬가지로 氣를 수렴하는 작용이 있는 酸味도 사용할 수 있으나³³⁾ 여기서는 더욱 강력한 수렴 작용을 하는 苦味를 사용하여 일단 급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腎은 겨울을 주관하고 날로는 壬癸일에 해당하는데 腎의 역할은 안으로 갈무리된 氣를 견고하게 감싸서 조금이라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마치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듯이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죽은 듯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假死상태에 빠지면 우리 몸의 外部에서 활동하는 經絡 및 筋骨肌肉들은 활동성을 잃고 탄력성이 없어지게 되는데, 탄력성이 없어지는 것을 달리 말하면 바로 津液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는 營衛氣血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津液은 그것에 의하여 2차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생명을 영위하는 각각의 말단에서는 津液이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

29) 苦味의 작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氣行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다. 氣行이 막히면 응축되어 形質(덩어리)이 생기고 다음으로 우리 몸은 이것을 이물질로 보아 밖으로 내보내려는 생리 기전이 나타난다.

30) 여기서 發之는 뿜아낸다는 뜻으로 汗吐下 三法을 모두 사용하여 밖으로 邪氣를 내보낸다는 의미이다.

31) 張介賓은 “戊爲陽土，己爲陰土，中宮之干也。脾以運化水穀，制水爲事，濕盛則反傷脾土，故宜食苦溫以燥之。”라고 하였고, 姚止庵은 “治濕之法，燥之以苦，蓋苦先入心而補火，火能生土，於是土得火以燥，脾得苦以濕去矣.”라고 하였다.

32) 張介賓은 여기에 대하여 “肺主氣，行治節之令，氣病則上逆於肺，故宜急食苦以泄之.”라고 하였다. 姚止庵은 “然上逆之故，多本於火，利用苦寒以泄其熱，則轉逆爲順也.”라고 하여 氣上逆의 원인이 火에 있다고 보았다.

33) 氣의 上逆이 火熱에 의한 것이라면 栗堅 작용으로 熱을 내리는 鹹味를 쓸 수도 있다. 실제로 「六元正紀大論」에서는 陽明之政에 鹹味를 사용하고 있다.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氣가 제대로 순환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선 津液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다. 腎이 건조함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津液의 부족을 의미한다. 즉, 腎의 갈무리하는 작용이 너무 지나치면 氣가 閉塞되어 밖으로 돌지 않게 되어 결국 津液이 부족해져서 몸이 마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辛味를 먹어서 적셔주라고(潤之) 하였는데, 여기서 매운 맛은 氣를 잠시 걸로 돌려서 經絡을 소통시키고 筋骨肌肉의 氣를 행하여 津液을 생성함으로써 우리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³⁴⁾. 뒤이은 腠理를 열고 津液을 이르게 하여 氣를 통하게 한다는 설명이 바로 이것이다. 단, 氣를 돌려줌으로써 津液을 만들어낼 뿐이지 실제로 辛味 자체가 津液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보충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五味가 가지고 있는 氣의 흐름을 이용하여 五臟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쓰고 있는데, 우리가 五味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의 氣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五味의 이러한 작용을 『內經』에서는 散收, 緩急, 潤燥, 熨堅이라 하였다³⁵⁾. 물론 酸苦甘辛鹹의 五味가 五臟의 本味로서 精氣를 직접적으로 길러주는 작용을 하지만³⁶⁾, 五味가 항상 本味로서만 작

용하는 것은 아니며 氣의 순환에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효용을 가지는 구체적인 약물들로 다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藏氣法時論」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작용을 이용한 五味 運用法이라 할 수 있다.

2) 五臟의 所欲에 대한 五味 補瀉法

「藏氣法時論」에서 五臟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補瀉하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病在肝 ... 증략 ...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用辛補之, 酸瀉之.

病在心 ... 증략 ... 心欲熨, 急食鹹而熨之, 用鹹補之, 甘瀉之.

病在脾 ... 증략 ... 脾欲緩, 急食甘以緩之, 用苦瀉之, 甘補之³⁷⁾.

病在肺 ... 증략 ... 肺欲收, 急食酸以收之, 用酸補之, 辛瀉之.

病在腎 ... 증략 ... 腎欲堅, 急食苦以堅之, 用苦補之, 鹹瀉之.

이 경우는 앞서 내용과 비교할 때 邪氣의 침입을 받아서 병이 五臟에 들어있는 것이다. 즉, 五臟이 자신이 用事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相克의 邪氣를 받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五臟이 병에 걸렸을 때에는 五臟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散, 熨, 緩, 收, 堅”이라 표현하였다. 이것은 본래 五臟이 하고자 하는 氣의 흐름과 같으니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五臟의 精氣가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氣의 흐름이 방해받을 때는 급히 해당 五味를 먹어서 五臟의 회복을 돕게 되는데 이것을 補한다고 하였고, 뒷부분에서는 반대로 瀉하는 味에 대하여 말하였다.

補瀉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補는 精氣를 補하는 것이고, 瀉는 邪氣를 瀉하는 의

34) 張介賓은 “腎爲水藏, 藏精者也. 陰病者苦燥, 故宜食辛以潤之, 蓋辛從金化, 水之母也. 其能開腠理, 致津液者, 以辛能通氣也. 水中有眞氣, 惟辛能達之, 氣至水亦至, 故可以潤腎之燥.”라고 하여 金臟의 本味인 辛味가 子인 水臟을 돕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張琦(明代 醫家. 字는 翰風 號는 宛鄰이며 陽湖人. 저서로는 《소문석의(素問釋義)》 등이 있음)는 “腎主水而苦燥者, 肺鬱不降, 水泛化源, 肝鬱不升, 溫氣留於下焦故燥也. 辛味開腠理以泄肺鬱, 又能升散木氣, 故津液致而氣通.”라고 하여 肺鬱과 肝鬱을 소통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35) 「藏氣法時論」에서 “辛散, 酸收, 甘緩, 苦堅, 鹹熨.”라 하였다.

36) 「五藏生成篇」에서 “心欲苦, 肺欲辛, 肝欲酸,

脾欲甘, 腎欲鹹, 此五味之所合也.”라 하였다.

37) 「內經」 원문의 순서상 補瀉가 바뀌어져 있다.

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藏氣法時論」에서 말하는 五臟補瀉의 경우에는, 補는 각 五臟이 바라는(欲) 氣의 방향대로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精氣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補라고 말한 것이며, 반면에 瀉의 경우에는 邪氣를 瀉하는 의미에서 瀉라고 했다기보다는 補法에서 나타난 氣의 흐름과 반대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瀉라고 표현한 것이다³⁸⁾. 그러므로, 瀉法에 사용된 五味는 補法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견제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氣의 조화를 이루어 五臟 각각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瀉法에 사용한 味는 五臟의 本味³⁹⁾와 비슷하여 직접 五臟으로 들어가 도움을 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⁴⁰⁾.

원래 五臟에는 本味를 써서 돕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는 五臟이 병에 걸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급한 상황이므로 빨리 五味의

氣의 흐름을 이용하여 五臟의 五行運動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시적으로 氣의 運行을 돕는 標治이고 근본적으로 五臟 자체의 氣를 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藏氣法時論」의 補法이 비록 補라고는 하였으나 五臟의 精氣를 직접적으로 길러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외부 六淫에 의하여 억제를 받고 있는 氣의 흐름을 소통시켜 주는 것이며, 반면에 瀉法도 역시 邪氣를 몰아내기보다는 補法의 흐름을 조절하면서 五臟 내부의 氣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⁴¹⁾. 그러므로, 補法과 瀉法을 함께 사용하여도 결국에는 五臟의 기능을 돕는 결과가 된다.

補瀉가 서로 氣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肝의 경우를 보면, 辛味는 發散의 작용을 하여 肝氣가 억눌리는 것을 펴주고 酸味는 반대로 氣를 수렴시켜서 다시 안으로 기운을 추스리도록 돕는다⁴²⁾. 辛味는 또한 發汗시켜서 表에 있는 風邪를 밖으로 몰아내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心의 경우에는 補法으로 鹹味를 써서 부드럽게(軟之) 하며 瀉法으로는 甘味를 써서 완화시킨다고(緩之) 하였다. 여기서 軟과 緩은 서로 비슷한 의미인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⁴³⁾. 즉, 軟은 부드럽고 유연한 것으로 팻팻하지도 않고 늘어져 처지지도 않아서 氣의 運行이 원활하게 이루어

38) 吳崑도 “順其性爲補, 反其性爲瀉.”라 하여 五臟의 本性에 따르는가 거스르는가로 補瀉를 규정하였다.

39) 예를 들면,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이라 하여 酸味가 직접 肝氣를 생한다고 하였다. 이때의 肝木의 本味인 酸味는 地氣를 의미하는 것으로 地生萬物할 때에 그 萬物의 선천적인 屬性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味는 五神, 五臟, 身形 등의 선천적 형성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비하여 후천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六氣變化의 산물로 나타나는 味들이라고 할 수 있다.

40) 「藏氣法時論」의 五臟瀉法은 心의 甘味와 脾의 苦味만을 바꾸면 五臟의 本味와 일치한다. 그러나, 心에 苦味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퍼져나가 허해진 氣를 수렴시켜 熱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나 나중에는 氣를 응축시켜 경직되게 만들므로(堅之) 오히려 心의 기능을 방해하게 된다. 또한 脾에 甘味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陽氣를 보충하여 脾氣의 運行을 도우나 나중에는 늘어지게 만들어(緩之) 오히려 氣行을 저체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氣의 運行만을 보았을 때는 本味の 用法과 五臟瀉法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두 가지 用法은 유사한 면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41) 酸味는 기운을 수렴하여 안으로 陰氣를 補하므로 肝氣를 보충해주며, 甘味는 心이 急할 때 기운을 늘어지게 하면서 동시에 안으로 虛해진 陽氣를 보충해준다. 또한, 辛味는 表로 氣를 發散시켜 소통시킴으로써 宣肺시켜 氣를 補하고, 鹹味는 水氣를 가지고 있으므로 腎의 潛藏하는 기운을 돕는다. 이와 같이 瀉法의 味들은 자체로 五臟의 氣를 안으로 보충해주는 면을 가지고 있다.

42) 張介賓은 “木不宜鬱, 故欲以辛散之, 順其性者爲補, 逆其性者爲瀉, 肝喜散而惡收, 故辛爲補酸爲瀉.”라고 하였다.

43) 吳崑은 “心火喜栗而惡緩.”이라 하여 栗과 緩을 반대의 작용으로 보았다.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緩은 늘어난 것으로 기운이 처져있는 상태이다. 또한 늘어난 것이 심해지면 움직임이 둔해져서 오히려 굳어서 딱딱해질(堅) 수도 있다. 鹹味が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鹹味는 원래 水의 本味로서 氣를 갈무리하면서 내부에 陽氣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心火의 陽氣가 지나치게 흩어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동시에 내부의 氣를 보충해주는 작용을 한다⁴⁴⁾. 단지 氣를 수렴시키거나 응축시킨다면 酸味나 苦味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수렴은 또한 心의 精氣를 손상시키므로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⁴⁵⁾. 甘味는 기운을 늘어뜨려 心에 대하여 瀉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陽氣를 보충하여 心火를 돕는 역할도 겸한다.

脾의 경우에는 補法으로 甘味를 써서 緩和시키고 瀉法으로 苦味를 쓰라고 하였다. 甘味를 먹게 되면 기운이 안정된다. 마치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의 포만감처럼 약간 늘어난 듯한 편안함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늘어난 상태가 되어야 외부의 기운을 안으로 포용하여 들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을 통합해 낼 수 있는 것이다⁴⁶⁾. 또한, 甘味는 陽氣를 일으켜 氣의 運行을 도우므로 脾土의 통합작용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甘

味에 비하여 瀉法의 苦味는 氣를 응축시켜 사람을 각성시키고 긴장시키므로, 氣의 흐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 있다⁴⁷⁾. 쓴맛은 또한 脾에 생기기 쉬운 濕邪를 제거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⁴⁸⁾.

肺의 경우에 酸味를 써서 補하고 辛味를 써서 瀉한다고 하였다. 肺는 肝과 비교했을 때 氣의 흐름이 반대이므로 酸味를 써서 氣를 수렴시키고 반대로 辛味를 써서 氣를 조금 發散시켜 조절하게 된다⁴⁹⁾.

腎의 경우에는 氣를 안으로 갈무리해야 하는데 苦味를 써서 견고하게 하며, 鹹味는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 苦味와는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된다⁵⁰⁾. 그러면서도 鹹味는 腎의 本味로서 腎을 돕는 작용을 겸한다⁵¹⁾. 「藏氣法時論」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五臟이 괴로울 때와 五臟이 병들었을 때에 五臟의 精氣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五味를 운용하고 있는데 원래 五臟의 本味를 사용하여 精氣를 직접적으로 기르기보다는 五味가 가지고 있는 氣의 운동 방향을 이용하여 그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특히 五臟病의 경우에는 補法과 瀉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의

- 44) 張介賓은 “心火太過，則爲躁越，故急宜食鹹以軟之，蓋鹹從水化，能相濟也。”라고 하였고, 吳崑은 “萬物之生心皆柔軟，故心欲軟，心病則剛燥矣。宜食鹹以軟之，蓋鹹從水化，故能濟其剛燥使然也。心火喜軟而惡緩，故鹹爲補，甘爲瀉也。”라고 하여, 모두 鹹味の 水氣로써 心火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 45) 酸味는 단지 氣를 收斂시키므로써 熱을 내리지만 苦味는 氣를 응축시켜 정체시키므로 心氣의 順行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은 標治로서 임시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酸味와 苦味는 三陰三陽之政, 六淫, 勝復 등에서 주로 佐藥으로 사용되고 있다.
- 46) 이와 반대로 土氣와 相克 관계인 木氣가 강하여 氣의 운행이 급해진다면 脾土의 통합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정체될 것이다. 즉, 肝脾不和의 상태라 할 수 있다.

- 47) 張介賓은 “脾貴充和溫厚，其性欲緩，故宜食甘以緩之。脾喜甘而惡苦，故苦爲瀉，甘爲補也。”라 하여 脾는 원래 甘味를 좋아하고 苦味를 싫어한다고 하였다. 또한, 王冰은 “苦瀉取其堅燥，甘補取其安緩。”이라 하여 苦味와 甘味の 성질이 상반됨을 말하였다.
- 48) 王冰은 “苦瀉取其堅燥，甘補取其安緩。”라고 하여 苦味の 작용이 燥濕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 49) 張介賓은 “肺應秋，氣主收斂，故宜食酸以收之。肺氣宜聚不宜散，故酸收爲補，辛散爲瀉。”라고 하였다.
- 50) 張介賓은 “腎主閉藏，氣貴周密，故腎欲堅，宜食苦以堅之也。苦能堅故爲補，鹹能軟堅故爲瀉。”라고 하여 苦味와 鹹味の 작용을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 51) 鹹味는 陰陽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味로서, 氣의 발산을 누그러뜨려 억제시키는 陰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속으로는 陽氣를 함축하고 있어 기운을 발생시키는 역할도 한다.

補瀉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만 서로 반대로 나타날 뿐 같이 함께 사용하여 五臟의 精氣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⁵²⁾.

또한, 여기서는 五味로만 표현하여 간단히 그 효능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같은 味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작용하는 臟腑 經絡에 따라 약물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苦味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약물에 따라서 邪氣를 밖으로 몰아낼 수도 있고 氣를 肅降시킬 수도 있으며 濕을 말릴 수도 있는 등 그 작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所苦의 運用과 補瀉法の 차이점도, 所苦는 일시적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급히 치료하는 것이라면 補瀉法은 補法과 瀉法을 서로 겸용하여 五臟의 氣의 운행을 순조롭게 조절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素問·運氣篇』의 氣味 運用

『運氣篇』에서 말한 五味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五味는 地氣에 의하여 萬物이 生할 때 갖게 되는 성질이므로 그 해의 干支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萬物의 本性은 외부의 六氣 변화보다는 내부의 五運 원리를 쫓아가게 되어 있으므로 萬物 변화의 本性을 五味로 표현할 때는 五行의 本味를 따르게 된다⁵³⁾. 반면에 六氣의 변화는

52) 「至眞要大論」에 나오는 主氣의 五味 運用을 살펴보면 補法과 瀉法을 함께 사용하여 方劑를 구성하고 있다.

53) 萬物이 生化할 때 즉 形體가 만들어질 때는 内部의 本性에 의해 특성이 정해지므로 주로 五行의 원리를 쫓아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이미 形이 만들어진 후 生命을 영위하여 살아 나가는 동안에는 外部 六氣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三陰三陽의 원리를 쫓아서 생활하게 된다. 일년 동안의 萬物 변화를 보더라도 五穀, 五畜, 五味 등이 生할 때에는 五運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生長收藏을 거치는 동안에는 主氣 또는 客氣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勝復運動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과정에서 邪氣가 발생하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여 氣의 흐름을 조절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藏氣法時論」의 五味 運用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우선 五行의 원리를 쫓으면서 變化의 양상이 적은 五運의 氣味 運用에서부터 시작하여 主氣, 客氣, 司天, 在泉, 六淫, 勝復, 反勝 등 三陰三陽 六氣의 형식을 가지면서 그 變化 양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의 순서로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1) 五運에 따른 氣味の 變化

(1) 萬物化生の 五味 變化

五運의 변화에 의하여 萬物이 化生할 때에는 五味變化도 五行의 本味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五運의 變化는 각각의 해마다 太過年, 不及年, 平氣年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太過年, 不及年에는 五行의 相克 관계에 따라서 여러 味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平年의 경우에는 기운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五運 자신의 本味만이 나타난다. 「五常政大論」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平氣之紀	不及之紀	太過之紀
數和之紀..... 其味酸	委和之紀..... 其味酸辛	發生之紀..... 其味甘辛
升明之紀..... 其味苦	伏明之紀..... 其味苦鹹	赫曦之紀..... 其味苦辛鹹
備化之紀..... 其味甘	卑監之紀..... 其味酸甘	敦阜之紀..... 其味甘鹹酸
審平之紀..... 其味辛	從革之紀..... 其味苦辛	堅成之紀..... 其味辛酸苦
靜順之紀..... 其味鹹	涸流之紀..... 其味甘鹹	流衍之紀..... 其味鹹苦甘

平氣年의 경우에는 五行의 本味만 나타나고

53) 예를 들어, 委和之紀의 경우에서 張介賓은 “酸者衰, 辛者勝, 木兼金化也.”라 하여 五行相克의 작용으로 두 가지 味가 발현된다고 설명하였다.

		司天(上)		大運(中)		在泉(下)		天符	歲會	同天符	同歲會	平氣
甲子	甲午	少陰火	鹹寒	太宮土運	苦熱	陽明金	酸熱					
乙丑	乙未	太陰土	苦熱	少商金運	酸和	太陽水	甘熱					
丙寅	丙申	少陽相火	鹹寒	太羽水運	鹹溫	厥陰木	辛溫					
丁卯	丁酉	陽明金	苦小溫	少角木運	辛和	少陰火	鹹寒		木(丁卯)			正商
戊辰	戊戌	太陽水	苦溫	太徵火運	甘和	太陰土	甘溫					正徵
己巳	己亥	厥陰木	辛涼	少宮土運	甘和	少陽相火	鹹寒					正角
庚午	庚子	少陰火	鹹寒	太商金運	辛溫	陽明金	酸溫			金		正商
辛未	辛丑	太陰土	苦熱	少羽水運	苦和	太陽水	苦熱				水	正宮
壬申	壬寅	少陽相火	鹹寒	太角木運	酸和	厥陰木	辛涼			木		
癸酉	癸卯	陽明金	苦小溫	少徵火運	鹹溫	少陰火	鹹寒				火	正商
甲戌	甲辰	太陽水	苦熱	太宮土運	苦溫	太陰土	苦溫		土	土		
乙亥	乙巳	厥陰木	辛涼	少商金運	酸和	少陽相火	鹹寒					正角
丙子	丙午	少陰火	鹹寒	太羽水運	鹹熱	陽明金	酸溫		水(丙子)			
丁丑	丁未	太陰土	苦溫	少角木運	辛溫	太陽水	甘熱					正宮
戊寅	戊申	少陽相火	鹹寒	太徵火運	甘和	厥陰木	辛涼	火				
己卯	己酉	陽明金	苦小溫	少宮土運	甘和	少陰火	鹹寒					
庚辰	庚戌	太陽水	苦熱	太商金運	辛溫	太陰土	甘熱					
辛巳	辛亥	厥陰木	辛涼	少羽水運	苦和	少陽相火	鹹寒					
壬午	壬子	少陰火	鹹寒	太角木運	酸涼	陽明金	酸溫					
癸未	癸丑	太陰土	苦溫	少徵火運	鹹溫	太陽水	甘熱					
甲申	甲寅	少陽相火	鹹寒	太宮土運	鹹和	厥陰木	辛涼					
乙酉	乙卯	陽明金	苦小溫	少商金運	苦和	少陰火	鹹寒	金	金(乙酉)			正商
丙戌	丙辰	太陽水	苦熱	太羽水運	鹹溫	太陰土	甘熱	水				
丁亥	丁巳	厥陰木	辛涼	少角木運	辛和	少陽相火	鹹寒	木				正角
戊子	戊午	少陰火	鹹寒	太徵火運	甘寒	陽明金	酸溫	火	火(戊午)			
己丑	己未	太陰土	苦熱	少宮土運	甘和	太陽水	甘熱	土	土			正宮
庚寅	庚申	少陽相火	鹹寒	太商金運	辛溫	厥陰木	辛涼					正商
辛卯	辛酉	陽明金	苦小溫	少羽水運	苦和	少陰火	鹹寒					
壬辰	壬戌	太陽水	苦溫	太角木運	酸和	太陰土	甘溫					
癸巳	癸亥	厥陰木	辛涼	少徵火運	鹹和	少陽相火	鹹寒				火	

※ 도표 중에서 中이란 中運 즉 大運을 말한다.

※ 平氣 중에서 밑줄친 것은 太過의 中運이 司天之氣의 相克을 받아 平氣로 바뀐 것이다.

있으며, 不及年에는 자신을 克하는 氣가 들어와 원래의 本味에 같이 곁하여 나타나게 된다⁵⁴⁾. 그러나, 이때에 本味보다 克하는 味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不及年이라 하더라도 고유한 中運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本味の 성질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太過年에는 자신이 克하는 氣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 太過에 의한 勝復 현상이 나타나서 자신을 克하는 氣까지 드러나게 된다.

(2) 五運 變化에 대처하기 위한 氣味 運用

앞에서 五運의 변화는 五行 運行的 法則을 따르면서 事物의 內的 변화를 주도하고 이러한 결과로 萬物 化生の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五運의 변화가 外部 氣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宇宙 자체의 內部的 五行 運動이 外部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氣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太過, 不及에 따른 盛衰가 있게 마련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五行의 本味보다는 「藏氣法時論」의 苦欲補瀉法을 사용해야 한다. 단 風寒暑濕燥火 六氣의 변화보다는 세력이 미약하면서 변화가 적고 事物의 外部보다는 內部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六元正紀大論」에 나오는 中運 변화에 따른 五味 운용은 바로 五運의 太過 不及에 대한 氣의 변화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즉, 앞서의 「五常政大論」의 내용이 萬物의 化生에 관련된 것이라면 「六元正紀大論」의 내용은 같은 五運이라 하더라도 盛衰를 거듭하는 氣의 변화에 관련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藏氣法時論」의 五味 운용을 따르고 있으면서 「至真要大論」 등에 나오는 六氣에 대한 五味 운용보다는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⁵⁵⁾.

「六元正紀大論」에서는 六十甲子の 각각 歲에 따라서 氣化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五運과 司天, 在泉에 각각 五味를 배속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運太過시에는 五臟瀉法을 따르고 運不及시에는 五臟補法을 따르고 있다⁵⁶⁾. 五運의 변화는 안으로 五臟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⁵⁷⁾ 만약 不及한 경우에는 五臟의 氣가 제대로 순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므로 氣의 흐름을 도와주는 五味補法을 쓰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五運이 太過한 경우에는 내부 五臟의 氣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지 瀉法을 써서 五臟 기운의 흐름을 조절해주게 된다. 또한 瀉法의 味는 五臟의 本味와 가까우므로 안으로 虛해질 수 있는 五臟의 精氣를 북돋아주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甲申年, 甲寅年에는 苦味 대신 鹹味를 사용하고 있으며 乙酉年, 乙卯년에는 酸味 대신 苦味를 사용하고 있다.

寒熱溫涼 四氣에 대하여 살펴보면, 不及년에는 기운이 강하지 않으므로 和의 味를 쓰게 되며, 太過年에는 木火는 陽으로 보아 涼이나 寒이 오고 土金水는 陰으로 보아 溫이나 熱이 오는 것이 원칙이다⁵⁸⁾.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① 不及년에 和味를 쓰지 않는 경우

運不及년에는 부족한 中運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이한 점은 少角(木不及)과 少徵(火不及)의 해에서만 四氣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개 中運에 있어서 陽氣의 化生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少角의 경우를 보면, 丁丑年, 丁未년에는 和味 대신 溫味를 써서 陽氣를 보충하지만 木天符年인 丁亥年, 丁巳年과 木歲會年인 丁卯年, 丁酉년에는 木運이 다시 회복하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和味를 쓰고 있다. 少徵의 경우에는 天符年이나 歲會年은 없고 同歲會年만 있어서 陽氣의 발현이 약하게 나타난다⁵⁹⁾. 이 때에는 오히려 司天之氣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 厥陰風木이 司天으로 들어오는 뜻

55) 氣의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氣味 運用法에 있어서도 일정한 규칙성을 갖게 된다.

56) 「藏氣法時論」에서의 五臟所欲에 나오는 瀉法과 補法을 말한다.

57) 六氣의 變化가 外部로부터 經絡을 통하여 筋骨肌肉을 지나 안으로 五臟까지 층차로 전달된다면, 五運의 변화는 내부 五臟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六氣에 비하여 變化를 감지하기 어렵다.

58) 四氣는 四時의 기후 변화에 상응하는 것으로 春夏秋冬에 따라 萬物도 溫熱涼寒으로 그 氣가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五行 변화에 대응하여 氣味를 쓸 때에도 木火金水에 대하여 涼寒溫熱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59) 癸酉年, 癸卯年, 癸巳年, 癸亥年은 모두 火同歲會年이나 원래 同天符年, 同歲會年은 天符年, 歲會年보다 그 세력이 미약하게 나타나므로 火運不及을 크게 보충해 주지 못한다.

巳年, 癸亥年에는 陽氣가 회복되므로 정상적으로 和味를 사용하고, 陽明燥金이 司天으로 들어오는 癸酉年, 癸卯年 등과 太陰濕土가 司天으로 들어오는 癸未年, 癸丑年 등에는 陽氣가 꺾박을 받게 되므로 溫味를 사용하게 된다.

② 太過年에서 四氣가 변화되는 경우

太過年에는 원래 寒熱溫涼의 四氣를 五行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司天之氣와 在泉之氣의 陰陽 屬性이 같아서 그에 대한 四氣의 운용이 溫熱한 약 또는 寒涼한 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中運에 쓰이는 四氣는 溫和한 氣로 대체된다. 司天, 在泉의 陰陽 속성이 같은 경우를 보면, 少陽司天은 厥陰在泉과 짝을 이루어 이러한 해에는 火氣가 성해 지나 寒涼한 약물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太陽司天일 경우에는 太陰在泉과 짝을 이루어 水氣가 성해지니 溫熱한 약물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약물의 四氣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에는 陰陽의 평형이 깨지게 되므로 中運에서는 오히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溫和한 味를 사용하게 된다. 太角年, 太徵年에서는 원래 각각 涼味, 寒味를 써야 하나 모두 和味로 바꾸었으며, 太羽年에는 원래 熱한 味를 써야 하나 溫味로 바꾸었고⁶⁰⁾, 太商年에는 원래의 溫味를 그대로 두었다. 단, 太宮年의 경우 太陽司天에는 溫味를 사용하고 있으며 少陽司天에는 和味를 쓰고 있다⁶¹⁾.

2) 司天, 在泉에 따른 氣味 運用

(1) 客氣의 五味 運用

司天, 在泉의 氣는 天氣와 地氣를 총괄하는

- 60) 丙寅年, 丙申年에는 在泉에 溫味를 쓰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涼味를 써야 하는 것으로 보고 司天, 在泉의 속성이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 61) 太宮이면서 少陽司天之年인 甲申年, 甲寅년에는 원래 苦溫의 味를 써야할 것을 鹹和의 味로 바꾸었는데 火氣를 억제하는데 증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기운으로서 上下에 위치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에 앞서 客氣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먼저 客氣의 五味 運用 原則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至眞要大論」에 나오는 三陰三陽 客氣에 따른 五味 사용법이다.

厥陰之客, 以辛補之, 以酸瀉之, 以甘緩之.

少陰之客, 以鹹補之, 以甘瀉之, 以鹹收之.

太陰之客, 以甘補之, 以苦瀉之, 以甘緩之.

少陽之客, 以鹹補之, 以甘瀉之, 以鹹哽之.

陽明之客, 以酸補之, 以辛瀉之, 以苦泄之.

太陽之客, 以苦補之, 以鹹瀉之, 以苦堅之, 以辛潤之. 開發腠理, 致津液通氣也.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客氣의 경우에 「藏氣法時論」의 補法, 瀉法과 所苦의 用法 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볼 때 각 五臟의 氣의 運行을 도와주는 補法과 그 반대 방향으로 억제 조절하는 瀉法, 그리고 所苦의 用法 등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五臟의 精氣를 돕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⁶²⁾. 여기서의 客氣는 初之氣부터 終之氣까지 六步의 어느 곳에든 들어올 수 있으므로 四時의 主運, 主氣에 상관없이 그 五味 運用

62) 酸味の 誤字로 보아야 한다. 新校正에서 “按藏氣法時論云,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心欲哽, 急食鹹以哽之, 此云以鹹收之者, 誤也.”라 하였고, 張介賓은 “以鹹收之, 誤也, 當作酸. 藏氣法時論曰, 心苦緩, 急食酸以收之者, 是其意.”라고 하였다.

63) 이러한 다양한 五味 運用法들은 「至眞要大論」의 六淫, 勝復, 反勝의 方劑 구성에서 佐藥이나 추가적인 五味 사용법에서 이용되고 있다.

法の原則를 제시하고 있다. 단, 太陰之客에서는 所苦의 用法인 苦以燥之가 빠져있는데, 苦以燥之는 원래 氣의 運行을 돕기보다는 급히 濕邪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방법으로서 여기서는 계절에 따라 濕邪가 반드시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2) 主氣의 五味 運用

客氣와 비교하여 主氣의 五味 運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至眞要大論」에 나오는 내용이다.

木位之主⁶⁴, 其瀉以酸, 其補以辛⁶⁵.
火位之主, 其瀉以甘, 其補以鹹⁶⁶.
土位之主, 其瀉以苦, 其補以甘⁶⁷.

- 64) 王冰은 “木位, 春分前六十一日, 初之氣也”라 하여 木位가 六步의 主氣를 말한다 고 보았다. 主氣가 비록 三陰三陽의 六氣로 표현되나 四時의 五行變化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木火土金水 五行 運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五行은 天圓地方의 원리에 의하여 땅위에서는 方位로서 특성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봄에 나타나는 厥陰風木의 기운은 木位 즉 東方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 65) 張介賓은 “木性升, 酸則反其性而斂之, 故爲瀉. 辛則, 助其發生之氣, 故爲補.”라 하였고, 吳崑도 “所以謂酸瀉而辛補者, 木性升, 酸則反其性而收之, 故爲瀉. 辛則遂其性而發之, 故爲補.”라고 하여 補瀉法이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함을 말하였다.
- 66) 吳崑은 “所以謂甘瀉而鹹補者, 火性急, 甘則反其性而緩之, 故爲瀉. 火欲熨, 鹹則遂其性而栗之, 故爲補.”라고 하여 鹹味の 熨堅 작용, 甘味の 緩和 작용으로 補瀉를 설명하였고, 張志聰은 “二之氣, 乃君火所主之位, 三之氣, 乃相火所主之位, 如未至三月, 而暄熱之氣先至, 未至五月, 而炎暑之氣先至, 此來氣有餘也. 宜瀉之以甘, 蓋從子而泄其母氣也. 如至而不至, 此氣之不及也. 宜補之以鹹, 蓋以水濟火也.”라고 하여 五行의 相生, 相克 원리로 설명하였다.
- 67) 吳崑은 “所以謂苦瀉而甘補者, 土性濕, 苦則反其性而燥之, 故爲瀉. 土欲緩, 甘則順其性而緩之, 故爲補.”라고 하여 苦味와 甘味の 반대되는 작용으로 설명하였고, 張志聰은 “土主於四之氣, 如主氣之時, 埃蒸注雨, 氣之盛也. 宜苦以

金位之主, 其瀉以辛, 其補以酸⁶⁸.
水位之主, 其瀉以鹹, 其補以苦⁶⁹.
少陽之主, 先甘後鹹⁷⁰.
陽明之主, 先辛後酸.
太陽之主, 先鹹後苦.
厥陰之主, 先酸後辛.
少陰之主, 先甘後鹹.
太陰之主, 先苦後甘.

主氣의 경우에는 客氣와 달리 補法, 瀉法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所苦의 用法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所苦의 用法은 補瀉法과는 달리 각각의 五臟이 고통을 받는 일시적인 상황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客氣에 비하여 안정적인 상황인 主氣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이다. 단, 主氣에 있어서는 먼저 瀉法을 쓰고 뒤에 補法을 쓰도록 되어 있다⁷¹.

泄之, 瀉其敦阜之氣. 如化氣不令, 風寒關典, 主氣之不足也. 宜補之以甘 蓋氣不足者, 補之以味也.”라고 설명하였다.

- 68) 吳崑은 “所以謂辛瀉而酸補者, 金性斂, 辛則反其性而發之, 故爲瀉. 酸則遂其性而收之, 故爲補.”라고 하여 辛味와 酸味の 서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補瀉를 설명하였고, 張介賓은 “金之主氣, 五之氣也, 在秋分後六十日有奇, 乃陽明燥金所主之時, 金性斂, 辛則反其性而散之, 故爲瀉. 金欲收, 酸則順其氣而收之, 故爲補.”라고 하여 역시 같은 원리로 설명하였다.
- 69) 吳崑은 “所以謂鹹瀉而苦補者, 水性堅, 鹹則反其性而軟之, 故爲瀉. 苦則遂其性而堅之, 故爲補.”라고 하여 鹹味の 熨堅 작용과 苦味の 堅之 작용이 서로 반대임을 들어 補瀉를 설명하였다.
- 70) 이 부분은 「大要」에서 재이용된 것임. 「大要」는 아직까지 어떠한 책인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나 「運氣篇」 이전에 내려오던 運氣學과 관련된 서적으로 보인다. 王冰도 「大要」에 대해서 단지 “大要, 上古經法也.”라고만 하였다.
- 71) 五行 方位의 主氣에서는 補瀉의 先後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瀉法이 먼저 제시된 것으로 보아 瀉法을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三陰三陽之主의 경우에도 王冰은 “先後之味, 皆謂有病先瀉之而後補之也.”라 하여 瀉法을 먼저 써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主氣는 氣의 특성상 時間의 變化에 따라 기운의 盛衰가 나타나게 되므로 대체적으로 一步의 前半期에는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고 後半期에는 기운이 약해지면서 사라지게 된다⁷²⁾. 그러므로 먼저 瀉法을 쓰고 뒤에 補法을 쓰라고 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시간적인 先後를 말하는 동시에 氣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瀉法을 중시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⁷³⁾.

(3) 「六元正紀大論」의 三陰三陽之政에 대한 五味 運用

「六元正紀大論」을 살펴보면 三陰三陽의 政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政이란 司天之氣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司天之氣는 天氣를 대표하여 일년 중 전반기를 총괄하고 在泉之氣는 地氣를 대표하여 일년 중 후반기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일년을 통틀어 보았을 때는 司天之氣가 그 세력이 강하면서 중심(三步)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며⁷⁴⁾, 반면에 在泉之氣는 六步의 마지막에 위치한 終之氣로서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司天之氣에 반대되는 陰陽의 성질을 가지고서 司天之氣를 견제 조절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⁷⁵⁾.

司天之氣, 在泉之氣에 따른 五味 運用法의 특징은 앞서 主氣, 客氣의 五味 運用에서 나타난 비교적 일률적인 적용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補法, 瀉法, 所苦의 용법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궁극적으로 邪氣를 몰아내고 精氣를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五運이나 主氣와는 달리 客氣는 五行의 항상적인 運行에서 벗어나 六氣의 형태를 가지고 그 盛衰 變化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五味 운용에 있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司天, 在泉의 氣는 다른 間氣에 비하여 上位와 下位에 위치하여 그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淫邪로 전환되기 쉬우며 또한, 이미 時間, 空間 상으로 고정된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기운의 성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⁷⁶⁾. 그러므로, 일률적인 법칙에서 조금 벗어나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여 어느 한쪽의 味를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補法, 瀉法, 所苦의 用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六元正紀大論」에 나타난 三陰三陽의 政에 따라서 五味를 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之政：歲宜苦以燥之溫之。

陽明之政：歲宜以鹹，以苦，以辛，汗之，清之，散之。

之氣의 強弱도 좇아 나타난다.

76) 位置上의 上下左右나 시간적인 先後 관계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六氣 變化의 양상이 특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太陰濕土가 司天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계절의 특성상 濕邪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太陽寒水가 司天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추위보다는 약간 서늘한 여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在泉之氣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약을 조합해야 할 필요도 있다.

72) 一步는 六十度而有奇로서 60일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전반기에는 해당 主氣가 강하게 나타나 후반기에는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復氣 등이 나타날 수 있다.

73) 六氣의 盛衰에서 기운이 不及한 경우보다는 太過한 경우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오므로 氣味 運用에 있어서도 항상 瀉法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六氣의 勝復과 反勝 등에서도 瀉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74) 司天之氣의 用事를 政治에 비유하여 政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司天之氣의 세력이 일년을 주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비하여 在泉之氣의 경우에는 政이라 하지 않았다.

75) 司天之氣가 表에서 강하게 작용한다면 在泉之氣는 裏에서 그보다 약하게 작용하며, 서로의 陰陽 속성이 반대가 되어 在泉之氣는 司天之氣의 妄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勝復의 관계처럼 司天之氣의 強弱에 따라 在泉

少陽之政 : 歲宜鹹宜辛宜酸, 滲之, 泄之, 漬之, 發之.

太陰之政 : 故歲宜以苦燥之溫之. 甚者發之泄之.

少陰之政 : 歲宜鹹以稟之, 而調其上. 甚則以苦發之. 以酸收之, 而安其下, 甚則以苦泄之.

厥陰之政 : 歲宜以辛調上, 以鹹調下.

우선, 太陽寒水の 경우를 살펴보면 苦味를 써서 말리거나 따뜻하게 하라고 하였다. 苦味는 원래 堅之하는 작용이 있어서 腎이 병들었을 때 응축시키는 힘을 이용하여 補法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燥濕 작용을 이용하여 濕邪의 발생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司天의 자리는 三之氣의 자리로서⁷⁷⁾ 계절상 원래 濕이 많다. 그러므로, 太陽이나 太陰 등 陰氣가 강한 기운이 들어올 때에는 濕淫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⁷⁸⁾. 만약에 太陽寒水가 在泉의 자리로 들어왔다면 濕淫으로 轉化되기 보다는 寒淫의 형태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太陰之政의 경우도 太陽之政과 마찬가지로 濕이 발생하므로 똑같이 苦味를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濕土의 기운이 직접 들어오므로 濕淫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므로, 뒤이어 심한 경우에는 發之, 泄之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苦味를 사용하더라도 단순히 燥濕시키는 약물보다도 더 강력하게 泄下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⁷⁹⁾.

77) 三步는 小滿에서 大暑까지로 양력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78) 張志聰도 “苦乃火味, 火能溫寒, 故能燥濕. 凡此太陽司天之歲, 乃寒濕主氣, 故宜燥之以勝濕, 溫之以勝寒.”라 하여 太陽司天의 해에 濕邪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79) 張介賓은 “以苦燥之溫之, 苦從火化, 燥以治濕, 溫以治寒也. 發之泄之, 發散可以逐寒, 滲泄可以去濕也.”라 하여 發之를 發汗로, 泄之를 滲

다음으로 陽明之政의 경우를 살펴보면 鹹, 苦, 辛의 味를 써서 汗之, 清之, 散之하라고 하였다. 陽明은 원래 酸味로 수렴시키는 것이 補法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少陰之政에서도 분명히 酸味로 收之하여 그 아래 陽明在泉을 편안케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陽明之政에서 酸味가 鹹味로 바뀐 것은 三之氣 主氣인 少陽相火와 在泉의 氣인 少陰君火의 영향으로 火氣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火氣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酸味보다는 鹹味를 써서 稟堅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⁸⁰⁾. 이밖에 苦味는 氣의 上逆을 막으면서 濁氣를 泄하며, 辛味는 瀉法으로 사용되어 氣의 發散을 도우며 潤之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⁸¹⁾. 氣를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는 鹹苦辛味 중에서 苦味를 대표적인 味라 할 수 있다⁸²⁾.

少陰之政의 경우를 보면 五味補法에 의하여 鹹味로서 鞭之하여 火氣를 억제하며(調上)⁸³⁾

泄로 보았다.

80) 熱이 성해지면 오히려 氣行이 저체되어 경적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鹹味를 사용하여 발산된 氣를 누그러뜨리면 氣行이 부드러워지면서 경적이 풀리게 된다. 이것은 또한 鹹味에 응축된 陽氣가 퍼지면서 氣行이 안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鹹味의 작용에 의하여 司天, 在泉 또는 客氣로 少陰君火나 少陽相火가 들어올 때에는 주로 鹹味로써 熱을 내리고 있다.

81) 張介賓은 “鹹從水化, 治在泉之君火也. 苦從火化, 治司天之燥金也. 以辛者, 辛從金化, 本年火盛金衰, 同司天之氣以求其平也. 然燥金司天, 則歲半之前, 氣過於斂, 故宜汗之散之. 君火在泉, 則歲半之後, 氣過於熱, 故宜清之也.”라고 하여 陽明之政의 해를 君火, 相火의 영향으로 金氣가 衰해진 것으로 보아 辛味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82) 「六元正紀大論」의 六十甲子에 따른 氣味運用에서 司天의 경우 苦味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83) 張介賓은 “鹹從水化, 故能調在上之君火, 苦發之可以散火, 酸收之, 可以補金, 平其上之君火, 則下之燥金得安矣. 燥熱甚者, 非苦寒泄之不可.”라 하여 水克火의 관계에 의하여 鹹味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심할 때에는 苦味를 써서 강력하게 응축시켜 熱邪를 몰아내라고 하였다⁸⁴⁾. 또한 在泉의 경우에 酸味로 수렴시켜 편안케 하는데(安下) 降氣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역시 苦味를 써서 邪氣를 아래로 泄하라고 하였다.

少陽之政의 경우에는 鹹, 辛, 酸의 味를 써서 滲之, 泄之, 瀆之, 發之하라고 하였는데, 相火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少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鹹味를 사용하였으며 在泉의 風木을 다스리기 위하여 補法과 瀉法으로서 辛味와 酸味를 사용하였다⁸⁵⁾. 이와 반대로 厥陰之政의 경우는 辛味를 써서 厥陰司天을 다스리고 鹹味를 써서 少陽在泉을 다스리라고 하였다⁸⁶⁾. 厥陰風木에서 辛味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補法으로서 發散力을 도우려는 목적과 함께, 陽氣를 發揚시켜 表의 風邪를 밖으로 몰아내기 위한 작용도 겸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藏氣法時論」의 補法, 瀉法, 所苦의 用法을 병용하고 있으면서도 司天, 在泉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변형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상황에 따라서 五臟의 괴로운 상태를 해소

시키거나 淫邪의 발생을 방지하는 쪽으로 五味를 운용하고 있어서 本治라기 보다는 標治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4) 六十甲子 각각의 司天, 在泉에 대한 氣味 運用

三陰三陽之政이 일년을 통틀어 주관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비하여 여기서는 司天과 在泉이 中運과의 관계 속에서 五味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六元正紀大論」에서 각각의 歲에 나타나는 五味 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구체적인 운용방법은 앞에서 기재한 도표 참조)

① 司天

앞에서 설명한 三陰三陽之政의 五味 運用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단, 각각의 政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味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있다. 太陽, 太陰이 司天일 경우에는 苦味를, 少陰, 少陽이 司天일 경우에는 鹹味를⁸⁷⁾, 陽明이 司天일 경우에는 苦味를, 厥陰이 司天일 경우에는 辛味를 쓰도록 되어 있다.

四氣를 살펴보면, 太陽司天의 해 중에서 戊辰, 戊戌, 壬辰, 壬戌은 中運이 太徵, 太角으로서 陽氣가 盛하므로 熱한 藥물을 피하여 溫味를 쓰고 있으며 나머지 太宮, 太商, 太羽의 해에는 陰氣가 盛하므로 熱한 味를 쓰고 있다. 太陰司天의 경우에도 少角, 少徵인 해에는 溫味를, 少商, 少羽, 少宮의 해에는 熱한 味를 쓰고 있다. 陽明이 司天인 경우에는 小溫을 쓰고 있는데 시기가 三之氣이므로 溫熱한 味를 피한 것이다. 少陰, 少陽 司天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寒味를 써서 淸熱시키고 있으며, 厥陰이 司天인 경우에도 涼味를 써서 熱을 내리게 하

84) 이 때의 發之는 苦味로써 淸熱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 나오는 泄之는 苦味를 써서 泄下시켜 熱을 내리는 작용을 말한다.

85) 張介賓은 “以上十年, 相火司天, 風木在泉, 鹹從水化, 能勝火也. 辛從金化, 能勝木也. 酸從木化, 順木火之性也. 滲之泄之, 所以去二便之實, 瀆之發之, 所以去腠理之邪也.”라 하여 辛味와 酸味가 각각 木氣를 억제 또는 돕는 것으로 보았다. 辛味와 酸味를 모두 金氣와 木氣의 本味로 본 것이다. 그러나, 厥陰之政의 경우를 보면 辛味로 厥陰司天을 조절하고 鹹味로 少陽在泉을 조절하라고 하였다. 辛味와 鹹味는 모두 肝와 心의 補法으로 사용되는 味들이다. 따라서 少陰之政의 辛味는 肝의 發散을 돕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酸味도 瀉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6) 高世植은 “木氣在上, 宜以金味之辛調其上. 火氣在下, 宜以水味之鹹調其下, 其少陽相火之氣, 無妄犯之, 不可犯以火味也.”라 하여 역시 五行相克의 원리로써 설명하였다.

87) 火熱의 氣가 司天으로 올 때에 鹹味를 쓰는 이유는 鹹味의 稟堅 작용 때문이다. 少陰之政에서 “鹹以稟之而調其上”이라 한 것이 바로 鹹味의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고 있다.

② 在泉

在泉之氣의 경우에는 司天之氣에 비하여 그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瀉法을 쓰지 않고 補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邪氣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司天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五味 運用法을 쓰지는 않는다. 단, 少陽, 少陰이 在泉인 경우에는 火氣가 淫邪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시 鹹寒한 味로써 清熱시키고, 太陽이 在泉인 경우에는 終之氣에 위치하여 陽氣의 부족을 초래하므로 氣를 견고히 하는 苦味보다는 오히려 陽氣를 보충해주는 甘味를 사용하고 있다⁸⁸⁾. 단, 예외적으로 太陽在泉으로서 水運之年인 辛未年, 辛丑年⁸⁹⁾과 太陰在泉으로서 土運之年인 甲戌年, 甲辰年⁹⁰⁾에는 후반기에 陰濕한 邪氣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모두 苦味를 써서 燥之하고 있다. 四氣를 살펴보면 대체적인 원칙을 지키고는 있으나 일부 예외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 太陰在泉의 경우에 太商, 太羽에는 熱味를, 太宮, 太徵, 太角에는 溫味를 쓰고 있다⁹¹⁾. 그 밖에 厥陰在泉에서 太羽에 溫味를⁹²⁾, 陽明在泉에서 太宮에 熱味를 쓰는 것이 예외적이다.

(5) 「至眞要大論」의 六淫, 反勝, 勝復에서의 氣味 運用

「至眞要大論」에 나오는 司天, 在泉의 六淫, 勝復, 反勝의 경우는 모두 六氣의 盛衰 변화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약물 운용에 있어서도 그 구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補法, 瀉法, 所苦의 用法 등을 적절히 섞어 사

용하여 佐藥, 또는 使藥의 역할로서 사용하고 있다⁹³⁾. 六淫, 勝復, 反勝은 모두 客氣의 세력이 강하여 나타나는 경우인데 六淫은 司天, 在泉의 氣가 盛하여 邪氣로 변한 것이나 그 변화가 급격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⁹⁴⁾. 반면에 勝復의 경우 勝氣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그 세력도 강하다. 復氣도 勝氣의 출현 양상에 병행하여 나타난다⁹⁵⁾. 반면에 反勝은 三陰三陽의 六氣가 司天, 在泉의 자리에서 변화를 주도하지만 그 세력이 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寒熱이 반대되는 기운이 출현한 것이다.

君藥과 佐藥, 추가적 五味 運用法들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注家들은 五行의 相生, 相克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뒷 부분에 추가된 五味 用法들은 「藏氣法時論」의 내용과 문장이 동일하므로 「藏氣法時論」의 五臟苦欲補瀉法으로 注釋을 하고 있으나, 君藥이 결정되는 이유와 君藥과 佐藥 등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대부분 五行의 本味로 보고 相生, 相克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藏氣法時論」

93) 「至眞要大論」에서는 “主病之謂君, 佐君之謂臣, 應臣之謂使.”라 하여 君臣佐使 관계를 규정하였는데 君藥은 方劑 중에서 대표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약이며, 臣藥은 君藥을 도와 효과를 높이는 작용을 하고, 佐使藥은 경증을 치료하거나 君藥, 臣藥의 작용을 억제, 조절하면서 각 약물들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至眞要大論」의 六淫, 勝復, 反勝에 대한 氣味 運用에서 臣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佐藥이 臣藥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뒷 부분에 추가된 用法들도 상황에 따라 임의대로 운용할 수 있다.

94) ‘淫’의 의미는 서서히 침식해 들어오는 것을 뜻하니 邪氣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司天, 在泉의 氣는 일정한 시간 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영향력의 범위가 크므로 六淫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在泉之氣의 경우에는 裏에서부터 변화가 시작하므로 ‘淫于內’라 하였고 司天之氣의 경우에는 밖에서부터 영향이 미치므로 ‘淫所勝’이라 하였다.

95) 勝氣가 강하면 復氣도 강하고, 勝氣가 약하면 復氣도 약하게 나타난다.

88) 「至眞要大論」의 寒淫于內的 경우에도 甘味를 君藥으로 사용하고 있다.

89) 水同歲會年임.

90) 土同天符年임.

91) 太宮에 溫味를 쓴 이유는 司天과 中運에 모두 溫熱한 味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92) 원래는 涼味를 써야 원칙에 맞는다.

의 五味 運用法이 五行의 原理에서 벗어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藏氣法時論」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氣의 運行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문제이다⁹⁶⁾. 따라서 「內經·運氣篇」의 氣味 運用 方法이 「藏氣法時論」의 五臟苦欲補瀉法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 이상 「藏氣法時論」의 五味 運用 정신에 입각하여 「運氣篇」의 氣味 運用法에 대한 일관된 재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다음에서 六淫, 勝復, 反勝에 대한 구체적인 氣味 運用方法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① 六淫에 대한 氣味 運用

六淫은 司天之氣, 在泉之氣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六元正紀大論」의 三陰三陽之政에서 쓰인 氣味 運用法과 원칙적으로 같다. 그러나, 六淫은 三陰三陽의 政에 비하여 邪氣로서의 성질이 강하므로 그 변화도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藏氣法時論」의 五臟補瀉法, 五臟所苦에 대한 運用法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司天>

風淫所勝, 平以辛涼, 佐以苦甘, 以甘緩之, 以酸瀉之.

熱淫所勝, 平以鹹寒, 佐以苦甘, 以酸收之.

濕淫所勝, 平以苦熱, 佐以酸辛, 以苦燥之, 以淡泄之. 濕上甚而熱,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汗爲故而止.

火淫所勝, 平以酸冷⁹⁷⁾, 佐以苦甘, 以

酸收之, 以苦發之, 以酸復之, 熱淫同.

燥淫所勝, 平以苦濕⁹⁸⁾, 佐以酸辛, 以苦下之.

寒淫所勝, 平以辛熱, 佐以甘苦, 以鹹瀉之.

<在泉>

風淫于內, 治以辛涼, 佐以苦⁹⁹⁾, 以甘緩之, 以辛散之.

熱淫于內, 治以鹹寒, 佐以甘苦, 以酸收之, 以苦發之.

濕淫于內, 治以苦熱, 佐以酸淡, 以苦燥之, 以淡泄之.

火淫于內, 治以鹹冷, 佐以苦辛, 以酸收之, 以苦發之.

燥淫于內,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苦下之.

寒淫于內, 治以甘熱, 佐以苦辛, 以鹹瀉之, 以辛潤之, 以苦堅之.

각각의 三陰三陽 중에서 가장 앞에 君藥으로서의 味가 나오며 바로 뒤에 佐藥이 나오고 끝 부분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제시되어 있다. 뒷 부분에 추가된 약물들은 대부분 君藥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補法, 瀉法, 所苦의 用法 등 「藏氣法時論」에서 제시된 약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五臟의 氣運行을 돕는다는 점에서 君藥의 작용과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臣藥과 비슷하며 또한 여러 방향으로 치료 목표를 두

96) 本味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五行 相克으로 病이 전해져서 相克 관계의 五臟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때 그 해당 五臟의 精氣를 돕기 위하여 사용된다. 「至眞要大論」의 三陰三陽之勝에서 君藥으로 本味가 사용된 것이 그 예이다.

97) '冷'의 의미는 '寒'에 가까우나 그보다는 찬 정도가 약한 것으로 熱邪가 약하거나 寒味를

쓰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한다. 또한, 明代의 吳本, 明抄本 등에는 모두 '酸冷'이 '鹹冷'으로 되어 있으며 張介賓, 吳崑, 姚止庵 등도 모두 '鹹冷'으로 보고 注를 달았다.

98) '濕'은 '溫'의 誤字이다. 新校正에서 "按上文燥淫于內 治以苦溫 此云苦濕者 濕當爲溫."이라 하였다.

99) 明抄本에는 '苦' 다음에 '甘'字가 더 있어서 張介賓, 吳崑의 경우 '苦甘'으로 보고 注하였다.

고 있다는 점에서는 佐藥과 비슷하다. 君藥에 따라 나오는 佐藥도 또한 君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편 견제하여 조절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

우선 君藥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三陰三陽之政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味들과 일치한다. 단, 寒淫이 盛할 때에는 단순히 苦味로써 堅之하여 補하는 방법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므로, 司天의 寒淫이 盛할 경우에는 寒邪가 表로 들어오므로 苦味보다는 辛味를 써서 邪氣를 밖으로 몰아내게 되며, 在泉의 寒淫이 盛할 때에는 邪氣가 안에서부터 생겨나므로 오히려 甘味를 써서 내부의 陽氣를 보충하면서 寒邪를 물리치게 된다¹⁰⁰. 또한 四氣의 運用에 있어서 火淫所勝의 경우 酸冷의 味를 사용하고 있는데 熱淫의 경우보다는 熱氣가 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注家들은 '酸'자를 '鹹'자의 誤字로 보았으나 火淫에 대한 처치가 熱淫보다 완만하다는 면에서는 酸味도 의미가 통한다고 본다.

佐藥 運用에 대한 설명은 뒤에 따로 종합하여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각 六淫에 대하여 君藥으로 제시된 氣味와 뒷부분에 추가된 五味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風淫의 경우¹⁰¹) 辛涼한 味를 君藥으로 하고 있는데 辛味는 陽氣의 發散力을 도와 風邪를

몰아내며¹⁰²) 涼味는 陽邪인 風으로 인한 熱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¹⁰³). 추가된 味들을 살펴보면, 司天風淫所勝에서는 甘味로 緩之하고 酸味로 瀉之하라고 하였으나 在泉風淫于內의 경우에는 酸味가 빠지고 辛味로 다시 散之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司天之氣가 들어오는 三之氣에는 기후가 溫熱하므로 酸味를 써서 기운을 수렴시켜야 하고 在泉之氣가 들어오는 終之氣에서는 辛味를 써서 陽氣를 북돋고 發散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熱淫의 경우를 살펴보면¹⁰⁴), 앞서의 少陰之政에서 鹹味로 熨堅하여 司天之氣를 조절하고 酸味로 收斂하여 在泉之氣를 안정시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鹹味¹⁰⁵)와 酸味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少陰之政에서 심할 경우에는 苦味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熱淫在泉의 경우에도 以苦發之가 포함되어 있다¹⁰⁶).

102) 張介賓은 “風爲木氣，金能勝之，故治以辛涼。”이라 하여 辛涼한 味를 쓰는 이유를 金氣가 風木의 邪氣를 克하여 없애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風邪를 몰아내기 위하여 辛味를 쓸 때에는 陽氣의 發散을 도와 發汗法등으로 散之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辛味の 金盛보다는 發散시키는 작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王冰은 “木苦急，則以甘緩之，苦抑，則以辛散之。藏氣法時論曰，肝苦急，急食甘以緩之，甘欲散，急食辛以散之，此之謂也。”라고 하여 辛味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肝이 抑壓을 싫어하므로 기운을 발산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103) 王冰은 “風性喜溫而惡清，故治之涼，是以勝氣治之也。”라 하였다.

104)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司天熱淫所勝의 경우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약물로 鹹寒은 犀角, 苦甘은 連翹, 生地黄, 酸味는 地榆를, 方劑로는 「外臺秘要」의 升麻湯을 예로 들었으며 在泉熱淫于內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물로 鹹寒은 玄蔘, 苦甘은 甘草, 連翹, 黃連, 酸味는 芍藥, 苦味는 柴胡를 들었으며, 方劑로는 清營湯(犀角 生地黄 玄蔘 竹葉心 金銀花 連翹 黃連 丹蔘 麥門冬)을 예로 들었다.

105) 張介賓과 吳崑은 모두 “熱爲火氣，水能勝之，故宜治以鹹寒。”이라 하여 水克火의 원리로 鹹味를 쓴다고 설명하였다.

106) 司天熱淫所勝의 경우에 以苦發之가 빠져있으

100) 在泉之氣는 地氣로서 기운이 안으로부터 시작되니 淫邪가 발생할 때도 內部の 虛함을 틈타서 일어나며 반대로 司天之氣는 天氣로서 기운이 밖으로부터 시작되니 淫邪가 발생할 때에도 表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본다.

101) 「東醫學의 方法論研究」(尹吉榮, 서울, 성보사, 1983)에서는 司天風淫所勝에 쓰는 구체적인 약물로 辛涼은 薄荷, 苦甘은 白朮, 人蔘, 茯苓, 甘味는 甘草, 酸味는 白芍藥으로 예를 들었고, 方劑로는 「傷寒論」의 黃芩加半夏生薑湯을 들었다. 또한, 在泉風淫于內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辛涼은 薄荷, 苦甘은 草龍膽과 人蔘, 甘味는 甘草와 大棗, 辛味는 荊芥와 生薑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方劑로는 「傷寒論」의 半夏瀉心湯類를 예로 들었다.

濕淫의 경우를 보면¹⁰⁷⁾, 太陰之政에서는 苦味로 燥之, 溫之하고 심하면 發之, 泄之하라고 하였는데, 濕淫의 경우 司天, 在泉 모두 苦熱한 약을 君藥으로 하며 뒤에 苦味로 燥之하고 淡味로 泄之하라고 하였다¹⁰⁸⁾. 淡味が 추가된 것이 특징인데 滲濕 작용을 통하여 濕邪를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¹⁰⁹⁾. 또한, 邪氣가 濕熱로 바뀌었을 때에는 熱味를 溫味로 바꾸며 痰을 조금만 내서 泄하도록 하였다.

火淫의 경우는¹¹⁰⁾ 在泉은 熱淫의 용법과 동일하며, 司天의 경우에는 鹹味 대신 酸味를 君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 또한 司天에서 冷한 기운의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火淫에 대한 치료를 熱淫보다는 완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熱淫보다는 火淫이 熱氣가 약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스

한 氣味 운용을 나타내고 있는 司天火淫所勝, 在泉火淫于內, 少陽之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燥淫의 경우에는¹¹¹⁾, 苦味로써 下之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¹¹²⁾.

寒淫의 경우를 살펴보면¹¹³⁾, 太陽之政에서는 陰濕한 邪氣를 몰아내기 위하여 苦味를 주로 사용하였으나¹¹⁴⁾ 여기에서는 司天에는 表의 寒邪를 몰아내며 在泉에는 裏의 陽氣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각각 辛味¹¹⁵⁾와 甘味¹¹⁶⁾를 사용하고 있다¹¹⁷⁾. 또한 苦味, 鹹味, 辛味 등을 추

나 在泉熱淫于內와 少陰, 少陽의 復氣에서 모두 苦味로 發之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단순히 생각된 것으로 생각되며 苦味の 有無는 실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107)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司天濕淫所勝에서 구체적인 약물로 苦熱은 蒼朮, 酸辛은 芍藥, 羌活, 苦味는 木通, 淡味는 茯苓을 들었고, 方劑로는 『外臺秘要』의 木防己湯을 들었다. 在泉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苦熱은 白朮, 酸味는 芍藥, 淡味는 薏苡仁, 苦味는 防己, 淡味는 茯苓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外臺秘要』의 千金療淋通方을 들었다.
- 108) 王冰은 “濕與燥反, 故治以苦熱, 佐以酸淡也. 燥除濕, 故以苦燥其濕也. 淡利竅, 故以淡滲泄也. 藏氣法時論曰,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靈樞經曰, 淡利竅也.”라고 하였다.
- 109) 『至眞要大論』에서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泄爲陽.”이라 하였다.
- 110)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司天火淫所勝에서 구체적인 약물로 鹹冷(君藥을 鹹冷으로 보았음)은 玄蔘, 佐藥의 苦味는 黃芩, 甘味는 甘草 酸味는 芍藥, 苦味는 柴胡, 酸味는 五味子로 보았으며 方劑로는 『外臺秘要』의 地黃湯을 들었다. 在泉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鹹冷은 犀角, 佐藥의 苦味는 黃連, 辛味는 乾薑, 夏枯草 酸味는 石榴皮, 苦味는 白頭翁으로 보았으며 方劑로는 『外臺秘要』의 文仲犀角散을 들었다.

- 111)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司天燥淫所勝에 대해서 약물로 苦溫은 柴胡, 半夏, 酸辛은 芍藥, 半夏, 生薑, 苦味는 大黃 등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外臺秘要』의 水解散을 들었다. 또한, 在泉燥淫于內에 대해서는 약물로 苦溫은 半夏, 甘辛은 甘草, 半夏, 苦味는 大黃 등을 들었다. 方劑로는 『傷寒論』의 小柴胡湯을 들었는데 成無己는 『注解傷寒論』에서 熱淫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 112) 張介賓은 “燥爲金氣, 火能勝之, 治以苦溫, 苦從火化也.”라고 하여 火克金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新校正에서는 “按藏氣法時論曰, 肺苦氣上逆, 急食苦以泄之, 用辛瀉之, 酸補之.”라고 하여 肺氣의 上逆을 내리기 위하여 苦味를 썼다고 보았다. 苦味는 『六元正紀大論』의 陽明之政에서 쓰이고 있으며 六十甲子 각 해의 陽明司天에서도 대표적인 味로 사용되고 있다.
- 113)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司天寒淫所勝에서 구체적인 약물로 辛熱은 桂枝, 甘苦는 甘草, 白朮, 鹹味는 牡蠣 등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金匱要略』의 桂枝加龍骨牡蠣湯을 예로 들었다. 在泉寒淫于內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甘熱은 人蔘, 甘草, 夫子, 苦辛은 白朮, 桂枝, 附子, 鹹味는 澤瀉, 辛味는 麻黃, 生薑, 苦味는 知母 등을 들었고, 方劑로는 『金匱要略』의 桂枝芍藥知母湯을 예로 들었다.
- 114) 太陽之政의 경우에는 三之氣에 위치하므로 안으로 濕邪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 115) 五臟所欲에서 補法과 같은 의미이다.
- 116) 甘味는 『六元正紀大論』에서 六十甲子 각 해의 太陽在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 117) 張介賓은 甘味에 대해서 “寒爲水氣, 熱能勝寒, 故治以甘熱, 甘從土化, 熱從火化也.”라고 하여

가로 사용하여 補瀉와 所苦에 대한 用法을 모두 運用하고 있다¹¹⁸⁾.

② 三陰三陽 勝復에 대한 氣味 運用

三陰三陽의 勝復은 司天, 在泉의 氣 또는 間氣의 客氣가 지나치게 盛하였을 때 그것에 對항하여 克하는 氣가 나타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六氣의 勝氣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면서 그 세력이 강하므로 司天의 경우에는 우선 五行 相克 관계에 있는 臟의 本味를 君藥으로 사용하여 精氣를 회복시키며, 復氣의 경우에는 그 세력이 勝氣보다 강하지 않으므로 六淫의 氣味 運用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至真要大論」에 나오는 六氣 勝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厥陰之勝, 治以甘清¹¹⁹⁾, 佐以苦辛, 以酸瀉之¹²⁰⁾.

少陰之勝, 治以辛寒, 佐以苦鹹, 以甘瀉之¹²¹⁾.

土克水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또한, 辛味에 대해서는 “辛熱足以散寒”라고 하여 辛熱한 味를 써서 寒邪를 몰아낸다고 하였다.

118) 張介賓은 司天寒淫所勝에 대하여 “苦甘可以勝水, 以鹹瀉之, 水之正味, 其瀉以鹹也.”라 하여 佐藥과 鹹味를 모두 五行의 相克으로 설명하였다.

119) 涼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120) 張介賓은 “木勝則土敗, 治之以甘清, 甘益土, 清平木也. 佐以苦辛, 散風熱也. 以酸瀉之, 木之正味, 其瀉以酸也.”라고 하였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甘淸은 甘草, 葛根, 苦辛味는 黃連, 乾薑, 酸味는 芍藥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葛根湯, 葛根加半夏湯, 葛根黃芩黃連湯 등을 들었다.

121) 張介賓은 “熱勝則乘金, 治以辛寒, 散火也. 佐以苦鹹, 泄熱也. 以甘瀉之, 火之正味, 其瀉以甘也.”라고 하였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辛寒은 石膏, 苦味는 柴胡, 鹹味는 澤瀉, 甘味는 竹葉으로 보았으며 方劑로는 「千金方」의 陰毒甘草湯과 「金匱要略」의 升麻鳖甲湯 등을 들었다.

太陰之勝, 治以鹹熱, 佐以辛甘, 以苦瀉之¹²²⁾.

少陽之勝, 治以辛寒, 佐以甘鹹, 以甘瀉之¹²³⁾.

陽明之勝, 治以酸溫, 佐以辛甘, 以苦泄之¹²⁴⁾.

太陽之勝, 治以甘熱, 佐以辛酸, 以鹹瀉之¹²⁵⁾.

厥陰之復, 治以酸寒, 佐以甘辛, 以酸瀉之, 以甘緩之¹²⁶⁾.

122) 張介賓은 “土勝則濕淫, 治以鹹熱, 鹹能潤下, 熱能燥濕也. 濕勝則土寒, 佐以辛甘, 辛能溫土, 甘能補土也. 以苦瀉之, 土之正味, 其瀉以苦也.”라고 하여 鹹味의 潤下 작용으로 濕이 빠져나간다고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鹹熱은 澤瀉와 桂枝의 合用으로, 辛味는 桂枝와 生薑, 甘味는 茯苓, 甘草, 苦味는 白朮로 보았으며 方劑로는 「金匱要略」의 茯苓澤瀉湯을 들었다.

123) 吳崑은 “火勝乘金, 治以辛寒者, 辛能散火, 寒能抑火也. 佐以甘鹹者, 甘緩火氣之急速, 鹹要火氣之燥實也. 復言以甘瀉之, 重甘瀉也.”라고 하였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辛寒은 石膏, 甘鹹은 甘草와 澤瀉, 甘味는 生地黃으로 보았으며 方劑로는 「千金方」의 六物解肌湯을 들었다.

124) 張介賓은 “燥金之勝, 病在肺肝, 治以酸溫, 潤燥暖肺也. 佐以辛甘, 瀉肺補肝也. 以苦泄之, 苦從火化, 能泄燥邪之實也.”라고 하여 酸味甘가 肝의 本味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潤肺하는 것으로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酸溫은 五味子와 乾薑의 合用으로, 辛味는 乾薑, 桂心으로 甘味는 甘草, 杏仁, 苦味는 麻黃, 紫菀 등으로 보았으며 方劑로는 「外臺秘要」의 紫菀七味湯을 들었다.

125) 吳崑은 “太陽寒水也. 治之以甘, 益土以防水也. 治之以熱, 扶陽而散寒也. 佐之以辛則甘不滯, 佐之以酸則熱不燥, 寒氣入裏變熱而作燥實則用鹹以瀉之.”라고 土克水의 원리에 의하여 甘味를 君藥으로 썼다고 설명하였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甘熱은 甘草와 桂枝의 合用으로, 辛味는 細辛, 桂枝, 酸味는 芍藥, 鹹味는 澤瀉로 보았으며 처방으로는 「傷寒論」의 當歸四逆湯을 예로 들었다.

126) 張介賓은 “厥陰風木之復, 治以酸寒, 木之正味, 其瀉以酸, 木火相生, 宜清以寒也. 佐以甘辛, 木

少陰之復, 治以鹹寒, 佐以苦辛, 以甘瀉之, 以酸收之, 辛苦發之¹²⁷⁾, 以鹹熨之¹²⁸⁾.

太陰之復, 治以苦熱, 佐以酸辛, 以苦瀉之, 燥之, 泄之¹²⁹⁾.

少陽之復, 治以鹹冷, 佐以苦辛, 以鹹熨之, 以酸收之, 辛苦發之¹³⁰⁾, 發不遠熱, 無犯溫涼, 少陰同法¹³¹⁾.

陽明之復, 治以辛溫, 佐以苦甘, 以苦泄之, 以苦下之, 以酸補之¹³²⁾.

太陽之復, 治以鹹熱, 佐以甘辛, 以苦堅之¹³³⁾.

三陰三陽의 勝에서는 그 세력이 매우 강하여 相克 관계에 있는 臟이 많은 손상을 받게 된다. 자신이 克하는 臟이 병들게 되므로 우선적으로 병을 받는 臟의 本味를 君藥으로 사용하면서 추가로 勝氣를 억제하는 五味瀉法을 사용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太陽之勝에서는 苦味 대신 甘味를 쓰고 있는데 苦味를 많이 사용할 경우 오히려 心氣를 위축시켜 경직

盛土衰, 以甘補土, 辛從金化, 以辛制木也. 瀉者, 瀉肝之實, 緩者, 緩肝之急也.”라고 하여 주로 五行 相生相克 원리로 설명하였으며, 吳崑은 “風木以升發爲性, 治之以酸, 收之也. 治之以寒, 瀉之也. 佐以甘辛, 順其升達之體也. 以酸瀉之, 瀉其有餘也. 以甘緩之, 緩其太急也.”라고 하여 酸味가 風木의 升發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酸寒은 芍藥, 甘辛은 人蔘, 生薑, 陳皮, 酸味는 木瓜, 甘味는 甘草로 보았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小青龍湯, 小青龍去麻黃加茯苓湯 등을 들었다.

127) 辛味도 苦味와 마찬가지로 發之하여 邪氣를 몰아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吳本, 明抄本 등에서는 모두 ‘辛’이 ‘以’로 되어 있다.

128) 張介賓은 “少陰君火之復, 治以鹹寒, 制以所不勝也. 佐以苦辛, 發散其熱也. 以甘瀉之, 甘瀉火也. 以酸收之, 斂浮熱也. 以苦發之, 散火之鬱也. 以鹹熨之, 解熱之結也.”라 하였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鹹寒은 犀角, 苦辛은 黃芩과 石膏, 甘味는 甘草, 酸味는 芍藥, 苦味는 柴胡, 鹹味는 牡蠣로 보았으며 方劑로는 「外臺秘要」의 柴胡通塞湯을 들었다.

129) 張介賓은 “太陰濕土之復, 治以苦熱, 苦能瀉土, 熱能燥濕也. 佐以酸辛, 酸能制土, 辛能溫寒也. 以苦瀉之, 燥之泄之, 瀉以奪其壅, 燥以勝其濕, 泄以利其水也.”라 하였고, 吳崑은 “太陰以濕爲政, 治之以苦, 燥濕也. 治之以熱, 燥濕也. 佐以酸辛者, 酸從木化, 能平濕土之甘, 辛從金化, 能散濕土之滯, 以苦瀉之, 奪之也. 濕勝不宜潤, 是故燥之, 濕勝不宜塞, 是故泄之.”라 하였다. 張介賓은 苦味가 土氣를瀉한다고 보았고 吳崑은 苦味로써 燥濕시킨다고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苦熱은 蒼朮, 酸味는 芍藥, 辛味는 乾薑, 厚朴, 苦味는 黃連, 防已를 들었으며 方劑로는 「千金方」의 黃連煎을 들었다.

130) 少陰之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131) 吳崑은 “少陽相火也. 治以鹹冷, 用其所不勝也.

佐以苦辛, 苦能降火, 辛能散火也. 因火而作堅實者, 以鹹熨之. 因火而傷陰氣者, 以酸收之. 因火而佛鬱者, 辛苦發之.”라고 하였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鹹冷은 犀角, 苦辛은 黃芩과 石膏, 鹹味는 牡蠣, 酸味는 芍藥으로 보았으며 方劑로는 「千金方」의 溫病戰掉不安驚動方을 들었다.

132) 張介賓은 “陽明燥金之復, 治以辛溫, 金之正味, 瀉之以辛, 金之清燥, 勝之以溫也. 佐以苦甘, 苦從火化, 以苦制金, 木被金傷, 以甘緩急也. 以苦泄之下之, 開燥結以通實邪, 以酸補之, 飲津液以滋乾涸也.”라 하여 金의 本味로서 辛味를 君藥으로 쓴다고 하였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辛溫은 半夏, 佐以苦甘의 苦味는 柴胡, 黃芩, 甘味는 大棗, 以苦泄之는 枳實, 以苦下之는 大黃, 酸味는 芍藥으로 보았고 方劑로는 「傷寒論」의 大柴胡湯을 들었다.

133) 張介賓은 “太陽寒水之復, 治以鹹熱, 水之正味, 其瀉以鹹, 而治寒以熱也. 佐以甘辛, 甘從土化, 用以制水, 而辛能散寒也. 寒水通於腎, 腎不堅則寒易起, 故藏氣法時論曰, 腎欲堅, 急食苦以堅之也.”라고 하였고, 吳崑은 “太陽, 寒水也. 治之以鹹, 從治也. 治之以熱, 正治也. 佐以甘辛, 用其散也. 以苦堅之, 用其守也.”라 하여 모두 君藥의 鹹味를 寒水의 本味로서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鹹熱은 牡蠣와 附子의 合用으로, 甘味는 白朮, 茯苓, 辛味는 桂枝, 附子, 苦味는 芍藥으로 보았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眞武湯을 예로 들었다. 眞武湯은 成無己가 「注解傷寒論」에서 濕淫과 寒淫이 盛할 때 쓰는 것으로 설명한 처방이다.

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陽明之勝의 추가적인 用法에서 辛味로 瀉하는 대신에 苦味로 泄하라고 하였는데 佐藥에서 이미 瀉法으로 辛味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泄之하는 苦味로 대체한 것이다.

三陰三陽의 復에서는 君藥에서 少陰, 少陽을 제외하고는 모두 五味瀉法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력이 勝氣에 비하여 강하지 않아서 克을 받는 五臟의 本味를 君藥으로 쓰지 않는 것이다. 少陰, 少陽에서는 火熱이 邪氣로 轉化되기 쉬우므로 甘味 대신 기운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鹹味를 쓰고 있다. 또한, 뒷부분에서는 瀉法에 대한 설명과 함께 五臟所苦에 쓰는 運用법과 일부의 補法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復氣는 勝에 병행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그 세력이 크지 않으며 그 양상도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뒷부분의 치료법에서는 少陰, 少陽의 復에 辛味를 추가하여 發之하여 邪氣를 몰아내는 것이 특이한데 辛味로 發汗시켜 表熱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四氣 중에서 少陽之復에서 冷味를 쓰고 있는데 火淫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少陰之復에 비하여 완만히 치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③ 六氣의 反勝에 대한 氣味 運用

여기서 反勝이라 하는 것은 司天이나 在泉의 氣가 다스릴 때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司天, 在泉의 氣에 대항하여 寒熱이 반대인 기운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에 司天, 在泉의 氣가 變化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원인이 있으므로 치료도 원래의 司天, 在泉의 氣를 다스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¹³⁴⁾. 단, 四氣 運用에 있어서는 反

勝한 氣에 반대인 氣를 사용하여 치료한다¹³⁵⁾. 反勝은 勝復 관계에 비하여 세력이 강하지 않으므로 큰 변화 없이 五臟補瀉法만을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司天反勝>

風化於天, 清反勝之, 治以酸溫, 佐以甘苦¹³⁶⁾.

熱化於天, 寒反勝之, 治以甘溫, 佐以苦酸¹³⁷⁾.

濕化於天, 熱反勝之, 治以苦寒, 佐以苦酸¹³⁸⁾.

火化於天, 寒反勝之, 治以甘熱, 佐以苦辛¹³⁹⁾.

燥化於天, 熱反勝之, 治以辛寒, 佐以苦甘¹⁴⁰⁾.

135) 五味 運用法과 四氣 運用法이 치료 대상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136) 吳崑은 “酸能爲風化之嚮導, 溫能平清氣之反勝, 甘以和之, 苦以下之.”라고 하여 酸味가 風化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酸溫은 芍藥과 炙甘草를 合用하였고, 甘味는 白茯苓, 苦味는 白朮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附子湯을 들었다.

137) 吳崑은 “甘溫能勝寒, 苦爲反佐, 酸以養陰, 辛以散寒.”이라 하여 甘溫한 味로 寒氣의 反勝을 물리치는 것으로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甘溫은 人蔘, 甘草, 苦味는 白朮, 辛味는 乾薑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理中丸을 들었다.

138) 張介賓은 “苦寒所以祛熱, 苦酸所以斂熱.”이라 하였고, 吳崑은 “苦寒能祛熱, 熱勝則亡陰液, 故佐以苦酸.”이라 하여 모두 苦寒한 味로 熱氣의 反勝을 물리친다고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苦寒은 茵陳, 佐藥의 苦味는 大黃, 梔子, 寒味는 芍藥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茵陳蒿湯을 들었다.

139) 각 注家들은 火化於天과 火司于地를 각각 熱化於天, 熱司于地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140) 張介賓은 “辛寒所以散熱, 苦甘所以瀉火.”라 하였고, 吳崑은 “辛能散熱, 寒能勝熱, 苦能下熱, 甘能緩熱.”이라 하여 君藥에서 辛寒의 味로써 熱氣의 反勝을 물리치는 것으로 보았다. 『東

134) 대부분의 注家들은 反勝한 氣를 다스리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寒化於天，熱反勝之，治以鹹冷，佐以苦辛¹⁴¹⁾。

<在泉反勝>

風司于地，清反勝之，治以酸溫，佐以苦甘，以辛平之¹⁴²⁾¹⁴³⁾。

熱司于地，寒反勝之，治以甘熱，佐以苦辛，以鹹平之¹⁴⁴⁾。

濕司于地，熱反勝之，治以苦冷，佐以鹹甘，以苦平之¹⁴⁵⁾。

火司于地，寒反勝之，治以甘熱，佐以苦辛，以鹹平之¹⁴⁶⁾。

燥司于地，熱反勝之，治以平寒，佐以苦甘，以酸平之，以和爲利¹⁴⁷⁾。

寒司于地，熱反勝之，治以鹹冷，佐以苦辛，以苦平之¹⁴⁸⁾。

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辛寒은 石膏, 苦味는 知母, 甘味는 甘草, 粳米를 들었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白虎湯을 들었다.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에서는 白虎湯을 熱淫의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 141) 吳崑은 “治以鹹冷，所以假其祛熱，苦以下熱，辛以散熱。”이라 하여 鹹冷의 味로 熱氣의 反勝을 물리치는 것으로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鹹冷은 芒硝, 苦味는 大黃, 枳實, 辛味는 厚朴을 들었다. 方劑로는 「傷寒論」의 大承氣湯을 들었는데 成無己는 「注解傷寒論」에서 大便燥結을 치료하는 燥淫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 142) 張介賓은 “當治以酸溫，酸求木之同氣，溫以制清也。佐以苦甘，苦以溫金，甘以緩肝之急也。以辛平之，木之正味，其補以辛，金之正味，其瀉以辛也。”라 하였고, 吳崑은 “治以酸溫者，酸爲風木之響導，溫抑清氣之反勝也。苦勝燥而甘緩之，故佐以苦甘，辛能溫清，又能補木，故以辛平之。”라 하여 風化於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酸味를 木氣의 本味로 보고 있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酸溫은 芍藥과 乾薑을 합용하고, 苦味는 白朮, 甘味는 甘草, 辛味는 乾薑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芍藥甘草附子湯을 들었다.
- 143) 王冰은 “此六氣方治，與前淫勝法殊貫。云治者，瀉客邪之勝氣也。云佐者，皆所利所宜也。云平者，補已弱之正氣也。”라고 하여 治, 佐, 平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144) 張介賓은 “當治以甘熱，甘能勝水，熱能制寒也。佐以苦辛，寒得苦而溫，得辛而散也。以鹹平之，火之正味，其補以鹹，水之正味，其瀉以鹹也。”라 하여 土克水의 원리에 의하여 甘味를 君藥으로 쓴다고 하였고, 吳崑은 “甘與熱皆陽也。治以甘熱者，扶熱而抑寒也。佐以苦辛者，寒得苦而投，遇辛而散也。寒在外，熱在內，佛熱作實，故以鹹平之。”라 하여 甘味를 陽味로 보아 熱氣를 북돋고 寒氣를 억누른다고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甘熱은 茯苓과 桂枝를 합용하고, 苦味는 白朮, 辛味는 桂枝, 鹹味는 澤瀉를 들었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五苓散을 예로 들었다.

- 145) 張介賓은 “當治以苦冷，抑火邪也。佐以鹹甘，鹹寒制熱，甘濕補土也。以苦平之，即苦冷之義。”라 하였고, 吳崑은 “苦冷，陰也。治以苦冷者，扶濕而抑熱也。佐以鹹甘者，熱得甘而緩，遇鹹而栗也。擾有未解者，則以苦平之。”라 하여 모두 苦冷의 陰味를 사용하여 熱氣의 反勝을 억누른다고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苦冷은 茵陳, 鹹味는 澤瀉, 甘味는 豬苓, 茯苓, 以苦平之의 苦味는 白朮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茵陳五苓散을 들었다.
- 146)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甘熱은 甘草, 乾薑을 합용하고, 苦味는 白朮, 辛味는 桂枝, 乾薑, 鹹味는 牡蠣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傷寒論」의 柴胡桂枝乾薑湯을 예로 들었다. 成無己는 「注解傷寒論」에서 柴胡桂枝乾薑湯을 熱淫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 147) 張介賓은 “治以平寒，以金司於地，氣本肅殺，若用大寒，必助其慘，故但宜平寒，抑其熱耳。佐以苦甘，所以瀉火也。以酸平之，金之正味，其補以酸也。以和爲利，戒過用也。即平寒之意。”라 하였고, 吳崑은 “治以平寒者，燥爲慘殺之氣，不欲扶之，但以平寒抑熱耳。佐以苦甘者，苦能瀉實熱，甘能瀉虛熱也。熱與燥能消人五液，故以辛平之，以和爲利者，戒過甚也。”라고 하였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에서 君藥의 平寒을 辛涼으로 보아 薄荷와 金銀花를 합용하고, 苦味는 連翹, 甘味는 甘草, 竹葉, 以辛平之의 辛味는 荊芥를 들었으며, 方劑로는 溫病 처방인 連翹散과 「傷寒論」의 麻黃杏仁甘草石膏湯을 예로 들었다.
- 148) 張介賓은 “治以鹹冷，抑火邪也。佐以苦辛，甘瀉火而辛能散也。以苦平之，水之正味，其補以苦也。”라고 하여 鹹味가 바로 火邪를 억누른다고 하였고, 吳崑은 “治以鹹冷者，扶寒氣之不足，抑熱氣之有餘也。佐以苦辛者，甘以調寒熱，辛以行鹹冷也。以苦平之，調其未盡之邪也。”라 하여 鹹味가 寒氣의 不足을 보충한다

司天의 경우에는 在泉보다는 기세가 강하다고 보아 瀉法만을 사용하며 在泉의 경우에는 瀉法과 함께 補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¹⁴⁹⁾. 瀉法에서는 예외적으로 在泉의 燥氣에 대하여 辛味 대신 平味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司天之位에 清氣가 오면 재앙이므로 辛味를 써서 發散시켜야 하는데 在泉之位에 오는 清氣는 비교적 정상적이므로 發散法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補法에서는 예외적으로 在泉의 濕氣에 대하여 甘味 대신에 苦味를 사용하고 있는데 在泉之位에 濕邪가 성할 때 燥濕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四氣를 살펴보면 反勝의 氣가 寒熱의 성질을 띠고 나타나므로¹⁵⁰⁾ 그에 반하는 氣를 사용한다. 단, 熱化於天에서는 溫味를 쓰고 熱司于地에서는 熱味를 쓰는 이유는 司天, 在泉의 시기에 따라 三之氣에는 陽氣가 성하므로 熱味를 피한 것이고 終之氣에는 陰氣가 성하므로 熱味를 사용한 것이다. 寒氣, 濕氣가 在泉으로 올 때는 寒味를 피하여 冷味를 쓰며, 司天에 熱氣가 反勝했을 때는 계절상 寒味를 쓰는데 寒氣가 司天之氣로 있을 때는 그 도움을 받으므로 그냥 冷味를 사용한다.

(6) 기타 五味 運用

司天, 在泉에 따라서 五味를 운용하는 방법은 주로 「六元正紀大論」과 「至眞要大論」

고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鹹冷은 犀角, 甘味는 生地黃, 辛味는 牧丹皮, 苦味는 芍藥을 들었으며 方劑로는 「千金方」의 犀角地黃湯과 「傷寒論」의 柴胡加芒硝湯을 예로 들었다.

149) 補瀉法을 함께 사용할 경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치료 방향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세력이 강한 기운을 다스라기가 어려워진다.

150) 風氣에 대하여 清氣가 反勝하는데 비해 濕氣와 燥氣에서 溫氣보다 熱氣가 反勝하는 것은 濕氣와 燥氣 모두 熱邪로 轉化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에 기술되어 있으나, 「五常政大論」에서 일부 在泉의 경우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少陽在泉, 寒毒不生, 其味辛, 其治苦酸, 其穀蒼丹.

陽明在泉, 濕毒不生, 其味酸, 其氣濕, 其治辛苦甘¹⁵¹⁾, 其穀丹素.

太陽在泉, 熱毒不生, 其味苦, 其治淡¹⁵²⁾鹹, 其穀黃今秬.

厥陰在泉, 清毒不生, 其味甘, 其治酸苦, 其穀蒼赤, 其氣專, 其味正.

少陰在泉, 寒毒不生, 其味辛, 其治辛苦甘, 其穀白丹.

太陰在泉, 燥毒不生, 其味鹹, 其氣熱, 其治甘鹹, 其穀黃今秬. 化溼則鹹守, 氣專則辛化而俱治.

여기서 在泉만을 말한 이유는 五味는 주로 地氣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司天이 天氣를 주관하고 在泉은 地氣를 주관하는데 地氣에 의하여 萬物이 化生하고 萬物이 化生할 때 五味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에는 당연히 本味를 따르게 된다. 우선 毒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在泉之氣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고 其味의 경우에는 자신이 克하는 味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억제를 받는 氣가 오히려 상충하여 五味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其治에 있어서는 司天在泉의 味를 고르게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少陰, 陽明의 경우에 甘味가 들어간 것은 서로 相克이며 陰陽이 다르기 때문에 완화시키려는 목

151) 高世栻은 “辛, 金味也. 苦, 火味也 甘, 土味也. 陽明在泉, 秉金土之氣, 而上承少陰之火熱, 故其治辛苦甘.”이라 하였다.

152) 淡味와 甘味는 같은 성질의 味로서 뚜렷이 분리되지 않는다. 太陽在泉일 때는 太陰濕土가 司天이므로 濕邪가 일어나기 쉬워서 淡味를 써서 滲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으로 보인다.

(7) 君藥과 佐藥의 組合

佐藥은 君藥의 작용을 도우면서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한편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용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五臟補瀉法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 「至眞要大論」에 나오는 君藥과 佐藥의 조합을 六氣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風木

風淫을 다스릴 때에 君藥으로 辛涼한 약을 쓰며 佐藥으로는 苦味와 甘味를 쓴다. 辛味는 기운을 발산시켜 表에 있는 風邪를 밖으로 날리는 작용을 하는데 風은 陽邪이므로 이미 내부의 기운을 動하게 만든 상태이다. 이때에 辛味만을 쓰면 氣가 흩어져서 속이 허해지므로 오히려 안으로는 氣를 수렴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苦味를 써서 氣를 응축시키는 것이며 氣를 수렴한다는 의미에서는 酸味를 쓸 수도 있다¹⁵³. 君藥의 氣가 涼한 것도 내부의 氣를 추스리고 혹 발생하는 熱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甘味는 風邪를 받아서 肝이 급해지는 것을 緩和시키기도 하지만 내부에 허해진 陽氣를 보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厥陰之勝의 경우 土의 本味인 甘味를 君藥으로 하면서 뒤에는 酸味로 瀉法을 쓰고 있는데 佐藥으로는 苦辛한 味를 쓰고 있다¹⁵⁴. 앞서 風淫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氣를 응축시키는 역할을 하며 辛味는 肝氣를 발산

시키는 補法으로 사용된 것이다. 厥陰之復의 경우는 君藥에서 瀉法인 酸味를 쓰고 있는데¹⁵⁵ 佐藥으로는 甘辛한 味를 쓰라고 하였다. 역시 甘味의 緩化 작용과 辛味의 發散 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五味瀉法은 反勝의 경우에도 君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에 역시 佐藥으로 甘味와 辛味를 사용하고 있다.

② 君火, 相火

熱淫, 火淫의 邪氣를 다스릴 때에 鹹味를 君藥으로 쓰는데, 佐藥으로는 苦甘의 味를 주로 쓰며¹⁵⁶ 苦辛의 味를 쓰는 경우도 일부 있다¹⁵⁷. 원래 熱, 火가 盛할 때에 쓸 수 있는 약으로는 「藏氣法時論」에 근거하여 볼 때 酸味, 鹹味, 甘味를 들 수 있는데 氣를 강하게 응축시켜 열을 내리는 목적으로 苦味가 酸味 대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在泉 火淫于內에서 辛味가 佐藥으로 쓰인 것은 辛味로 發散시켜 熱을 내리는 방법이니, 少陰之復과 少陽之復의 경우에도 佐藥으로 辛苦發之한다고 하여 辛味를 사용하고 있다¹⁵⁸. 佐藥으로 쓰인 甘味도 瀉法으로서 火氣를 누그러뜨리는

153) 司天 風淫所勝의 경우에 以酸瀉之하라의 의미도 佐藥의 苦味와 같이 氣를 收斂하는데 있다.

154) 張介賓은 “佐以苦辛, 散風熱也.”라 하여 辛味는 風邪를 散之하고 苦味는 熱을 내리는 것으로 보았다.

155) 張介賓은 “佐以甘辛, 木盛土衰, 以甘補土, 辛從金化, 以辛制木也.”라 하여 五行 相克으로 설명하였고, 吳崑은 “佐以甘辛, 順其升達之體也.”라 하여 甘辛이 陽味로서 氣를 발산시켜 肝氣를 돕는 것으로 보았다.

156) 在泉 熱淫于內에서 張介賓은 “佐以甘苦, 甘勝鹹, 所以防鹹之過也. 苦能泄, 所以去熱之實也.”라 하였고, 吳崑은 “必甘而苦者, 防鹹之過, 而又以瀉熱氣作傷也.”라고 하여 甘味가 土克水의 원리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張介賓은 司天 火淫所勝에서는 “苦能瀉火之實, 甘能緩火之急, 故佐以苦甘.”이라 하여 火氣를 緩化시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157) 在泉 火淫于內의 경우에는 佐以苦辛이라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張介賓은 “苦能泄火, 辛能散火, 故用以爲佐.”라 하여 苦味, 辛味가 모두 火氣를 몰아내는 것으로 보았다.

158) 張介賓은 少陰之復에서 “佐以苦辛, 發散其熱也.”라 하였고, 吳崑은 少陽之復에서 “佐以苦辛, 苦能降火, 辛能散火也.”라 하여 모두 熱을 發散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작용을 하나 苦味, 辛味보다는 祛邪의 의미가 약하며 오히려 내부에서 虛해진 陽氣를 보충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

勝復의 경우를 살펴보면, 少陰之勝과 少陽之勝에서 佐藥으로 각각 苦鹹, 甘鹹을 사용하고 있다¹⁵⁹⁾. 鹹味를 佐藥으로 쓴 것은 君藥에서 肺의 本味인 辛味를 君藥으로 이미 쓰고 있으므로 熱을 내리기 위한 鹹味를 다시 佐藥으로 사용한 것이다. 甘味와 苦味는 각각 氣를 누그러뜨리며 응축시켜 火氣의 熾盛을 억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復氣의 경우는 熱淫, 火淫에서 설명한데로 역시 苦味와 辛味를 써서 邪氣를 發之하고 있다.

反勝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熱化於天, 火化於天의 경우 각각 苦酸辛, 苦辛의 味를 사용하고 있는데¹⁶⁰⁾ 酸味는 늘어진 心氣를 收斂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¹⁶¹⁾. 熱司于地와 火司于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苦味와 辛味를 佐藥으로 쓰고 있다.

③ 濕土

太陰濕土의 경우에는 五臟補法을 쓴다하더라도 甘味를 君藥으로 쓰는 경우가 없으며 補瀉法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苦味를

君藥으로 쓰고 있다. 濕邪의 發揚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¹⁶²⁾. 濕淫의 경우 佐藥으로는 司天에는 酸辛¹⁶³⁾, 在泉에는 酸淡¹⁶⁴⁾을 사용하고 있다. 酸味를 쓰는 이유는 君藥으로 溫熱한 약으로 사용할 때 부작용으로 熱이 발생하면 濕邪가 濕熱의 邪氣로 轉化될 수 있으므로 濕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熱을 내리는 鹹味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司天의 경우에는 濕邪가 表에 있으므로 辛味로 散之하고 在泉의 경우에는 濕邪가 裏에 있으므로 淡味를 써서 아래로 滲泄시키는 것이다. 濕熱의 경우에는 君藥에서 熱藥을 피하며 佐藥에서 甘味를 써서 脾를 補하고 있다.

太陰之勝의 경우 佐藥으로 辛甘의 味를 쓰고 있는데 君藥에서 이미 鹹味를 쓰고 있으므로 佐藥에서는 酸味를 쓰지 않고 오히려 陽氣를 發散시켜 燥濕을 돕는 味를 사용하고 있다¹⁶⁵⁾. 또한 뒷부분에서 苦味를 써서 瀉하리하여 燥濕의 작용을 더하였다. 太陰之復의 경우에는 君藥으로 苦熱한 味를 쓰고 있으므로 濕淫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佐藥으로 酸辛의 味를 쓰고 있다¹⁶⁶⁾.

159) 張介賓은 少陰之勝에서 “佐以苦鹹, 泄熱也.”라 하였고, 吳崑은 少陽之勝에서 “佐以甘鹹者, 甘緩火氣之急速, 鹹熯火氣之燥實也.”라 하였다.

160) 張介賓은 “佐以苦辛, 寒得苦而溫, 得辛而散也.”라 하여 寒氣의 反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吳崑은 “苦爲反佐, 辛能散寒.”라 하여 辛味는 寒氣의 反勝을 억제하나, 苦味는 君藥에 대한 反佐法으로 보았다. 모두 反勝의 寒氣를 없애기 위하여 氣味를 運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1) 酸味에 대하여 張介賓도 “蓋火爲水勝則心苦緩, 故宜食酸以收之.”라 하여 「藏氣法時論」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또한, 熱化於天에서만 酸味를 추가한 것은 熱氣가 火氣보다 조금 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君藥에서도 熱化於天에서 熱藥을 피하고 溫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62) 六氣가 四氣로 발현될 때 熱邪, 火邪의 경우에는 대부분 鹹味 또는 苦味를 써서 강력히 熱을 내리며, 濕邪의 경우에는 대부분 苦味를 써서 燥濕시키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六氣가 病因으로 작용할 때 陽邪는 火熱로, 陰邪는 濕으로 대표됨을 나타내고 있다.

163) 吳崑은 “木能制土, 故佐以酸, 酸而辛則, 非斂聚之酸矣, 故宜佐之.”라 하였고, 張介賓은 “蓋辛勝酸, 所以防酸之過也.”라 하여 酸味와 辛味の 관계를 설명하였다.

164) 吳崑은 “酸從木化, 制土者也. 故佐以酸淡, 然必酸淡者, 淡能利竅故也. 使酸而非淡, 則味厚滋濕, 非所宜矣.”라 하여 酸味の 지나친 收斂작용이 오히려 濕을 정체시킬 수 있으므로 淡味를 함께 써야 한다고 하였다.

165) 張介賓은 “濕勝則土寒, 佐以辛甘, 辛能溫土, 甘能補土也.”라고 설명하였다.

166) 張介賓은 “佐以酸辛, 酸能制土, 辛能溫寒也.”라 하여 濕淫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五行 相

反勝의 경우 司天과 在泉에서 각각 苦酸¹⁶⁷⁾, 甘鹹¹⁶⁸⁾의 味를 사용하고 있다. 모두 熱氣가 反勝한 것이므로 濕熱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酸味와 鹹味를 쓰고 있다. 단, 司天에서는 表熱을 내리기 위하여 酸味를 쓰고 在泉에서는 裏熱을 내리기 위하여 鹹味를 쓰며, 司天에서는 濕邪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므로 苦味로써 燥濕하고, 在泉에서는 陽氣가 虛해지기 쉬운 계절이므로 甘味를 써서 脾를 補하면서 陽氣를 보충하려는 것이다.

④ 燥金

燥淫의 경우 君藥으로 苦味를 써서 下之하는 것이 급한데, 佐藥으로는 司天에서 酸辛¹⁶⁹⁾을, 在泉에서 甘辛¹⁷⁰⁾을 쓰고 있다. 辛味는 苦味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氣가 응축되는 것을 막는 瀉法으로 쓰이고 있으며, 酸味는 補法으로서 司天의 계절에서 表氣를 收斂하며 甘味는 在泉의 계절에서 陽氣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甘味는 지나치게 氣가 급해지는 것을 막고 각 藥물을 調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¹⁷¹⁾.

克으로 설명하였다.

- 167) 張介賓은 “苦酸所以斂熱.”이라 하였고, 吳崑은 “熱勝則亡陰液, 故佐以苦酸.”이라 하여 酸味로써 熱을 내리고 津液을 보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 168) 張介賓은 “佐以鹹甘, 鹹寒制熱, 甘濕補土也.”라 하였고, 吳崑은 “佐以鹹甘者, 熱得甘而緩, 遇鹹而爽也.”라 하였다.
- 169) 張介賓은 “考之藏氣法時論曰, 肺苦氣上逆, 急食苦以瀉之, 用酸補之, 辛瀉之, 正此之辨.”이라 하여 「藏氣法時論」의 補瀉법으로 酸味와 辛味の 관계를 설명하였다. 張介賓이 다른 부분에서 佐藥을 설명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 170) 張介賓은 “佐以甘辛, 木受金傷, 以甘緩之, 金之正味, 以辛瀉之也.”라 하였다.
- 171) 燥淫이나 陽明의 勝復, 反勝 등에서 모두 佐藥으로 甘味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氣를 下之시키려 할 때 지나치게 急해지는 것을 완화시키거나 또한, 肝氣가 急해지는 것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勝復의 경우 모두 君藥으로 辛味를 쓰고 있는데, 陽明之勝에서는 金克木에 의하여 木氣가 傷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木의 本味인 辛味를 쓴 것이며 陽明之復에서는 五臟 瀉法으로서 辛味를 쓴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佐藥으로는 각각 辛甘¹⁷²⁾과 苦甘¹⁷³⁾을 쓰고 있는데, 陽明之勝에서는 君藥에서 氣를 收斂시키는 酸味를 쓰고 있어서 五臟補法에 가까우므로 이에 대하여 辛味를 다시 佐藥으로 써서 瀉하고 있으며¹⁷⁴⁾, 陽明之復에서는 君藥에서 五臟 瀉法으로 이미 辛味를 쓰고 있으므로 佐藥에서는 辛味보다는 苦味를 써서 降氣시키고 있다. 甘味는 공통적으로 氣운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反勝에서는 佐藥으로 司天, 在泉 모두 苦甘을 쓰고 있는데¹⁷⁵⁾ 陽明之復에서 苦味, 甘味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⑤ 寒水

寒淫의 경우 우선 君藥을 살펴보면 司天 寒淫所勝에서는 辛味를 쓰며 在泉 寒淫于內에서는 甘味를 쓰고 있다. 辛味는 潤之하여 表部의 氣를 소통시킴으로써 津液을 생성시키고 寒邪를 몰아내는 작용을 하는데 司天의 계절에는 邪氣가 表에 있으므로 辛味를 쓰는 것이다. 甘味는 在泉의 계절에 寒邪가 들어올 때 裏에서부터 陽氣가 감소되므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다¹⁷⁶⁾. 佐藥을 보면 司天, 在泉

- 172) 張介賓은 “佐以辛甘, 瀉肺補肝也.”라 하여 辛味로 肺를 瀉하고 甘味로 緩急하여 肝을 補한다고 설명하였다.
- 173) 張介賓은 “佐以苦甘, 苦從火化, 以苦制金, 木被金傷, 以甘緩急也.”라 하여 五行 相克 원리로 苦味를 써서 金氣를 억제하고 甘味로 緩急하여 木氣를 補한다고 하였다.
- 174) 辛味の 瀉法을 佐藥에서 이미 쓰고 있으므로 뒷 부분에 따라오는 五臟瀉法에서는 辛味가 빠지고 苦味를 써서 泄하고 있는 것이다.
- 175) 張介賓은 “佐以苦甘, 所以瀉火也.”라 하였고, 吳崑은 “苦能下熱, 甘能瀉熱.”, “佐以苦甘者, 苦能瀉實熱, 甘能瀉虛熱也.”라 하여 모두 熱을 내리는 것으로 보았다.

에 각각 甘苦¹⁷⁷⁾와 苦辛¹⁷⁸⁾을 쓰고 있는데 君藥의 辛味, 甘味와 서로 보충해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苦味는 燥之하여 발생 가능한 濕邪를 없애는 작용¹⁷⁹⁾과 결합하여 堅之하는 補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勝復의 경우를 보면 太陽之勝에서는 辛酸¹⁸⁰⁾을, 太陽之復에서는 甘辛¹⁸¹⁾을 각각 佐藥으로 사용하고 있다. 太陽之勝에서 水克火에 의하여 火氣가 억제될 때 원래는 本味인 苦味를 君藥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火氣가 그 세력이 약화된다기보다는 氣가急해지면서 굳어지므로 君藥으로 苦味보다는 甘味를 써서 緩和시키면서 陽氣를 보충한다. 太陽之復에서 佐藥으로 甘味를 쓴 것도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佐藥으로 酸味를 써서 心氣의 보충을 돕게 된다. 또한 勝復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辛味는 寒氣를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다.

反勝의 경우에 司天, 在泉에서 佐藥으로 각각 苦辛¹⁸²⁾, 甘辛¹⁸³⁾을 쓰고 있는데, 苦味는 堅之하는 補法으로, 辛味는 君藥의 鹹冷한 味를 견제하는 反佐法으로, 甘味는 在泉의 계절에 陽氣를 보충하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76) 「六元正紀大論」의 六十甲子 각 해의 氣味運用에서 太陽司天에는 苦味를 써서 燥之시키나 太陽在泉에서는 甘味를 써서 안으로 陽氣를 보충하여 寒邪를 몰아내게 하였다.

177) 吳崑은 “佐以苦甘者, 苦以濟辛熱, 甘以和辛熱也.”라 하였다.

178) 吳崑은 “苦而辛, 亦熱品也, 故佐以苦辛.”이라 苦辛의 味가 寒邪를 몰아내는 것으로 보았다.

179) 太陽之政에서 苦味로 燥之한 것과 같다.

180) 吳崑은 “佐之以辛, 則甘不滯, 佐之以酸, 則熱不燥.”라고 하였다.

181) 張介賓은 “佐以甘辛, 甘從土化, 用以制水, 而辛能散寒也.”라고 하였고, 吳崑은 “佐以甘辛, 用其散也.”라 하였다.

182) 吳崑은 “苦以下熱, 辛以散熱.”이라 하였다.

183) 張介賓은 “佐以甘辛, 甘瀉火而辛能散也.”라고 하였고, 吳崑은 “佐以甘辛者, 甘以調寒熱, 辛以行鹹冷也.”라 하였다.

3. 傷寒論에서의 氣味 運用

1) 六淫 處方에 대한 考察

『注解傷寒論』을 쓴 成無己는 주석에서 六淫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成無己가 분류한 처방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風淫

『內經·運氣篇』에서 風淫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五味補法으로는 辛涼한 味를 君藥으로 사용하며 佐藥으로는 苦味, 甘味 등을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以甘緩之, 以酸瀉之, 以辛散之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成無己는 『傷寒論』 중에서 桂枝湯을 대표적인 風淫의 藥으로 해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桂枝湯¹⁸⁴⁾

桂枝(辛熱)¹⁸⁵⁾, 芍藥(酸微寒), 甘草(甘平), 生薑(辛溫), 大棗(甘溫).

內經曰, 辛甘發散爲陽, 桂枝湯, 辛甘之劑也, 所以發散風邪. 內經曰, 風淫所勝, 平以辛佐以苦甘, 以甘緩之, 以酸收之, 是以桂枝爲主, 芍藥甘草爲佐也. 內經曰, 風淫於內, 以甘緩之, 以辛散之, 是以生薑大棗爲使也.

成無己의 설명을 살펴보면, 우선 桂枝湯을 發散의 작용을 하는 辛甘의 方劑로 규정하고

184)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22

185) 팔호 안의 氣味는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에 기재된 것을 적은 것으로 현대 本草學에서 규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음. 본 논문에서는 현대 本草學에서 정한 각 약물에 대한 氣味를 『本草學』(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서울, 永林社, 1991)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기준하였다.

있다. 여기서 發散이란 表部로 들어온 風邪를 汗法을 사용하여 밖으로 흩어버린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또한 『內經』의 司天 風淫所勝의 條文을 인용하여 辛味인 桂枝가 君藥에 해당하고, 甘味로서 완화시키는 甘草와 酸味로서 수렴시키는 芍藥이 佐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在泉 風淫於內的 條文을 들어 甘味와 辛味인 大棗와 生薑을 使藥으로 설명하고 있다.

『內經』의 五味 운용과 차이점은 君藥으로 辛涼한 약을 쓰는데 여기서는 辛熱¹⁸⁶⁾한 桂枝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桂枝가 辛熱하기는 하나 佐藥으로 쓰이고 있는 芍藥의 氣味가 酸微寒하므로 君藥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여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⁷⁾. 佐藥을 살펴보면 『內經』에서 苦味와 甘味를 쓰라고 하였는데 苦味는 氣를 응축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酸味로써 수렴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風淫所勝 條文의 뒷부분에 酸味로써 수렴시킨다고 설명하였는데 桂枝湯에서는 芍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傷寒論에서는 芍藥의 氣味를 酸微寒이라고 하였으나 현재의 本草學에서는 苦味도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芍藥이 酸苦한 약으로서 佐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內經』에서는 佐藥으로 甘味를 쓰라고 하였는데 甘草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甘味는 肝氣가 급해지는 것을 풀어

주는 작용을 주로 하는데 甘草는 氣味가 甘平하여 완화 작용을 하게 된다. 使藥으로 쓰이는 大棗도 甘味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甘草의 완화 작용보다는 溫氣를 가지면서 내부의 陽氣를 보충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生薑은 桂枝와 마찬가지로 熱性으로 邪氣를 散之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大棗와 함께 내부의 陽氣를 보충하는 작용을 겸하고 있다.

桂枝湯證의 기전을 살펴보면, 陽邪인 風邪의 침입을 받아서 陽氣가 動한 상태에서 氣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表部는 허해져 출입의 조절이 제대로 안되고, 안으로는 氣가 급해짐으로 인하여 소통이 잘 되지 못하고 鬱滯가 되어 熱도 발생하고 津液도 생성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五味 補瀉法에 의하여 辛味, 酸味, 甘味 등을 쓰게 되는데 辛味는 氣의 발산을 도와 表를 치료하고 酸味는 안으로 氣를 수렴시켜 陰氣를 회복하며 甘味는 내부의 氣鬱을 완화시키면서 陽氣의 회복을 돕게 되는 것이다. 氣의 발산과 수렴 중에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辛味를 君藥으로 쓰기도 하고 酸味를 君藥으로 쓰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酸味를 주로 쓰는 처방이라면 그것은 表證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병이 안으로 轉變되어 들어온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成無己는 주석에서 辛味를 君藥으로 쓰는 약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으나 芍藥甘草湯¹⁸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芍藥甘草湯은 桂枝湯證이 지속되다가 陽氣가 지나치게 발산되어 안으로는 陽氣가 허해지고 또한 熱로 인하여 津液이 부족해져 四肢가 뒤틀리게 되는 증상에 쓰는데, 이때에 辛味를 君藥으로 하는 桂枝湯을 쓰게 되면 厥證으로 빠지게 된다. 이때에 우선 厥證이 급

186) 현대의 本草學에서는 桂枝의 氣味는 辛甘溫으로 정하고 있다.

187) 「至眞要大論」에서 君藥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四氣와 五味가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약물을 정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風淫에 辛涼한 약을 君藥으로 사용하는데 發散力이 강한 辛味の 약물과 熱을 내리는 寒涼한 성질의 약물을 合用할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四氣와 五味の 치료방향이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六氣 反勝에 대한 氣味 運用에서 五味는 六氣를 瀉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四氣는 反勝의 氣를 다스리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188)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33 ; 芍藥(酸微寒), 甘草(甘平)로 구성되어 있다.

하므로 寒淫을 치료하는 甘草乾薑湯¹⁸⁹⁾을 써서 厥證을 없애고, 이어서 芍藥甘草湯을 써서 밖으로 퍼진 氣를 수렴시키는 치료를 하게 된다.

桂枝湯이 辛涼한 약 대신 辛熱한 桂枝를 君藥으로 쓰고 있으므로 桂枝湯을 寒淫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배속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內經』의 寒淫 條文을 보면 佐藥으로 陽味인 甘味, 苦味, 辛味를 쓰고 있으나 酸味를 쓰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佐藥과의 배합으로 볼 때는 風淫의 처방으로 보아야 한다. 단, 芍藥이 현대 本草學의 氣味論을 기준으로 약간의 苦味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¹⁹⁰⁾ 寒淫 치료의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다.

(2) 寒淫

寒淫의 경우 『內經』에서는 辛熱, 甘熱한 味를 君藥으로 사용하고 佐藥으로는 甘味, 苦味, 辛味를 쓰며 추가적으로 以鹹瀉之, 以辛潤之, 以苦堅之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成無己는 『傷寒論』 주석에서 麻黃湯, 四逆湯, 乾薑附子湯, 吳茱萸湯, 麻黃附子細辛湯 등의 여러 처방을 寒淫을 다스리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麻黃湯¹⁹¹⁾

麻黃(甘溫), 桂枝(辛熱), 甘草(甘平), 杏仁(辛溫).

內經曰, 寒淫於內, 治以甘熱, 佐以苦辛, 麻黃甘草開肌發汗, 桂枝杏仁散寒下氣.

189)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33 ; 甘草(甘平), 乾薑(辛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成無己는 辛甘의 味를 써서 寒邪를 몰아내고 陽氣를 회복시키는 처방이라 설명하였다.

190) 현대 本草學에서는 芍藥은 苦酸微寒하다고 하였다.

191)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40

成無己는 주석에서 在泉 寒淫于內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甘味를 가지고 있는 麻黃¹⁹²⁾과 甘草를 合用하여 君藥으로 보고 苦辛한 杏仁¹⁹³⁾과 桂枝를 佐藥으로 본 것이다. 司天 寒淫所勝의 경우에는 辛熱한 味로 君藥을 삼고 佐藥으로 甘味, 苦味를 쓰도록 되어 있다. 麻黃의 味를 甘味가 아니라 辛味로 본다면 君臣佐使 순서 상으로는 司天 寒淫所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司天은 寒淫이 쉽게 성하는 때라고 할 수 없으므로 在泉의 경우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麻黃湯證은 寒邪가 침입하여 表部가 얼어붙는 상황인데 아직 邪氣가 안으로 깊게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五臟 중에서는 가장 表에 위치한 肺가 邪氣와 싸우고 있는 양상이므로 氣가 表로 몰림으로 인하여 긴장되어 기침을 하고 上氣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麻黃, 甘草를 사용하여 表를 열고 桂枝를 사용하여 虛해진 陽氣를 회복시키며 杏仁을 써서 氣가 逆上한 것을 下之시키게 한다¹⁹⁴⁾.

寒淫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苦味, 鹹味¹⁹⁵⁾ 등의 陰味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寒邪만을 몰아내기 위한 처방으로는 四逆湯, 乾薑附子湯 등을 들 수 있다. 成無己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四逆湯¹⁹⁶⁾

甘草(甘平), 乾薑(辛熱), 附子(辛大熱).

192) 현대 本草學에서는 麻黃의 氣味를 辛微苦溫으로 정하고 있다.

193) 현대 本草學에서는 杏仁의 氣味를 苦微辛微溫으로 정하고 있다.

194) 『至眞要大論』의 寒淫에서는 苦味를 補法の 堅之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杏仁의 苦味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195) 司天, 在泉의 寒淫의 경우에 鹹味를 써서 瀉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6)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34

內經曰, 寒淫於內, 治以甘熱, 又曰, 寒淫所勝, 平以辛熱, 甘草乾附, 相合爲甘溫大熱之劑, 乃可發散陰陽之氣.

乾薑附子湯¹⁹⁷⁾

乾薑(辛熱), 附子(辛熱).

內經曰, 寒淫所勝, 平以辛熱, 虛寒太甚, 是以辛熱劑勝之也.

두 처방 모두 附子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附子は 辛甘하면서¹⁹⁸⁾ 少陰인 心腎으로 들어가 陽氣를 회복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陽氣가 지나치게 발산되어 안으로 厥證이 나타났을 때 附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寒淫은 외부에서 寒邪가 침입한 것이고, 厥證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속의 陽氣가 고갈되는 것으로 차이가 있으나 厥證을 寒氣가 逆上하는 것으로 보아 내부의 寒淫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甘草의 작용은 乾薑, 附子와 합해져서 陽氣를 補하면서 내부를 완화시켜 和平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麻黃, 桂枝과 더불어 附子, 乾薑, 甘草 등을 조합한 麻黃附子甘草湯, 甘草乾薑湯, 甘草附子湯, 附子湯¹⁹⁹⁾, 甘草湯, 桂枝附子湯 등을 상황에 따라 응용할 수 있다. 麻黃附子細辛湯도 成無己의 주석에 의하면 寒淫 처방으로 분류되어 있다.

麻黃附子細辛湯²⁰⁰⁾

麻黃(甘熱), 細辛(辛熱), 附子(辛熱).

197)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49

198) 현대 本草學에서 附子의 氣味를 辛甘溫有毒으로 정하고 있다.

199) 尹吉榮은 “風化於天, 清反勝之”에 사용하는 처방의 예로 附子湯을 들었다.

200)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63

內經曰, 寒淫於內, 治以甘熱, 佐以苦辛, 以辛潤之, 麻黃之甘以解少陰之寒, 細辛附子之辛以溫少陰之經.

또한, 麻黃, 附子와는 달리 안으로 脾胃의 陽氣를 회복시키는 吳茱萸를 君藥으로 한 吳茱萸湯이 寒淫에 배속되어 있다.

吳茱萸湯²⁰¹⁾

吳茱萸(辛熱), 人參(甘溫), 生薑(辛溫), 大棗(甘溫).

內經曰, 寒淫於內, 治以甘熱, 佐以苦辛, 吳茱萸生薑之辛以溫胃, 人參大棗之甘以緩脾.

(3) 熱淫, 火淫

『內經』에서 熱淫을 다스리는 경우에 君藥으로는 대부분 鹹味 또는 酸味를 쓰며²⁰²⁾ 佐藥으로는 苦味, 甘辛, 辛味 등을 쓰고 추가적으로 以酸收之, 以苦發之²⁰³⁾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 成無己가 『傷寒論』 중에서 熱淫 처방을 분류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調胃承氣湯²⁰⁴⁾

大黃(苦寒), 甘草(甘平), 芒硝(鹹苦大寒).

內經曰,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苦甘, 芒硝鹹寒以除熱, 大黃寒苦以蕩實, 甘草甘平助二物推陳而緩中.

201)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42

202) 鹹味뿐만 아니라 酸味를 써서 흩어진 氣를 수렴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司天 火淫所勝의 경우에도 君藥으로 酸味를 쓰게 되어 있다.

203)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以苦發之가 실제 方劑 구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4)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34

成無己는 鹹味인 芒硝를 君藥으로 보고 苦味인 大黃은 佐藥으로 보아 調胃承氣湯을 熱淫을 다스리는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같은 承氣湯類인 大承氣湯의 경우에는 이후에 나오는 燥淫을 다스리는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調胃承氣湯의 경우에는 熱邪로 인하여 胃氣가 不和하고 譫語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므로 中上焦의 熱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 물론 이 때의 上焦로 올라간 熱氣도 中焦에서 시작된 것이다. 大承氣湯의 경우에는 厚朴, 枳實이 들어가고 나서 비로소 下焦의 燥結을 瀉下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熱을 치는 목적에 있어서는 調胃承氣湯이 더욱 가깝다고 본 것이다.

調胃承氣湯에서 大黃의 苦味는 熱邪를 응축시켜 밖으로 빼내는 작용(發之)을 하며, 甘草의 甘味는 熱氣를 직접적으로 완화시켜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苦鹹한 味를 쓰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精氣의 손상에 대하여 陽氣를 끌어올려 陰火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다. 外感 熱邪에 의한 질환이 비록 承氣湯證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調胃承氣湯이 熱淫을 다스리는데 가장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熱淫으로 인한 表病을 치료하는 처방들은 傷寒論보다는 清代 이후 溫病學 처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傷寒論에서 表證의 熱淫을 치료하는 처방이 많지 않은 반면에 風寒의 邪가 안으로 轉變되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熱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처방들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白虎湯²⁰⁵⁾

知母(苦寒)²⁰⁶⁾, 石膏(甘寒)²⁰⁷⁾, 甘草

205)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16

206) 현대 本草學에서는 知母의 氣味를 苦甘寒으로

(甘平), 粳米(甘平).

內經曰, 熱淫所勝, 佐以苦甘, 知母石膏之苦甘以散熱, 熱則傷氣, 甘以緩之, 甘草粳米之甘以益氣.

白虎湯의 경우에 鹹味の 君藥은 없으며 『內經』에서 佐藥으로 쓰인 苦味, 甘味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단, 知母의 경우에는 淸熱작용이 있으면서도 아래로 내려가 腎氣를 돕고 津液을 生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鹹味の 작용과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다. 石膏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 肺, 胃의 열을 내리면서 止渴시킨다. 甘味는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熱邪에 의해 소모된 氣를 보충하고 陽氣를 끌어올림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즉, 甘味로써 火를 완화시켜 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肺의 津液을 보충하기 위해서 白虎加人蔘湯²⁰⁸⁾을 쓰기도 한다.

小柴胡湯²⁰⁹⁾

柴胡(苦微寒), 黃芩(苦寒), 人蔘(甘溫), 甘草(甘平), 半夏(辛溫), 生薑(辛溫), 大棗(甘平).

內經曰, 熱淫於內, 以苦發之, 柴胡黃芩之苦以發傳邪之熱, 裏不足者以甘緩之, 人蔘甘草之甘以緩中和之氣, 邪半入裏則裏氣逆, 辛以散之, 半夏以除煩嘔, 邪半在表則營衛爭之, 辛甘解之, 薑棗以和營衛.

정하고 있다.

207) 현대 本草學에서는 石膏의 氣味를 辛甘大寒으로 정하고 있다.

208)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30 ; 白虎湯에 人蔘(甘溫)을 더한 것이다.

209)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66

小柴胡湯은 邪氣가 半表半裏에 들어와서 氣의 運行을 저체시켜 나타나는 병증을 치료하는데 柴胡, 黃芩은 清熱하고 人蔘, 甘草는 益氣升陽하고 半夏는 氣行이 저체되는 과정에서 생긴 痰을 치며 生薑, 大棗는 中氣를 補한다. 成無己의 주석을 살펴보면 『內經』의 熱淫于內 條文을 인용하였는데 실제 條文에는 以苦發之는 있으나 以甘緩之 辛以散之는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少陰之復 條文에서 “以甘瀉之, 以酸收之, 辛苦發之, 以鹹軟之.”라고 한 부분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辛苦發之라 하여 苦味뿐만 아니라 辛味로도 邪氣를 發한다고 하였는데 주석에서의 半夏를 설명한 辛以散之가 바로 이것이다. 半夏가 辛味를 가지고 강력하게 痰을 제거하는 것이다.

柴胡湯에 風淫을 다스리는 桂枝湯의 桂枝, 芍藥을 더한 것이 柴胡桂枝湯이다. 이것은 表의 風邪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 쓰는데 이것의 變方이 아래에 나오는 柴胡桂枝乾薑湯이다.

柴胡桂枝乾薑湯²¹⁰⁾

柴胡(苦平), 桂枝(辛熱), 乾薑(辛熱), 括蕒根(苦寒), 黃芩(苦寒), 牡蠣(鹹寒), 甘草(甘平).

內經曰, 熱淫於內, 以苦發之, 柴胡黃芩之苦以解傳裏之邪, 辛甘發散爲陽, 桂枝甘草之辛甘以散在表之邪, 鹹以喫之, 牡蠣之鹹以消胸脇之滿, 辛以潤之, 乾薑之辛以固陽虛之汗, 津液不足而爲渴, 苦以堅之, 括蕒之苦以生津液.

이 처방은 少陽證이 나타나면서 表證이 남아있고 胸中에 鬱熱이 있어 心煩하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柴胡桂枝湯에 人蔘, 半夏, 芍藥,

生薑이 빠지고 乾薑, 括蕒仁, 牡蠣 등이 더해진 것이다. 人蔘, 半夏 등의 辛甘한 味를 뺐으며, 芍藥 대신 津液을 生하는 括蕒仁과 肝腎의 鬱熱을 내리는 牡蠣를 사용하였다. 鹹味는 喫堅 작용을 통하여 熱로 인해 경직된 氣行을 완화시킴으로서 胸中의 熱을 瀉하게 된다. 柴胡加龍骨牡蠣湯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정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龍骨을 더하여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牡蠣가 비록 君藥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으나 調胃承氣湯의 鹹味인 芒硝와 마찬가지로 喫堅시키는 作用을 통하여 熱淫을 다스리는 중요한 약임을 알 수 있다. 柴胡湯에 芒硝를 더한 柴胡加芒硝湯도 이 처방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內經』의 熱淫 條文을 살펴보면, 酸味를 써서 수렴시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처방으로 少陰病에 쓰는 四逆散을 들 수 있다. 다음은 四逆散에 대한 成無己의 주석이다.

四逆散²¹¹⁾

甘草(甘平), 枳實(苦寒)²¹²⁾, 柴胡(苦寒), 芍藥(酸微寒).

內經曰, 熱淫於內, 佐以甘苦, 以酸收之, 以苦發之, 枳實甘草之甘苦以泄裏熱, 芍藥之酸以收陰氣, 柴胡之苦以發表熱.

이 처방은 少陰病에서 厥證이 생기는 경우 熱厥의 증상이 약간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것으로 小柴胡湯과 비슷하게 柴胡로는 熱을 내리며 甘草로 氣를 補하고 枳實의 苦味로는 邪氣를 내리며(發之 泄之 下之) 芍藥의 酸味로는 기운을 수렴시켜 모으는 것이다. 또한, 熱淫을 다스리는 처방은 아니나 小青龍湯²¹³⁾에서는

211)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74

212) 현대 本草學에서는 枳實의 氣味를 苦辛酸微寒이라 정하고 있다.

213)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210)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99

表部に 있는 寒邪를 몰아내는 동시에 내부에 발생한 熱을 내리기 위하여 芍藥, 五味子 등의 酸味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의 熱邪로 인하여 津液이 부족해졌을 때 酸味로써 氣를 수렴시켜 津液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상에 熱淫을 다스리는 처방들을 보면, 鹹味를 사용하는 처방 중에는 芒硝의 鹹味를 써서 내부의 燥結을 내려보내는 承氣湯類와 牡蠣의 鹹味를 써서 肝腎의 鬱熱을 처서 煩躁를 없애는 柴胡加龍骨牡蠣湯 종류가 있다. 또한, 柴胡의 苦味를 중심으로 補瀉法을 겸하고 있는 小柴胡湯 종류가 있었다.

(4) 燥淫

燥淫의 경우 『內經』에서는 君藥으로 苦溫한 味를 쓰며 佐藥으로는 酸味, 辛味, 甘味를 쓰고 추가적으로 以苦下之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成無己는 燥淫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大便秘結을 통하게 하는 大承氣湯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調胃承氣湯에 熨堅하면서 邪氣를 發하는 厚朴, 枳實의 苦味를 더하여 下焦의 熱結을 풀어버리고 있다. 小承氣湯²¹⁴⁾의 경우에는 鹹味인 芒硝가 빠져서 瀉熱보다는 積을 가볍게 아래로 내리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大黃, 芒硝가 燥淫을 몰아내므로 비록 직접적으로 津液을 생하는 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潤之하는 작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大承氣湯에 대한 成無己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大承氣湯²¹⁵⁾

1989, p.142 ; 麻黃(甘溫) 芍藥(酸微寒) 五味子(酸溫) 乾薑(辛熱) 甘草(甘平) 半夏(辛微溫) 桂枝(辛熱) 細辛(辛溫)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尹吉榮은 厥陰之復의 처방으로 보았다.

214)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28 ; 大承氣湯에서 芒硝(鹹寒)가 빠진 것이다.

215)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大黃(苦寒), 厚朴(苦溫), 枳實(苦寒), 芒硝(鹹寒).

內經曰, 燥淫所勝, 以苦下之, 大黃枳實之苦以潤燥除熱, 又曰燥淫於內, 治以苦溫, 厚朴之苦下結燥, 又曰熱淫所勝, 治以鹹寒, 芒硝之鹹以攻蘊熱.

燥淫으로 인한 병증이 반드시 大便秘結만 있는 것은 아니다. 肺가 熱邪를 받아 燥熱해졌을 때에는 酸味를 써서 氣를 거두어들이면서 津液을 생해야 하는데 이러한 처방은 四逆散이나 앞에서 설명한 熱淫 처방 중에서 柴胡桂枝乾薑湯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5) 濕淫

『內經』에서 濕淫을 다스리는 처방은 대부분 君藥을 苦味로 하여 燥之시키며 佐藥으로는 酸味, 辛味, 淡味를 쓰고 추가적으로 以苦燥之 以淡泄之의 방법을 쓰고 있다. 濕을 치는 苦味로는 白朮, 半夏 등을 들 수 있으며 淡味로는 茯苓, 豬苓 등을 여기에 해당하고 酸味로는 澤瀉²¹⁶⁾, 芍藥 등이 辛味로는 桂枝, 生薑, 附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成無己는 濕淫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處方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위의 구성에 가까운 處方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五苓散²¹⁷⁾의 구성을 살펴보자.

五苓散²¹⁸⁾

豬苓(甘平), 澤瀉(酸鹹), 茯苓(甘平).

1989, p.228

216) 현대 本草學에서는 澤瀉의 氣味를 甘寒으로 정하고 있으나 『傷寒論』에서는 酸鹹으로 보고 있다.

217) 尹吉榮은 五苓散을 “熱司于地, 寒反勝之.”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보았다.

218)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56

桂(辛熱), 白朮(甘平)²¹⁹).

淡者, 一也. 口入一而爲甘, 甘甚而反淡, 甘緩而淡滲, 豬苓白朮茯苓三味之甘, 潤虛燥而利津液, 鹹味下泄爲陰, 澤瀉之鹹以泄伏水, 辛甘發散爲陽, 桂枝辛甘以和肌表.

五苓散은 苦味の 白朮이 들어있으나 茯苓, 豬苓 등의 淡味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澤瀉는 酸鹹의 味로서 氣를 아래로 수렴시켜 水氣를 내려보내는 작용을 하고 桂枝는 “氣化則能出矣”²²⁰의 원리에 의하여 陽氣를 발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五苓散證은 表에서 發汗이 심하여 津液이 마르고 胃中이 건조해지므로 인하여 아래로 濕이 발생한 것으로 淡平한 味를 써서 中氣를 완화시키면서 濕을 내려보내고 酸鹹의 澤瀉로써 氣를 수렴시키면서 下之하고 桂枝를 약하게 사용하여 發散시켜 氣化를 돕는다. 이때의 濕은 내부 鬱熱이 심하여 나타나는 濕痰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白朮, 半夏 등의 약은 강하게 쓰지 않은 것이다.

五苓散證에서 안으로 煩躁가 심하지 않고 濕邪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히 茯苓桂枝甘草大棗湯²²¹, 茯苓桂枝白朮甘草湯²²², 茯苓甘草湯²²³ 등을 쓸 수도 있다. 또한, 桂枝湯類에서 桂枝를 빼고 白朮을 넣은 처

방으로는 朮附湯²²⁴,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²²⁵, 桂枝加白朮湯²²⁶ 등이 있다. 그리고 表證이 많지 않고 濕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豬苓湯²²⁷을 쓸 수도 있다. 다음은 眞武湯의 경우를 살펴보자.

眞武湯²²⁸

茯苓(甘平), 芍藥(酸平), 生薑(辛溫), 白朮(甘溫), 附子(辛熱).

脾惡濕, 甘先入脾, 茯苓白朮之甘以益脾逐水, 寒淫所勝, 平以辛熱, 濕淫所勝, 佐以酸平²²⁹, 附子芍藥生薑之酸辛以溫經散濕.

眞武湯에서는 茯苓, 生薑, 白朮이 골고루 들어가 각각 작용을 하고 있으며 少陰으로 들어가 陽氣를 발산시키는 附子를 써서 寒邪를 제거하고 있다. 또한 佐藥으로는 酸味の 芍藥을 사용하고 있다. 成無己도 注에서 濕淫 조문에서 酸味를 佐藥으로 쓰는 예를 들어 芍藥을 설명하고 있다. 五苓散이 桂枝가 들어가 發散劑에 가깝다면 眞武湯은 少陰經의 寒邪를 몰아내면서 濕을 제거하는 처방이라 할 수 있다.

219) 현대 본초학에서는 白朮의 氣味를 苦甘溫으로 정하고 있다.

220)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이라 하여 精氣가 氣化되어 밖으로 發揚될 때 그 힘에 의하여 内外의 氣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津液이 선포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221)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52 ; 茯苓(甘平), 甘草(甘平), 大棗(甘平), 桂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53

223)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57 ; 茯苓(甘平), 桂枝(辛熱), 生薑(辛溫), 甘草(甘平) 등의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224)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27 ; 桂枝加附子湯에서 桂枝를 빼고 白朮을 넣은 것이다.

225)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32

226)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15 ; 桂枝湯에서 桂枝를 빼고 白朮을 넣은 것이다.

227)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36 ; 豬苓(甘平), 茯苓(甘平), 阿膠(甘平), 滑石(甘寒), 澤瀉(甘鹹寒) 등의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228)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72

229) 『至真要大論』에서는 濕淫所勝에는 酸辛味를 佐藥으로 쓰고 濕淫於內에서는 酸淡味를 佐藥으로 쓰고 있어 成無己의 注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와 비슷한 처방으로는 附子湯²³⁰⁾이 있다.

濕淫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豬苓, 茯苓 등의 淡味를 써서 利水滲濕시키는 방법과 白朮 등의 苦味를 써서 脾氣를 補하면서 燥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水飮이 정제되어 있다기보다는 더욱 단단하게 痰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痰이 심할 경우에는 苦溫有毒한 半夏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半夏가 가지고 있는 毒을 苦味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苦味를 써서 燥濕하는 동시에 멎쳐있는 痰을 강하게 發泄시키는 것이다. 半夏瀉心湯²³¹⁾과 같은 처방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苦味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燥邪를 성하게 하여 痰을 생할 수 있으므로 다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三因方』에서의 氣味 運用

1) 五運 處方

『內經』의 五運에 따른 五味 運用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運太過시에는 五臟瀉法을 따르고 運不及時에는 五味補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三因方』에서 五運 太過 不及에 따른 구체적인 처방을 기술한 것은 『內經』의 이론을 더욱 개발한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는데²³²⁾, 『三因方』의 五運 處方은 五運太

過에 의해 五行 相克으로 병을 받은 臟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오히려 五運不及의 方劑 구성을 살펴보면 五臟瀉法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五運太過에서 사용되는 處方은 해당 五臟을 억제하는 處方이 아니라 相克에 의하여 病을 받게되는 五臟의 處方과 동일해지므로 五臟瀉法을 病을 받는 不及의 處方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 木運太過 - 土運不及

蒼朮湯(木運太過)²³³⁾

茯苓(甘淡平)²³⁴⁾, 厚朴(苦辛溫), 白朮(苦甘溫)²³⁵⁾, 青皮(苦辛微溫), 乾薑(辛熱), 半夏(辛溫), 草果(辛溫), 甘草(甘平).

白朮厚朴湯(土運不及)²³⁶⁾

白朮(苦甘溫), 厚朴(苦辛溫), 半夏(辛溫), 桂心(辛甘溫), 藿香(辛微溫), 青皮(苦辛微溫), 乾薑(辛熱), 甘草(甘平).

木運이 太過할 경우에는 원래 酸味를 써서 수렴시켜 기운의 지나친 發散을 억제해야 하나 여기서는 肝의 病보다는 脾의 病에 중점을 두고 치료하고 있다. 단, 苦味를 가지고 疎肝

230)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65 ; 附子(辛熱), 茯苓(甘平), 人蔘(甘溫), 白朮(甘溫), 芍藥(酸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01 ; 半夏(辛平), 黃芩(苦寒), 乾薑(辛熱), 人蔘(甘溫), 黃連(苦寒), 大棗(甘溫), 甘草(甘平)으로 구성되어 있다. 尹吉榮은 在泉風淫于內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보았다.

232) 『三因方』의 處方 구성에 대하여 연구한 성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五運六氣詳解與運用』(權依經, 甘肅省, 甘肅科學技術出版社, 1987)을 들 수 있다.

233) 『三因方』에서는 “治脾胃感風, 痰泄, 注下, 腸鳴, 腹滿, 四肢重滯, 忽忽善怒, 眩冒, 顛暈, 或左脇偏疼.”라 하였다.

234) 현대 本草學에서 규정하고 있는 氣味를 기술하였다. 즉, 『本草學』(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서울, 永林社, 1991)에 기재되어 있는 氣味를 기준으로 하였다.

235) 處方名은 蒼朮湯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白朮로 되어 있다. 원래 蒼朮과 白朮은 구별이 없이 출로 통일되어 있었다. 蒼朮은 氣味가 辛苦溫하여 白朮의 脾胃를 補하는 작용보다 行氣시켜서 濕邪를 瀉하는 작용이 강하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 작용으로 볼 때 蒼朮을 써야 한다고 생각된다.

236) 『三因方』에서는 “治脾虛風冷所傷, 心腹脹滿, 疼痛, 四肢筋骨重弱, 肌肉潤動酸軟, 善怒, 霍亂吐瀉, 或胸脇暴痛, 下引小腹, 善太息, 食少, 失味.”라 하였다.

破氣하는 효능을 가진 靑皮가 酸味の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白朮은 脾胃를 補하면서도 濕을 제거하고 半夏는 痰을 쳐서 흩어 버린다. 厚朴은 行氣시키고 茯苓은 利水 滲濕의 작용을 한다. 乾薑은 陽氣를 발산시켜 風邪를 몰아내고 氣化 작용을 통하여 水濕을 아래로 빼내는데 도움을 준다. 草果와 甘草는 濕中하고 完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土運不及에는 원래 甘味를 써서 土를 補하도록 되어 있는데 白朮厚朴湯을 보면 乾薑을 桂枝로 대체하여 발산력을 높이고 있으며 藿香을 사용한 것도 燥濕의 작용 외에 表邪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을 겸하고 있다. 白朮厚朴湯과 蒼朮湯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蒼朮湯은 濕邪를 제거하는 것이 급하므로 標治를 우선하고 있으며 白朮厚朴湯은 脾 자체의 精氣를 도와 氣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다양한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脾의 濕病을 치료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어서 蒼朮湯, 白朮厚朴湯 모두 白朮(苦甘溫), 厚朴(苦辛溫), 靑皮(苦辛微溫)의 苦味를 주축으로 하여 脾의 瀉法을 사용하고 있다.

(2) 火運太過 - 金運不及

麥門冬湯(火運太過)237)

麥門冬(甘微苦微寒), 白芷(辛溫), 半夏(辛溫), 竹葉(辛苦寒), 甘草(甘平), 鐘乳粉(甘溫), 桑白皮(甘寒), 紫菀(苦甘溫), 人蔘(甘微苦微溫).

紫菀湯(金運不及)238)

紫菀(苦甘溫), 白芷(辛溫), 人蔘(甘微

苦微溫), 甘草(甘平), 黃芪(甘溫), 地骨皮(甘寒), 杏仁(苦微辛微溫), 桑白皮(甘寒).

「內經」에서는 火運이 太過할 때는 甘味를 써서 氣운을 完화시키고 金運이 不及할 경우에는 酸味로 수렴시켜 肅降 작용을 돕도록 되어 있다. 麥門冬湯의 경우에는 火運이 太過하여 肺의 津液이 부족해진 것을 우선적으로 보충해야하므로 清熱하면서 生津하는 麥門冬, 竹葉 등을 쓰고 있으며 人蔘, 甘草 등은 甘味로 氣를 補하여 肺氣를 돕고 있다. 肺의 通調水道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水濕이 정체되어 喘症이 나타날 때 苦寒한 桑白皮로 肺氣가 鬱한 것을 瀉하면서 아래로 降氣시켜 濕을 제거한다. 白芷는 辛溫한 味로 발산시켜 肺氣를 선포하고 반대로 半夏의 苦味는 氣를 아래로 내려 嘔逆 등을 치료한다. 紫菀은 苦甘의 味로서 潤肺下氣 化痰止咳의 작용을 고루 갖추고 있다.

金運不及의 경우에는 肺氣가 부족하기는 하나 火邪가 火運太過의 경우처럼 심하지 않으므로 津液을 보충하는 麥門冬, 竹葉 등을 썼다. 대신에 肺氣를 補하는 黃芪, 清肺降火하는 地骨皮, 半夏를 대체하여 下氣 작용이 강한 杏仁 등을 추가하였다. 모두가 肺 자체의 부족을 보강하기 위한 약들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 處方 모두 肺를 치료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어서 肺氣를 宣發하기 위한 白芷(辛溫)와 그에 따른 佐藥들로 구성되 주로 肺의 瀉法을 사용하고 있다.

(3) 土運太過 - 水運不及

附子山茱萸湯(土運太過)239)

附子(辛甘熱), 山茱萸(酸澁微溫), 木瓜(酸溫), 烏梅(酸澁溫), 半夏(辛溫), 肉苳蔻(辛溫), 丁香(辛溫), 藿香(辛微溫).

237) 「三因方」에서는 “治肺經受熱, 上氣, 咳嗽, 咯血, 痰壅, 喉乾, 耳聾, 泄瀉, 胸膈滿, 痛連肩背, 兩臂膊疼, 息高.”라 하였다.

238) 「三因方」에서는 “治肺虛感熱, 咳嗽, 喘滿, 自汗, 衄血, 肩背脊重, 血便注下, 或腦戶連額頭痛, 發熱, 口瘡, 心痛.”이라 하였다.

239) 「三因方」에서는 “治腎經受濕, 腹痛, 寒厥, 足痿不收, 腰膝痛, 行步艱難, 甚則中滿, 食不下, 或腸鳴 漉泄.”이라 하였다.

五味子湯(水運不及)²⁴⁰⁾

五味子(酸甘溫), 附子(辛甘熱), 巴戟(甘辛微溫), 鹿茸(甘鹹溫), 山茱萸(酸澁微溫), 熟地黃(甘微溫), 杜沖(甘微辛溫).

「內經」에서 土運太過에는 苦味를 주로 써서 燥濕시키며 水運不及에도 苦味를 써서 堅之하여 腎氣를 보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土運太過로 인하여 腎이 精氣를 갈무리하지 못하여 병든 것을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 茯苓, 豬苓 등의 利水滲濕藥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水濕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附子山茱萸湯의 경우를 살펴보면, 酸味로 氣를 수렴시키는 山茱萸, 木瓜, 烏梅 등과 止瀉의 작용이 있는 肉苳蔻는 上中下焦의 氣를 수렴시켜 精氣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半夏도 역시 氣를 내리는 작용을 한다. 丁香, 藿香, 附子は 모두 陽氣를 생하고 氣를 발산시키는데, 丁香은 溫中시키고 藿香은 上焦에까지 氣를 발산하며 附子は 少陰의 元陽을 發揚한다.

五味子湯을 살펴보면, 腎으로 들어가 陽氣를 發揚하는 附子와 澁精시키는 山茱萸는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밖에 酸味の 五味子が 上焦의 氣를 수렴하여 山茱萸를 돕고 있고 甘溫 또는 鹹溫의 味를 가진 巴戟, 鹿茸, 熟地, 杜沖 등의 약이 더해져서 腎의 精氣를 補하고 있다. 附子山茱萸湯보다는 근본적으로 精氣를 보강하는 쪽으로 약이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腎을 치료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데, 腎의 지나친 閉藏을 막고 陽氣를 發揚하기 위하여 瀉法으로서 甘味の 鹿茸(甘鹹

溫)을 사용하고 있으며 瀉法에 따른 佐藥들도 같이 구성되어 있다.

(4) 金運太過 - 木運不及

牛膝木瓜湯(金運太過)²⁴¹⁾

牛膝(苦酸平), 木瓜(酸溫), 芍藥(苦酸微寒), 杜沖(甘微辛溫), 枸杞子(甘寒), 黃松節(苦溫), 芎藭子(辛甘溫), 天麻(甘平), 甘草(甘平).

菴蓉牛膝湯(木運不及)²⁴²⁾

肉菴蓉(甘酸鹹溫), 牛膝(苦酸平), 木瓜(酸溫), 芍藥(苦酸微寒), 熟地黃(甘微溫), 當歸(甘辛溫), 甘草(甘平).

「內經」에서는 金運太過에 辛味로 肺의 精氣를 돕고 木運不及에서도 辛味를 써서 散之하여 肝氣의 발산을 돕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辛味보다는 氣를 안으로 수렴하여 補陰함으로써 肝氣를 강하게 해주는 약들과 甘溫한 性味를 가지고 補氣血하는 약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牛膝木瓜湯에서는 牛膝, 木瓜, 芍藥의 酸味로 氣를 수렴하여 肝陰을 보하고 있다. 枸杞子, 芎藭子 등도 甘味로 肝氣를 補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杜沖도 역시 肝氣를 도와 근골을 강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甘草, 天麻 등은 肝氣가 급해지는 것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菴蓉牛膝湯에서는 肝腎을 모두 補하기 위하여 肉菴蓉이 추가되어 있으며, 또한 熟地黃, 當歸 등은 補陰, 寶血 작용을 하여 肝腎의 精氣를 근본적으로 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肝을 치료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데, 牛膝木瓜湯과 菴蓉牛膝湯에서 모두

241) 「三因方」에서는 “治肝虛遇歲氣, 燥濕更勝, 脇連小腹拘急, 疼痛, 耳聾, 目赤, 欬逆, 肩背連尻陰股膝脾胎皆痛, 悉主之.”라 하였다.

242) 「三因方」에서는 “治肝虛爲燥熱所傷, 脇脇竝小腹痛, 腸鳴, 瀉泄, 或發熱, 遍體瘡瘍, 咳嗽, 肢滿, 鼻衄.”이라 하였다.

240) 「三因方」에서는 “治腎虛坐臥濕地, 腰膝重着疼痛, 腹脹滿, 濡泄無度, 行步艱難, 足痿, 清厥, 甚則浮腫, 面色不常, 或筋骨併辟, 目視眩暈, 膈中咽痛.”이라 하였다.

牛膝(苦酸平), 木瓜(酸溫), 芍藥(苦酸微寒) 등의 酸味가 주축이 되어 肝의 瀉法이 사용되고 있다.

(5) 水運太過 - 火運不及

川連茯苓湯(水運太過)²⁴³⁾

黃連(苦寒), 茯苓(甘淡平), 麥門冬(甘微苦微寒), 車前子(甘寒), 通草(甘淡微寒), 遠志(苦辛微溫), 半夏(辛溫), 黃芩(苦寒), 甘草(甘平).

黃芪茯神湯(火運不及)²⁴⁴⁾

黃芪(甘溫), 茯神(甘淡平), 遠志(苦辛微溫), 紫河車(甘鹹溫), 酸棗仁(甘酸平).

「內經」에서는 水運太過에는 鹹味를 써서 腎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火運不及에 는 오히려 心의 陽氣가 산란되는 것을 鹹味를 써서 부드럽게 하여 치료하고 있다. 川連茯苓湯에서는 鹹味 대신에 苦寒한 黃連, 黃芩 등을 써서 心火의 熾盛을 억누르고, 茯苓, 車前子, 通草등으로 濕痰을 빼내면서 除熱하고, 麥門冬, 甘草 등으로는 肺의 津液을 보충하며 半夏는 降氣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遠志는 心으로 들어가 寧心安神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黃芪茯神湯의 내용을 살펴보면 黃芩, 黃連 등의 清熱藥은 오히려 心火를 瀉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제하였고, 濕痰을 제거하면서도 茯苓 대신 茯神을 사용하여 安神시키는 작용을 강화하였으며, 遠志뿐만 아니라 甘酸한 味의 酸棗仁을 더하여 安神하고 補陰하는 효과를 높였다. 紫河車는 涼血하여 血分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고 黃芪는 上焦의 氣를 補하여 역시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黃芪茯神

湯이 川連茯苓湯에 비하여 心의 陽氣를 안정적으로 선포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心을 치료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데, 위의 두 처방에서 茯苓(甘淡平), 麥門冬(甘微苦微寒), 車前子(甘寒), 通草(甘淡微寒), 甘草(甘平), 黃芪(甘溫), 茯神(甘淡平), 紫河車(甘鹹溫), 酸棗仁(甘酸平) 등 甘味를 多用하여 心에 대한 瀉法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司天, 在泉 處方

「內經」에 나오는 司天, 在泉에 대한 五味의 運用法은 「六元正紀大論」의 三陰三陽의 政에 대한 내용과 각각의 歲에 대한 것이 있으며, 「至眞要大論」에서 司天, 在泉의 六淫에 대한 運用法 등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처방들의 명칭은 「五常政大論」의 平氣之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²⁴⁵⁾. 太過나 不及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처방들을 비교해보면 司天-在泉 관계에 있는 처방들이 서로 비슷하며 어느 것이 司天으로 오는가의 先後 관계에 따라서 약간씩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1) 太陽司天 - 太陰在泉

靜順湯(水平)²⁴⁶⁾

茯苓(甘淡平), 木瓜(酸溫), 附子(辛甘熱), 牛膝(苦酸平), 防風(辛甘溫), 訶子(苦酸溫), 甘草(甘平), 乾薑(辛熱).

「六元正紀大論」에서는 太陽之政에 “歲宜苦以燥之溫之”라 하여 寒濕의 邪氣를 없애는

243) 「三因方」에서는 “治心虛爲寒冷所中, 身熱, 心躁, 手足反寒, 心腹腫病, 喘咳, 自汗, 甚則大腸便血.”이라 하였다.

244) 「三因方」에서는 “治心虛挾寒, 胸心中痛, 兩脇連肩背支滿, 噎塞, 鬱冒, 矇昧, 體脾攣痛, 不能屈伸, 或下利瀉泄, 飲食不進, 腹痛, 手足痿痺, 不能任身.”이라 하였다.

245) “平氣, 木曰數和, 火曰升明, 土曰備化, 金曰審平, 水曰靜順.”라고 하였다.

246) 「三因方」에서는 “治辰戌歲太陽司天, 太陰在泉, 病身熱, 頭痛, 嘔吐, 氣鬱, 中滿, 昏悶, 少氣, 足痿, 注下赤白, 肌腠瘡瘍, 發爲癰疽.”라 하였다.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 처방도 역시 寒邪로 인하여 水濕이 정체된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茯苓과 木瓜²⁴⁷⁾는 濕을 아래로 내보내며, 牛膝, 訶子 등의 酸味는 氣를 수렴하여 肝腎의 精氣를 돕고, 乾薑, 附子, 防風 등은 氣를 발산시켜 氣化를 통하여 水濕을 내려보내는 동시에 少陰腎의 元陽을 發揚시켜 寒邪를 몰아낸다. 甘草는 허해진 中氣를 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약물 구성은 眞武湯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즉, 少陰病에 寒邪로 인하여 陽氣가 發揚되지 못하여 水濕이 정체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六步²⁴⁸⁾에 따른 加減은 아래와 같다.

相火: 去 附子(辛甘熱), 加 枸杞子(甘寒)

金: 正方²⁴⁹⁾

水: 去 附子(辛甘熱) 木瓜(酸溫) 乾薑(辛熱), 加 人蔘(甘微苦微溫) 枸杞子(甘寒) 地榆(苦酸澁微寒) 香白芷(辛溫) 生薑(辛溫)

木: 加 石榴皮(酸澁溫)

君火: 正方

土: 去 牛膝(苦酸平), 加 當歸(甘辛溫) 芍藥(苦酸微寒) 阿膠(甘平)

初之氣에는 相火가 腎의 元陽을 動할 수 있으므로 附子를 빼고 반대로 甘寒한 성질로 滋腎하는 枸杞子를 더하였으며, 二之氣에는 陽明이 들어오므로 正方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太陽司天이 들어오는 三之氣에는 본래 陽氣가

성한 때이므로 辛熱한 附子를 除하고 다시 枸杞子를 加하였으며, 肺로 들어가 辛溫의 성질로 芳香化濕의 효능이 있는 白芷와 生津止渴하는 人蔘을 더하였고, 乾薑을 生薑으로 대체하였으며, 地榆를 넣어 補陰涼血하도록 하였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四之氣에는 石榴皮를 加하여 澁腸止瀉하도록 하였고, 五之氣에는 君火가 客氣로 들어오지만 淸량한 계절이므로 正方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終之氣에서는 瘀血을 치는 牛膝 대신에 補陰補血補津液하는 當歸, 芍藥, 阿膠 등을 加하여 寒濕으로 인하여 筋骨에 이상이 온 경우를 치료하도록 하였다.

(2) 陽明司天 - 少陰在泉

平湯(金平)²⁵⁰⁾

遠志(苦辛微溫), 紫檀香(辛溫), 天門冬(甘苦寒), 山茱萸(酸澁微溫), 白朮(苦甘溫), 芍藥(苦酸微寒), 甘草(甘平), 生薑(辛溫).

「六元正紀大論」에서는 陽明之政에 “歲宜以鹹, 以苦, 以辛, 汗之, 淸之, 散之.”라고 하였다. 이 처방은 少陰心으로 들어가는 遠志와 紫檀香, 肺肝腎으로 들어가는 天門冬, 山茱萸, 芍藥, 脾로 들어가는 白朮, 生薑, 甘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陽明의 淸氣와 少陰의 火가 서로 상충하여 서로 氣를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心火가 억제되어 제대로 퍼지지 못하여 鬱滯되므로 安神理氣하는 遠志와 紫檀香을 쓰며, 少陰이 在泉에 위치하여 腎氣가 藏하기 힘들므로 氣를 수렴하기 위하여 天門冬, 山茱萸, 芍藥 등을 쓰고, 補氣溫中하기 위하여 白朮, 生薑, 甘草 등을 사용한다.

250) 「三因方」에서는 “治卯酉之歲, 陽明司天, 少陰在泉, 病者中熱, 面浮鼻航, 小便赤黃, 甚則淋, 或癰氣行, 善暴仆, 振慄, 譫妄, 寒瘡, 癰腫, 便血.”이라 하였다.

247) 「內經」에서 濕淫을 다스리는데 酸味를 佐藥으로 사용하였는데 木瓜가 여기에 해당한다.

248) 일년 중 六步의 기간을 24절기에 따라 나누어 보면 初步는 大寒에서 春分까지, 二步는 春分에서 小滿까지, 三步는 小滿에서 大暑까지, 四步는 大暑에서 秋分까지, 五步는 秋分에서 小雪까지, 終步는 小雪에서 大寒까지이다.

249) 원문에는 依前入附子枸杞라고 되어 있으나 枸杞 앞에 去字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正方이란 原方을 말한다.

土: 加 茯苓(甘淡平) 半夏(辛溫) 紫蘇(辛溫)²⁵¹⁾ 生薑(辛溫)

相火: 加 玄蔘(甘苦鹹寒) 白薇(苦鹹寒)

金: 去 遠志(苦辛微溫) 山茱萸(酸澁微溫) 白朮(苦甘溫), 加 丹蔘(苦微寒) 澤瀉(甘寒)

水: 去 遠志(苦辛微溫) 白朮(苦甘溫), 加 酸棗仁(甘酸平) 車前子(甘寒)

木: 正方

君火: 正方

初之氣에는 太陰客氣에 의하여 水濕이 성할 수 있으므로 茯苓, 半夏, 紫蘇子를 더하고 生薑으로는 陽氣를 보충하여 寒氣를 몰아낸다. 二之氣에는 玄蔘과 白薇를 더하여 肝腎의 相火가 妄動하는 것을 억제하며, 三之氣에는 溫한 遠志, 山茱萸, 白朮을 쓰는 대신 寒性을 가지고 있는 丹蔘을 더하여 安神시키고 澤瀉를 더하여 濕邪를 내보낸다. 四之氣에도 마찬가지로 遠志, 白朮을 빼고 酸棗仁, 車前子를 더하여 같은 작용을 하도록 한다. 三之氣에서 四之氣로 넘어가는 시기에 濕邪가 發현하기 쉽기 때문이다. 五之氣와 終之氣에는 비록 風熱이 客氣로 들어오나 원래 陰氣가 성한 때이므로 正方을 그대로 사용한다.

(3) 少陽司天 - 厥陰在泉

升明湯(火平)²⁵²⁾

紫檀香(辛溫), 車前子(甘寒), 青皮(苦辛微溫), 半夏(辛溫), 酸棗仁(甘酸平), 薔薇(苦澁涼), 生薑(辛溫), 甘草(甘平).

251) 降氣消痰 平喘의 작용이 있는 紫蘇子로 보아야 한다. 少陰司天의 正陽湯에서 終之氣에 紫蘇子를 더하라고 되어 있다.

252) 『三因方』에서는 “治寅申之歲, 少陽相火司天, 厥陰風木在泉, 病者氣鬱熱, 血溢, 目赤, 咳逆, 頭痛, 脇滿, 嘔吐, 胸臆不利, 聾, 瞶, 溺, 身重, 心痛, 陽氣不藏, 瘡瘍, 煩躁.”라 하였다.

「六元正紀大論」에서는 少陽之政에 “歲宜鹹宜辛宜酸, 滲之, 泄之, 瀆之, 發之.”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少陽이 司天하므로 火淫이 성하여 心火가 熾盛해지게 되는데, 酸棗仁을 써서 心氣를 수렴시키고 紫檀香을 써서 理氣하여 안정시킨다. 紫檀香은 비록 성질이 辛溫하나 辛味가 行氣시켜 鬱火를 흩어버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車前子는 역시 甘寒한 성미로서 利水滲濕하여 水濕을 내려보내는 작용을 통하여 火氣를 瀉한다. 半夏도 降氣하면서 痰을 흩어버리고, 薔薇는 風熱을 없애며, 生薑, 甘草는 甘溫한 성미로서 中氣를 補하면서 安화시켜 陰火를 끄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鬱火를 瀉하는 방제로 볼 수 있다.

君火: 加 白薇(苦鹹寒) 玄蔘(甘苦鹹寒)

土: 加 丁香(辛溫)

相火: 加 漏蘆(苦寒) 升麻(辛微甘微寒) 赤芍藥(苦微寒)

金: 加 茯苓(甘淡平)

水: 正方

木: 加 五味子(酸甘溫)

初之氣에는 君火가 와서 肝腎의 相火를 妄動시키게 되므로 白薇와 玄蔘을 쓰고, 二之氣에는 丁香으로 溫中하여 泄瀉 등을 막고, 三之氣에는 脾胃에 濕熱이 정체되기 쉬우므로 漏蘆와 升麻를 써서 清熱解毒하는 동시에 升陽益氣하여 鬱火를 흩어버린다. 赤芍藥은 肝으로 들어가서 清熱涼血하여 血分의 熱을 치는 작용을 한다. 四之氣로 넘어가서는 茯苓을 가하여 濕을 제거하고 五之氣에는 水氣가 들어오나 少陽, 厥陰의 힘에 밀려 크게 작용하지 못하므로 正方을 사용하고 終之氣에는 厥陰在泉에 의하여 風邪가 發하기 쉬우므로 五味子의 酸味로 수렴시킨다.

(4) 太陰司天 - 太陽在泉

備化湯(土平)²⁵³⁾

木瓜(酸溫), 茯神(甘淡平), 牛膝(苦酸平), 附子(辛甘熱), 熟地黃(甘微溫), 覆盆子(甘酸溫), 甘草(甘平), 生薑(辛溫).

「六元正紀大論」에서는 太陰之政에 “歲宜以苦燥之溫之, 甚者發之泄之.”라고 하였다. 太陰司天의 경우에는 濕邪가 성하며 火가 動하기 쉬워서 脾胃가 약해지고 腎氣가 허해지기 쉽다. 濕邪로 인하여 筋骨肌肉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木瓜를 써서 濕을 제거하고 牛膝을 써서 瘀血을 친다. 또한 利水滲濕하는 茯神을 써서 火가 위로 뜨는 것을 막고, 附子는 辛味로 濕을 말리는 동시에 腎陽을 補하여 熟地黃과 같이 腎의 精氣를 회복시키고 覆盆子は 固精縮尿하여 腎氣가 脫하는 것을 막는다. 甘草, 生薑은 약해진 脾胃를 補한다. 太陽司天의 靜順湯과 비교해보면 茯苓을 茯神으로 바꾸어서 濕熱로 인하여 心의 陽氣가 손상 받은 것을 막고, 熟地黃, 覆盆子를 더하여 腎을 補하게 하였다.

木: 正方

君火: 去 附子(辛甘熱), 加 天麻(甘平) 防風(辛甘溫)

土: 加 澤瀉(甘寒)

相火: 正方

金: 正方

水: 正方

太陰司天의 해는 主氣와 客氣가 거의 일치하여 氣의 운행이 비교적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단, 二之氣에서는 風의 陽氣가 動하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附子를 빼고 天麻, 防風을 가하였다. 三之氣에는 澤瀉를 더하여 利水滲濕

253) 「三因方」에서는 “治丑未之歲, 太陰濕土司天, 太陽寒水在泉, 病者關節不利, 筋脈拘急, 身重, 萎弱, 或溫癘盛行, 遠近咸若, 或胸腹滿悶, 甚則浮腫, 寒癘, 血溢, 腰腫痛.”이라 하였다.

의 효능을 높였다.

(5) 少陰司天 - 陽明在泉

正陽湯²⁵⁴⁾

白薇(苦鹹寒), 玄蔘(甘苦鹹寒), 川芎(辛溫), 桑白皮(甘寒), 當歸(甘辛溫), 芍藥(苦酸微寒), 旋復花(苦辛鹹微溫), 甘草(甘平), 生薑(辛溫).

「六元正紀大論」에서는 少陰之政에 “歲宜鹹以稟之, 而調其上, 甚則以苦發之, 以酸收之, 而安其下, 甚則以苦泄之.”라고 하였다. 여기서 少陰이 司天으로 들어오므로 心火가 성하게 되어 氣가 수렴이 되지 않아서 정신이 불안해지고 氣가 손상을 받아 中氣도 허해지며 심하면 陰血을 상하게 된다. 在泉에 陽明이 오므로 裏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審平湯과 비교하면, 理氣하는 遠志, 紫檀香 대신에 白薇, 玄蔘을 써서 相火의 妄動을 막고²⁵⁵⁾, 芍藥은 수렴시키면서 陰血를 기르고, 桑白皮와 旋復花는 上焦의 濕痰을 제거함으로써 降氣시켜 喘, 嘔逆 등을 가라앉히며, 當歸, 川芎은 芍藥과 함께 血을 補하고, 甘草, 生薑은 火氣로 소모된 中氣를 보한다. 審平湯의 경우에는 陰陽이 서로 錯雜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한다면 正陽湯은 주로 心熱이 성하여 나타나는 질환들을 치료하게 된다.

水: 加 杏仁(苦微辛微溫) 升麻(辛微甘微寒)

254) 正陽이란 말은 원래 平氣之年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火平氣年인 升明之紀 조문에서 “升明之紀, 正陽而治”라는 말에서 인용하여 쓴 것이다. 「三因方」에서는 正陽湯의 主治症에 대하여 “治子午之歲, 少陰君火司天, 陽明燥金在泉, 病者關節禁固, 腰痛, 氣鬱熱, 小便淋, 目赤, 心痛, 寒熱更作, 咳喘, 或鼻衄啞咽吐飲, 發黃暈, 喘甚則連小腹而作寒中, 悉主之.”라 하였다.

255) 君火는 직접 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木: 加 茯苓(甘淡平) 車前子(甘寒)
 君火: 加 杏仁(苦微辛微溫) 麻仁(甘平)
 土: 加 荊芥(辛溫) 茵陳蒿(苦微寒)
 相火: 正方
 金: 加 紫蘇子(辛溫)

初之氣에는 寒氣가 성하므로 溫肺시켜 肺氣를 선포하는 升麻와, 苦味로 下氣시켜 肺實을 치료하는 杏仁을 더한다. 二之氣에는 木氣가 성하여 脾가 병이 들므로 甘淡한 味의 茯苓과 車前子를 넣어 濕을 제거하고 三之氣에는 다시 杏仁을 써서 肺氣가 上逆한 것을 내리고 麻仁을 써서 燥熱로 대변이 결한 것을 통하게 한다. 四之氣에는 荊芥, 茵陳蒿를 가하여 風熱을 다스리고, 五之氣에는 相火가 들어오나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正方을 사용하며 終之氣에는 紫蘇子를 넣어 降氣消痰시킨다.

(6) 厥陰司天 - 少陽在泉

數和湯(木平)²⁵⁶⁾

半夏(辛溫), 枳實(苦辛酸微寒), 茯苓(甘淡平), 訶子(苦酸澁溫), 乾薑(辛熱), 橘皮(辛苦溫), 甘草(甘平).

『六元正紀大論』에서는 厥陰之政에 “歲宜以辛調上, 以鹹調下.”라고 하였다. 厥陰의 木氣가 지나치게 성하여 氣가 鬱結되면 안으로 火가 생하면서 脾가 병을 받아 氣行이 저체되어 濕邪가 발생하게 된다. 木克土로 인한 脾가 濕病을 앓는 것이다. 五味子는 氣를 수렴시켜 아래로 내리고 半夏, 枳實, 橘皮는 苦辛한 味로 濕邪를 下之시키며 茯苓은 濕을 아래로 빼낸다. 訶子是 濕으로 인한 설사를 막으며 乾綱,

256) 『三因方』에서는 “治巳亥之歲, 厥陰風木司天, 少陽相火在泉, 病者中熱, 而反右脇下寒, 耳鳴, 淚出, 掉眩, 燥濕相搏, 民病黃腫, 浮腫, 時作瘟癘.”라 하였다.

大棗, 甘草는 溫中補氣하는 역할을 한다. 升明湯과 비교해서는 數和湯은 少陽이 在泉하므로 火가 밖으로 성하지는 않고 안에서 鬱結되어 있는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다.

金: 加 鼠粘子(辛苦寒)²⁵⁷⁾
 水: 加 麥門冬(甘微苦微寒) 山藥(甘溫)
 木: 加 紫菀(苦甘溫)
 君火: 加 澤瀉(甘寒) 山梔仁(苦寒)
 土: 正方
 相火: 正方

厥陰司天의 해에는 전반적으로 陽氣가 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初之氣에는 鼠粘子를 더하여 風熱로 인한 感冒를 다스리며, 二之氣에는 麥門冬, 山藥을 肺脾腎의 陰氣를 補하고 三之氣에는 紫菀을 써서 止咳和痰平喘시키고, 四之氣에는 火氣가 성해지므로 山梔子를 쓰고 澤瀉는 아래로 濕을 빼서 熱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五之氣와 終之氣에는 土氣와 相火가 그다지 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5. 氣味 運用에 쓰인 藥物에 대한 분석

『傷寒論』 및 후대 醫書들에서 사용된 약물들을 五味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傷寒論』의 六淫 處方에 나오는 五味에 대한 분석

(1) 辛味

辛味는 氣를 발산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氣의 생산에 관여하여 陽氣를 생하기도 하며 단지 發散시켜 퍼뜨

257) 牛蒡子の 異名임.

리기도 한다. 辛味의 이러한 작용은 일부의 甘味약들도 가지고 있다. 약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桂枝(辛熱; 辛甘溫)²⁵⁸⁾ : 發散藥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風溼을 다스리는 桂枝湯의 君藥이다. 원래 風溼에는 辛涼한 약을 써야하므로 桂枝만 가지고는 君藥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佐藥으로 보좌해야만 한다. 佐藥으로 쓰이는 芍藥의 서늘한 氣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桂枝는 단순히 氣를 발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血分으로 들어가 陽氣를 補하여 熱을 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약간의 甘味를 가지고 있어 氣를 보충하고 완화시키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다. 五苓散의 경우에는 氣化시켜 밑으로 소변을 내보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麻黃(甘溫; 辛微苦溫) : 桂枝와 같이 대표적인 發散藥으로서 寒溼을 다스리는 麻黃湯의 君藥으로 쓰인다. 傷寒論에서는 麻黃을 甘味라고 하였는데, 甘味는 辛味와 같은 陽味로서 직접적으로 열을 올리기보다는 陽氣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麻黃湯證의 경우에는 내부에 아직 正氣가 실하기 때문에 氣를 발산하려는 흐름만을 원활히 해주면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附子(辛熱; 辛甘熱) : 附子는 熱을 직접 생하는 작용을 하지만 桂枝와 다른 점은 少陰經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桂枝도 心經으로 들어가나 表部 營血의 風邪를 몰아내는 것이고 附子는 더욱 깊은 곳인 少陰으로 들어가서 陽氣를 생하게 하는 것이다. 表證과 裏證을 막론하고 厥證이 올 경우에는 附子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鹽附子를 쓰는데 鹹味의 성질을 이용하여 下焦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吳茱萸(辛熱; 辛苦溫) : 脾胃經으로 들어가

서 陽氣를 生한다. 苦味를 가지고 있어 氣를 내려 嘔逆을 치료하기도 한다.

生薑(辛溫), 乾薑(辛熱) : 모두 氣를 발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生薑은 中氣를 補하는 작용도 가지고 있다. 乾薑은 강한 發散力을 가지고 있어 보통 附子와 같이 짝을 이룬다. 附子가 裏에서 발산시키는 것과 달리 乾薑의 발산은 주로 表에서 이루어진다.

細辛(辛熱; 辛溫) : 心肺로 가서 발산작용을 하며 腎으로 가서 補陽하므로 麻黃附子細辛湯에서 麻黃과 附子를 동시에 돕는 역할을 한다.

半夏(辛溫; 辛溫有毒) : 辛味로 발산시켜 痰을 풀어버리고 溫性으로는 氣를 補하면서 濕을 말린다. 毒이 있는 것이 苦味와 비슷한 작용을 하여 邪氣를 發之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小柴胡湯과 瀉心湯 등에서 쓰인다.

(2) 甘味

甘味는 완화시키는 작용에 의하여 氣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味이다. 그러므로 甘味를 먹으면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된다. 甘味의 발산 효과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甘味의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六淫을 다스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佐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甘味는 자체로 氣를 補益하므로 이를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氣가 정체되어 늘어지게 되고 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甘味에는 그 작용에 따라서 氣를 發散시키는 약, 氣를 補益하는 약, 津液을 생하는 약 등이 포함되며, 淡味도 원래 甘味에 포괄되므로 利水시키면서 火氣를 泄하는 약들도 甘味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각각의 약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甘草(甘平) : 甘味의 대표적이 약물로서 성질이 平하다. 氣의 흐름이 급박해지는 것을 완화시키고 氣를 補益하며 發散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氣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결과적으로 陰火의 발생을 막아 火를 瀉하는 효과가 있다.

258) 두 가지 氣味 중에서 뒷부분의 것은 현대 本草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大棗(甘溫) : 發散力보다는 中氣를 補하는 작용이 강하다.

人蔘(甘溫; 甘微苦微溫) : 脾肺로 들어가 陽氣의 發散을 돕고 苦味로써 氣를 수렴하여 津液을 생성한다. 小柴胡湯에 甘草와 함께 쓰이고 있다.

石膏(甘寒; 辛甘寒) : 熱淫을 다스리는 白虎湯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寒氣와 甘味로 火를 瀉하면서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원래 君藥으로 쓰여야 할 鹹味의 역할을 대신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약간의 辛味를 가지고 있어 行氣시키고 津液을 생성하는 작용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大靑龍湯²⁵⁹⁾ 중에서 麻黃湯證에 다 더하여 내부에 鬱熱이 생겨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龍骨(甘平; 甘澁微寒) : 바로 心으로 들어가서 心火의 熾盛을 緩和시켜 安神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보통 鹹味를 가지고 腎으로 들어가 火를 瀉하는 牡蠣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고 있다.

(3) 酸味

酸味는 熱淫을 다스릴 때 氣를 수렴시킬 목적으로 佐藥으로서 사용되며 燥淫에서도 佐藥으로 사용된다. 酸味는 주로 上焦의 心肺에 작용하여 氣를 수렴하고 津液을 생하므로 안으로 깊숙이 氣를 응축한다고는 할 수 없다. 傷寒論에서는 芍藥과 五味子의 酸味를 사용하고 있다.

芍藥(酸微寒; 苦酸微寒) : 風淫의 처방인 桂枝湯에서 桂枝를 돕는 佐藥으로 사용되고 있다. 苦味와 차가운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收斂 작용이 강하여 津液의 생성뿐만 아니라 熱을

瀉하면서 陰血을 補하는 작용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苦寒한 성질로 인하여 濕淫을 다스리는 眞武湯의 경우 氣를 아래로 강하게 내려 濕을 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五味子(酸溫; 酸甘溫) : 五味子は 芍藥과는 달리 甘溫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上焦의 心肺로 가서 心火를 완화시키며 溫肺하는 작용을 한다. 芍藥보다는 表部로 가서 가장 밖에서부터 氣운을 수렴시켜 들어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小靑龍湯證에서 發熱이 있으면서 氣침이 잦을 때 芍藥과 함께 사용하여 肺氣를 수렴하고 따뜻하게 하여 氣를 補하는 역할을 한다.

(4) 苦味

苦味는 강하게 氣를 응축시키면서 陰形의 邪氣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堅之하여 腎氣를 견고히 하며 下之하여 肺氣를 肅降시키기도 하는 동시에, 熱淫의 경우에 火邪를 發之하기도 하고 濕淫의 경우에 濕邪를 泄내어 燥之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酸味와 같이 氣를 수렴시켜 津液을 생성하는 작용도 한다. 苦味는 氣를 泄하는 힘이 강하므로 오래 사용하면 精氣를 손상시키는 단점이 있다.

杏仁(辛溫; 苦微辛微溫) : 辛味도 있으나 苦味의 역할이 더 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寒淫을 다스리는 麻黃湯에서 佐藥으로 쓰여서 溫肺하는 동시에 降氣시킨다. 肺로 들어가서 苦下之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知母(苦寒; 苦甘寒) : 清熱작용이 있으나 下焦로 내려가 堅之하여 腎氣를 돕고 또한 津液을 생성하여 肺腎을 모두 돕는다²⁶⁰⁾. 津液을 생하여 滋潤하는 작용은 甘味의 역할로서 鹹

259)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41; 麻黃(甘溫), 桂枝(辛熱), 甘草(甘平), 杏仁(苦甘溫), 生薑(甘溫), 大棗(甘溫), 石膏(甘微寒)로 구성되어 있다.

260) 白虎湯에서는 清熱시키고 肺를 滋潤시키는 작용을 한다.

味の 鞭堅하는 작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白朮(苦甘溫) : 苦味로는 燥濕하고 甘溫의 성질은 脾胃를 補하는 작용을 한다. 보통 茯苓과 함께 사용하여 健脾益胃하고 아래로 濕을 빼낸다.

大黃(苦寒) : 熱溼 또는 燥溼을 다스리는 처방에서 燥熱한 邪氣를 응축시켜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결과적으로 陰氣를 기르고 津液도 生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柴胡(苦微寒) : 熱溼을 다스리는 小柴胡湯에서 以苦發之의 작용으로 火邪를 풀어버린다. 또한 寒性이 강하지 않고 서늘하여 表裏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半表半裏의 邪氣를 가볍게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이것이 단순히 清熱시키는 黃芩과의 차이점이다.

黃芩(苦寒) : 柴胡와 마찬가지로 小柴胡湯에서 以苦發之의 작용을 하는데 주로 上焦의 熱을 내린다. 성질이 寒하여 柴胡보다는 清熱의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枳實(苦寒; 苦辛酸微寒) : 邪氣를 밖으로 강하게 내보내는 작용을 하여 燥溼을 다스리는 大承氣湯에서 燥熱한 邪氣를 아래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枳實과 厚朴이 들어가야 비로소 아래로 내보내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酸味는 氣를 수렴하며 辛味는 行氣시키는 작용을 한다. 四逆散에서도 熱邪를 아래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厚朴(苦溫; 苦辛溫) : 厚朴도 枳實과 마찬가지로 苦味로써 行氣하는 작용이 있으나 성질이 溫하여 枳實처럼 아래로 강하게 내리지는 않는다. 또한, 溫中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어서 枳實보다는 補瀉를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括蕤根(苦寒) : 苦味로 氣를 수렴하여 津液을 생성한다. 酸味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5) 鹹味

鹹味の 稟堅하는 작용은 燥熱로 인하여 경직된 氣行을 풀어서 熱을 내리고 陰液을 보충

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내부에 陽氣를 함축하고 있어 일부 精氣의 氣化를 돕는 작용도 가지고 있다²⁶¹⁾. 氣를 完화시키는 작용은 甘味와 비슷하며, 下焦로 내려가 腎氣를 도와 氣를 소통시킨다는 점에서는 淡味와 비슷하다. 酸味도 氣를 수렴시킨다는 점에서는 鹹味와 비슷하나 酸味는 비교적 表에서 작용하고 鹹味는 裏에서 작용한다.

芒硝(鹹苦大寒) : 熱溼과 燥溼을 다스리는 承氣湯類에서 君藥의 역할을 담당하여 鞭堅하고 除熱하는 작용을 한다. 歸經은 胃와 大腸이다.

牡蠣(鹹寒; 鹹微寒) : 下焦로 들어가서 肝腎의 陽氣가 지나치게 성해진 것을 잠재우는 작용을 하는데, 心으로 가서 心火의 熾盛을 잠재우는 龍骨(甘澁微寒)과 더불어 少陰의 火를 잠재운다.

澤瀉(酸鹹; 甘寒) : 澤瀉는 鹹味와 酸味를 가지고 있으나 강하지 않고 그 작용으로 보아 淡味에 속할 수도 있다. 下焦의 腎, 膀胱으로 가서 利水滲濕하는 작용을 한다.

(6) 淡味

淡味는 약간의 甘味 또는 鹹味를 띠고 있는 것이며 四氣는 平하다. 濕溼이 성한 경우에 주로 下焦의 濕邪를 제거하는데 쓰인다. 『內經』의 濕淫於內(在泉의 경우)에서 在泉에 濕이 성하여 下焦로 가므로 淡味를 써서 水濕을 빼고 있는 것이다. 五苓散 등에서 利水 작용을 하는 茯苓, 豬苓 등이 여기에 속하며 澤瀉도 淡味에 포함될 수 있다.

茯苓, 豬苓(甘平; 甘淡平) : 濕溼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下焦에 水濕이 성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五苓散, 豬苓湯, 眞武湯 등에서 주로 쓰인다.

261) 鹿茸(甘鹹溫)이 여기에 해당한다.

2) 後代 醫書의 五臟補瀉法에 대한 분석

『傷寒論』 이후 후대로 내려오면서 「藏氣法時論」의 五味補瀉法과 所欲, 所苦에 대한 五味 運用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물들이 제시되었다. 그 시작은 張元素²⁶²⁾의 『珍珠囊』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은 큰 변화 없이 王好古²⁶³⁾의 『湯液本草』로 이어졌고 다시 『東醫寶鑑』의 「五臟六腑」, 『本草綱目』²⁶⁴⁾의 「五臟五味補瀉」 등에 기재되었다. 물론 方劑 연구의 흐름은 運氣學 분야와는 다르게 전개되었으나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사용된 구체적인 약물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우선 『珍珠囊』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珍珠囊』 中 「五臟主治藥象」

肝苦急, 甘以緩之, 甘草. 肝欲散, 以辛者²⁶⁵⁾, 川芎. 補以辛者, 細辛. 瀉以酸者, 白芍藥²⁶⁶⁾267).

- 262) 12세기 金代의 醫家로서 字는 潔古. 易州人으로 本草, 方劑 연구에 노력하여 『醫學啓源』, 『珍珠囊』, 『臟腑標本用藥式』, 『藥注難經』 등의 책을 지었으며 그의 학설은 李杲로 전해졌다.
- 263) 13세기 元代의 醫家로서 號가 海藏. 趙州人으로 李杲로부터 醫學을 전수받았으며 『湯液本草』, 『醫壘元戎』, 『此事難知』 등의 많은 책을 남겼다.
- 264) 明代 李時珍의 撰으로 1590년에 간행되었다.
- 265) 五臟所欲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味와 補法에 사용하는 味를 분리한 것이 특징으로, 대체적으로 前者는 裏를 後者는 表를 다스리는 경향이 있다.
- 266) 王好古의 『湯液本草』에는 芍藥으로만 되어 있으며, 李時珍의 『本草綱目』에는 赤芍藥으로 되어 있다.
- 267) 『東醫寶鑑』에는 肝病治法에 대하여 “肝苦急急甘以緩之, 甘草, 宜食粳米牛肉棗葵. 註曰肝苦急, 是其氣有餘也, 肝欲散急食辛以散之, 川芎, 肝虛以生薑陳皮之類補之.”라고 하였다.

心苦緩, 酸以收之, 五味子. 心欲軟, 以鹹者, 芒硝. 補以鹹者, 澤瀉. 瀉以甘者, 人參, 甘草, 黃芪²⁶⁸⁾.

脾苦濕, 苦以燥之, 白朮. 脾欲緩, 以甘者, 甘草²⁶⁹⁾. 補以甘者, 人參. 瀉以苦者, 黃連²⁷⁰⁾.

肺苦氣上逆, 苦以泄之²⁷¹⁾, 黃芩²⁷²⁾. 肺欲收, 以酸者, 白芍藥. 補以酸者, 五味子. 瀉以辛者, 桑白皮²⁷³⁾.

腎苦燥, 辛以潤之, 知母, 黃蘗²⁷⁴⁾. 腎欲堅, 以苦者, 知母. 補以苦者, 黃蘗. 瀉以鹹者, 澤瀉²⁷⁵⁾.

『珍珠囊』 中 「五臟補瀉」

「肝」

虛以陳皮生薑之類補之, 經曰, 虛則補其母. 水能生木, 腎乃肝之母, 腎水也, 肝木也, 若以補腎, 熟地黃, 黃蘗, 是也. 如無他證, 惟補不足, 錢氏地黃丸²⁷⁶⁾主

- 268) 『東醫寶鑑』에는 心病治法에 대하여 “心苦緩, 宜五味子, 又心虛以炒鹽補之, 心欲熅, 宜芒硝補之, 甘草瀉之, 是心氣實也.”라고 하였다.
- 269) 『本草綱目』에는 炙甘草로 되어 있음.
- 270) 『東醫寶鑑』에는 脾病治法에 대하여 “脾苦濕, 是有餘, 宜白朮. 脾欲緩, 是不足, 宜甘草. 以甘補之, 人參. 以苦瀉之, 黃連. 脾虛以甘草大棗之類補之, 脾實以枳實瀉之. 脾虛宜用益黃散, 補脾湯. 脾實宜用瀉黃散, 調胃承氣湯.”이라고 하였다.
- 271) 『湯液本草』에는 “苦以瀉之”로 되어 있음.
- 272) 『湯液本草』에서는 “訶子皮, 一作黃芩.”라 하였고, 『本草綱目』에는 訶子로 되어 있음.
- 273) 『東醫寶鑑』에는 肺病治法에 대하여 “肺苦氣上逆, 宜訶子皮, 一作黃芩. 肺欲收, 宜白芍藥. 以酸補, 宜五味子. 以辛瀉, 宜桑白皮.”라고 하였다.
- 274) 『湯液本草』에는 “知母, 黃蘗.”으로 되어 있으며, 『本草綱目』에도 “黃蘗, 知母”로 되어 있음.
- 275) 『東醫寶鑑』에는 腎病治法에 대하여 “腎苦燥, 宜知母, 黃栢. 腎欲堅, 宜知母. 補以黃栢, 瀉以澤瀉, 又曰腎虛, 宜熟地黃.”라고 하였다.
- 276) 錢乙,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47; 地黃圓, 治腎怯失音, 顛開不合, 神不足, 目中白睛多, 面色白白光等

之。實則白芍藥²⁷⁷瀉之。如無他證，錢氏瀉青丸²⁷⁸主之。實則瀉其子，心乃肝之子，以甘草瀉心湯²⁷⁹主之。

「心」

虛以炒鹽補之，虛則補其母，木能生火，肝乃心之母，肝木也，心火也，以生薑補肝。如無他證，錢氏安神丸²⁸⁰主之。實則甘草瀉之。如無他證，錢氏方中，重則瀉心湯²⁸¹，輕則導赤散²⁸²。

- 方。熟地黃(八錢)，山茱肉，乾山藥(各四錢)，澤瀉，牡丹皮，白茯苓(去皮，各三錢)，上為末，煉蜜圓，如梧子大，空心，溫水化下三圓。
- 277) 「本草綱目」에는 甘草로 되어 있다. 實則瀉其子の 의미로서 心을 瀉하기 위하여 甘味를 쓴 것이다.
- 278) 錢乙,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47 ; 瀉青圓, 治肝熱搐搦, 脈洪實. 當歸(去蘆頭切焙稱), 龍腦(焙稱), 川芎, 山梔子仁, 川大黃(濕紙裹煨), 羌活, 防風(去蘆頭切焙稱), 上件等分爲末, 煉蜜和圓, (鶴)頭大, 每服半圓至一圓, 煎竹葉湯同沙糖溫水化下.
- 279)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06 ; 甘草(甘平), 黃芩(苦寒), 乾薑(辛熱), 半夏(辛平), 黃連(苦寒), 大黃(苦寒)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80) 錢乙,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50 ; 安神圓, 治面黃頰赤, 身壯熱, 補心. 一治心虛肝熱, 神思恍惚. 馬牙硝(五錢), 白茯苓(五錢), 麥門冬(五錢), 乾山藥(五錢), 龍腦(一字研), 寒水石(五錢研), 朱砂(一兩研), 甘草(五錢), 上末之, 煉蜜爲圓, 鶴頭大, 每服半圓, 沙糖水化下, 無時.
- 281) 錢乙,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51 ; 瀉心湯, 治小兒心氣實, 則氣上下行澁, 合臥則氣不得通, 故喜仰臥, 則氣上下通. 黃連(一兩去鬚), 上爲末, 每服五分, 臨臥取溫水化下.
- 282) 錢乙,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48 ; 導赤散, 治小兒心熱, 視其睡, 口中氣溫, 或合面睡, 及上(竅)咬牙, 皆心熱也. 心氣熱則心胸亦熱, 欲言不能, 而有就冷之意, 故合面睡. 生地黃, 甘草(生), 木通(各等分), 上同爲末, 每服三錢, 水一盞, 入竹葉同煎至五分, 食後溫服, 一本不用甘草, 用黃芩,

「脾」

虛則以甘草大棗之類補之，如無他證，錢氏益黃散²⁸³主之。心乃脾之母，以炒鹽補心，實則以枳實瀉之。如無他證，以瀉黃散²⁸⁴瀉之。肺乃脾之子，以桑白皮瀉肺。

「肺」

虛則，五味子補之。如無他證，錢氏阿膠散²⁸⁵補之。虛則補其母，以甘草²⁸⁶補脾土，實則桑白皮瀉之。如無他證，以錢氏瀉白散²⁸⁷瀉之。實則瀉其子，以澤瀉瀉腎水。

「腎」

虛則，熟地黃，黃蘗補之。實則以澤瀉瀉之。腎本無實不可瀉，錢氏止有所謂補腎地黃丸，無瀉腎之藥²⁸⁸，肺乃腎之母，金生水也，以五味子補肺而已。

- 283) 錢乙,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48 ; 益黃散, 又名補脾散. 治脾胃虛弱及治脾疳, 腹大, 身瘦. 眞皮(去白一兩), 丁香(二錢, 一方用木香), 訶子(炮去核), 青皮(去白), 甘草(炙各五錢), 上爲末, 三歲兒一錢半, 水半盞, 煎三分, 食前服.
- 284) 錢乙,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49 ; 瀉黃散, 又名瀉脾散. 治脾熱弄舌. 藿香葉(七錢), 山梔子仁(一錢), 石膏(五錢), 甘草(三兩), 防風(四兩去蘆切焙), 上剉, 同蜜酒微炒香爲細末, 每服一錢至二錢, 水一盞, 煎至五分, 溫服, 清汁, 無時.
- 285) 錢乙,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48 ; 阿膠散, 又名補肺散. 治小兒肺虛氣粗喘促. 阿膠(一兩五錢麩炒), 黍粘子(炒香), 甘草(炙各二錢五分), 馬兜鈴(五錢焙), 杏仁(七個去皮尖炒), 糯米(一兩炒), 上爲末, 每服一二錢, 水一盞, 煎至六分, 食後溫服.
- 286) 「本草綱目」에는 五味子로 되어 있다.
- 287) 錢乙,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48 ; 瀉白散, 又名瀉肺散. 治小兒肺盛氣急喘嗽. 地骨皮, 桑白皮(炒各一兩), 甘草(炙一錢), 上剉散, 入梗米一撮, 水二小盞, 煎七分, 食前服.
- 288) 「本草綱目」에서는 “實則瀉子, 芍藥”이라고 되어 있다.

以上五臟補瀉，內經藏氣法時論中，言之，欲究其精詳，精觀本論。

위에서 「五臟補瀉」의 내용은 五臟의 虛實에 따라 각각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어 「藏氣法時論」의 五味補瀉法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부의 單味 運用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이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된 약물들과 「藏氣法時論」에 나오는 음식들을 다시 五味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酸味

白芍藥(苦酸微寒)²⁸⁹⁾ : 酸味로서 肝을 瀉할 때 사용된다. 또한, 肺가 收斂하고자 할 때 수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 補하는 작용은 없다. 肺를 補하는 약물인 五味子와는 차이가 있다. 肝의 虛實補瀉에서도 역시 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實則瀉其子의 원칙에 의하여 腎을 瀉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으나, 腎은 근본적으로 瀉法을 피해야 하므로 芍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五味子(酸甘溫) : 心이 늘어지려고 할 때 기운을 수렴하여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肺氣가 上逆하여 수렴되지 않을 때에도 五味子を 써서 肺를 補하게 된다. 腎이 虛할 때에도 虛則補其母의 원칙에 의하여 肺를 補한다.

小豆, 犬肉, 李, 韭(皆酸) : 「藏氣法時論」에서 “心色赤, 宜食酸, 小豆犬肉李韭皆酸.”라 하여 酸味를 갖는 음식들을 心이 늘어지려 할 때 먹도록 하였다.

(2) 苦味

白朮(苦甘溫) : 脾에 濕邪가 있을 때 燥之하는 역할을 한다.

黃連(苦寒) : 脾에 濕邪가 있을 때 苦味로서

瀉하는 역할을 한다.

黃芩(苦寒) : 肺氣가 上逆했을 때 苦味로서 泄之하는 역할을 한다.

知母(苦甘寒), 黃柏(苦寒) : “腎苦燥, 辛以潤之.”에 쓰이고 있으나 원래 辛味는 아니다. 여기서는 補하는 작용을 증시한 것으로 보인다. 知母는 腎을 堅之하는 작용이 있으며 補할 때에는 黃柏을 쓴다. 肝이 虛할 때에는 虛則補其母의 원칙에 따라 腎을 補하기 위하여 熟地黃을 黃柏과 함께 쓴다.

熟地黃(甘微溫) : 熟地黃은 苦味는 아니나 苦味와 함께 腎을 補하는데 쓰인다. 生地黃(甘苦寒)은 약간의 苦味를 가지고 있어 堅之하는 작용을 한다.

麥, 羊肉, 杏, 薤(皆苦) : 「藏氣法時論」에서 “肺色白, 宜食苦, 麥羊肉杏薤皆苦.”이라 하여 肺氣가 上逆하였을 때 苦味를 띄는 음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3) 甘味

甘草(甘平) : 肝苦急일 경우에 急食甘以緩之할 때, 또는 肝實일 경우 實則瀉其子의 원칙에 의하여 心을 瀉하거나 心 자체가 實할 때, 脾欲緩의 경우 急食甘以緩之할 때, 肺虛일 경우 虛則補其母의 원칙에 따라 脾를 補할 때 등의 여러 경우에 甘味로서 甘草를 쓴다.

大棗(甘溫) : 脾虛일 경우 甘草와 함께 補脾한다.

人蔘(微苦微溫), 黃芪(甘溫) : 心에 鬱滯된 氣를 瀉하는 작용을 하며 특히 人蔘은 脾를 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粳米, 牛肉, 棗, 葵(皆甘) : 「東醫寶鑑」에도 肝病治法 부분에 「藏氣法時論」과 같은 내용이 나오며 모두가 脾를 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4) 辛味

川芎(辛溫) : 肝欲散하였을 때, 辛味の 發散

289) 현대 本草學에서 규정한 氣味를 기준으로 하였음.

성질을 이용하여 血을 돌려줌으로써 간접적으로 肝을 補하고 있다.

細辛(辛溫) : 氣를 表로 發散시킴으로써 肝을 補하고 있다.

桑白皮(甘寒) : 肺苦氣上逆하였을 때, 肺의 氣를 발산시켜 瀉하는 작용을 한다.

陳皮(辛苦溫), 生薑(辛溫) : 腎이 虛하여서 燥가 발생할 때, 辛味로서 潤之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生薑은 發散 작용이 있어서 肝을 補하게 되는데, 心이 虛할 때 虛則補其母의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知母, 黃柏(皆苦) : 腎苦燥 辛以潤之에 쓴다고 되어 있으나 모두 실제로는 모두 苦味이다. 苦味에 대한 항목을 참고하기 바람.

黃黍, 雞肉, 桃, 葱(皆辛) : 「藏氣法時論」에서 “腎色黑, 宜食辛, 黃黍雞肉桃葱皆辛.”하여 腎이 건조해지려고 할 때 먹으라고 하였다.

(5) 鹹味

芒硝(鹹苦大寒) : 鹹味로써 火를 내려, 心苦緩하였을 때 心을 유연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澤瀉(甘寒) : 鹹味로 心을 補하는데 사용되며, 腎에서 鹹味로 瀉하는데도 역시 사용된다. 肺에서 實則瀉其子の 원칙에 따라 腎을 조금 瀉하여 肺氣를 收斂시키게 한다.

大豆, 豕肉, 栗, 藿(皆鹹) : 「藏氣法時論」에서는 “脾色黃, 宜食鹹, 大豆豕肉栗藿皆鹹.”라고 하여 五味 補瀉法の 구색을 모두 갖추었으나 이 경우에는 음식을 조절하는 평상적인 상황이며 만약에 급한 질병이 오게 된다면 苦味를 써서 濕邪를 몰아내야 할 것이다.

3) 『內經·運氣篇』 方劑에 적용 가능한 藥物

『內經·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한 가지 藥物(單味)만을 제시한 경우와 君藥, 佐藥 등

을 결합하여 온전한 方劑의 形式을 갖춘 경우가 있다. 「五常政大論」에 나오는 太過年, 不及年, 平氣年에서 보이는 木味들은 運氣 變化에 대처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단지 變化 狀態를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六元正紀大論」에 나오는 中運, 司天, 在泉에 대한 氣味 運用에서는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單味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方劑 구성에 있어서 君藥의 역할에 해당된다. 中運은 五臟補瀉法을 따르고 있으며²⁹⁰⁾ 司天, 在泉은 六氣 변화에 따른 특수한 運用法을 사용하고 있다²⁹¹⁾.

온전한 方劑의 형식은 「至眞要大論」의 六淫, 勝復, 反勝 등에서 나타나는데²⁹²⁾ 氣味 運用 방식을 크게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六淫의 경우에 사용되는 氣味 運用 방식인데, 六淫이 運氣 變化로 인한 疾病 發生의 대표적인 要因이므로 이 방식이 실제 運氣學의 질병 치료 방법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五臟瀉法을 기본 틀로 하여 方劑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六氣의 勝復과 反勝에서 사용되는데 이것은 六淫보다는 多發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으

290) 中運은 五行의 原理를 쫓으므로 變化가 심하지 않아 여기에 대처할 때도 太過, 不及에 따라 瀉法과 補法의 일정한 규율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主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 主氣는 氣의 盛衰가 더 전형적으로 나타나므로 補法과 瀉法을 동시에 사용한다.

291) 단순한 補瀉法에서 벗어나 四氣를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변형을 준 방식이다. 「六元正紀大論」의 三陰三陽之政이나 司天, 在泉에서는 한두 가지 藥物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至眞要大論」의 六淫에 대한 氣味 運用에서는 이러한 藥物들을 君藥으로 하여 佐藥 등을 추가하여 方劑 形式을 구성하고 있다. 이 氣味 運用法이 運氣學에서 六氣 變化로 인한 邪氣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方劑 運用法이라 할 수 있다.

292) 「至眞要大論」에서 主氣에 대한 補瀉法은 단지 五味 運用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적인 질병 치료 방법은 六淫, 勝復, 反勝의 경우에 나오는 氣味 運用法이라 할 수 있다.

로 일단 邪氣를 억누르기 위한 瀉法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운용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약물에 대하여 살펴보자.

(1) 六淫에 대해 적용 가능한 藥物

「至眞要大論」의 六淫에 대한 대응 방식은 이미 「六元正紀大論」의 三陰三陽之政과 司天, 在泉의 氣味 運用에서 그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六淫의 氣味 運用法의 특징은 「藏氣法時論」의 五臟苦欲補瀉의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邪氣를 몰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方劑가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六淫이 邪氣 發現의 전형적인 형식으로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실제 치료 상 補瀉法의 원칙보다는 邪氣를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변형을 주었기 때문이다. 六淫 각각의 경우에 사용 가능한 약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風淫

우선 風淫에 사용되는 君藥을 살펴보면, 司天, 在泉 모두 辛涼한 味를 사용하고 있다. 辛未는 陽氣를 發散시키는 補法이며 涼味는 風邪로 인한 熱을 내리는 방법이다. 辛味와 涼味는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약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우선 「傷寒論」의 桂枝湯을 살펴보면 辛味로 桂枝(辛熱)²⁹³, 生薑(辛溫)을 쓰고 있으며 涼味로는 芍藥(酸微寒)을 쓰고 있다. 그밖에 表裏로 나누어 보았을 때 桂枝湯은 表의 風邪를 없애는 처방인데, 裏의 경우에는 尹吉榮은 薄荷(辛涼)를 제시하였다²⁹⁴. 그밖에

風淫에 사용 가능한 辛味로는 細辛(辛熱), 附子(辛熱), 吳茱萸(辛熱), 乾薑(辛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附子, 吳茱萸는 裏로 들어가 陽氣를 發散시킨다. 또한, 「珍珠囊」에서는 肝欲散에 쓰는 辛味로 川芎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肝氣를 發散하여 行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三因方」의 數和湯에서는 半夏(辛溫), 乾薑(辛熱), 五味子(酸甘溫), 枳實(苦辛酸微寒) 등을 사용하고 있다.

佐藥으로는 收斂을 위한 苦味와 緩急을 위한 甘味를 사용하는데, 桂枝湯의 芍藥²⁹⁵도 약간의 苦味를 가지고 있으므로 佐藥에 해당되며²⁹⁶ 甘味로는 甘草(甘平)를 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시된 以甘緩之, 以辛散之, 以酸瀉之 등의 運用法에서는 역시 甘草, 細辛²⁹⁷, 芍藥 등을 쓸 수 있다²⁹⁸.

② 熱淫, 火淫

君藥으로는 熨堅하는 鹹味를 사용하는데 收斂시키는 酸味를 쓰기도 한다. 「傷寒論」에서 鹹味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은 芒硝(鹹苦大寒), 牡蠣(鹹寒), 澤瀉(酸鹹)²⁹⁹ 등이 있는데 芒硝와 牡蠣는 각각 胃, 大腸과 肝, 心の 熱을 내리며 澤瀉는 利水滲濕의 결과로 간접적으로 熱을 내린다³⁰⁰. 大黃(苦寒)은 芒硝와 함께 承氣湯類에 사용되는데 이것은 추가적 用法인 以苦發之의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³⁰¹. 小柴胡

293) 「傷寒論」에 기재된 氣味를 기준으로 한 것임.
294)尹吉榮은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서울, 성보사, 1983)에서 「至眞要大論」의 六淫, 勝復, 反勝에 대한 氣味 運用에 구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本草와 方劑를 제시하였다. 팔호 안에 표기된 氣味는 「東醫學의 方法論研究」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295) 현대 本草學에서는 芍藥의 氣味를 苦酸微寒이라 하였다.
296)尹吉榮은 佐藥의 苦味가 燥濕하는 것으로 보아 司天과 在泉에 각각 白朮과 草龍膽을 제시하였다.
297) 「珍珠囊」에서 肝欲酸에 「補以酸者, 細辛.”이라 하였다.
298)尹吉榮은 辛味로 荊芥를 들었다.
299) 「傷寒論」과 「珍珠囊」에서는 모두 鹹味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현대 本草學에서는 氣味를 甘寒으로 보고 있다.
300)尹吉榮은 鹹味로서 玄蓼(鹹寒), 犀角(鹹冷) 등을 들었다.
301)苦寒한 약물로는 知母(苦寒), 大黃(苦寒), 柴胡

湯의 柴胡(苦微寒)도 苦味를 이용하여 熱을 내리는데 承氣湯이 裏熱을 다스리는 반면에 小柴胡湯은 表熱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다³⁰². 또한 五味에 관계없이 寒性이 강한 味를 사용하여 熱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石膏(甘寒)를 사용한 白虎湯이 여기에 해당되며 知母(苦寒)도 같이 사용되어 以苦發之의 작용을 하고 있다. 『傷寒論』에서 酸味가 君藥으로 사용된 예는 없으나 四逆散에서 芍藥(酸微寒)이 柴胡, 枳實(苦寒)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珍珠囊』에서는 心苦緩에서 以酸收之의 방법으로 五味자를 예로 들었다. 또한 『三因方』에서는 少陽司天의 升明湯에서 酸棗仁(甘酸平)을, 少陰司天의 正陽湯에서는 白薇(苦鹹寒), 玄蔘(甘苦鹹寒)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佐藥에서 甘味를 瀉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珍珠囊』에서는 心欲熨에 甘味로 人蔘, 甘草, 黃芪를 들고 있다. 또한 佐藥으로 辛味를 쓰기도 하는데 『傷寒論』의 熱淫 처방에서 桂枝, 乾薑, 生薑 등이 두루 쓰이고 있다.

③ 濕淫

君藥으로 苦熱의 味를 사용하는데 燥濕 작용이 있는 苦味로는 白朮(苦甘溫)을 들 수 있다³⁰³. 또한 熱藥으로는 五苓散에서는 桂枝(辛熱), 眞武湯에서는 附子(辛熱)를 사용하고 있다.

佐藥으로는 淡味, 酸味, 辛味를 사용하는데 酸味는 氣를 收斂하여 熱을 내림으로써 濕熱의 발생을 막고 辛味와 淡味는 각각 濕邪를 上下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五苓散의 澤瀉(酸鹹)와 眞武湯의 芍藥(酸平)이 淡味の 滲泄 작용³⁰⁴과 酸味の 收斂 작용 이용

한 경우이다. 또한 佐藥의 辛味로는 半夏(辛溫)를 사용할 수 있으며 尹吉榮은 羌活을 예로 들었다. 濕熱에 佐藥으로 사용하는 甘味(補法)로는 甘草를 사용할 수 있다. 『珍珠囊』에서는 脾에 대한 補法으로 人蔘, 甘草를 사용하며 瀉法으로는 黃連(苦寒)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④ 燥淫

燥淫의 경우에 苦溫한 味를 君藥으로 사용하여 下氣하면서 淸氣를 없애는데 在泉의 경우에 補法으로 酸味를 사용할 수도 있다. 『珍珠囊』에서는 苦味로서 黃連을 사용하였으며 酸味로는 芍藥, 五味자를 사용하였고 瀉法으로는 桑白皮를 사용하였다. 黃連은 苦寒하여 單味로 사용하기 힘들므로³⁰⁵ 尹吉榮은 柴胡(苦平)과 半夏(苦溫)의 合用을 君藥으로 제시하였으며 處方으로는 小柴胡湯을 예로 들었다.

『傷寒論』에서는 津液不足으로 인한 大便燥結을 치료하는 大承氣湯을 예로 들었으나 肺氣를 내리는 작용이 없으므로 적절한 예로 보기는 힘들다. 『三因方』에서는 審平湯에서 苦味와 酸味로서 遠志(苦辛微溫), 白朮(苦甘溫), 芍藥(苦酸微寒) 등을 사용하였다.

佐藥으로는 酸味로 補하며 辛味로 瀉하고 甘味로 在泉에 陽氣를 補하는데 芍藥, 甘草, 半夏 등을 쓸 수 있다.

⑤ 寒淫

寒淫의 경우 君藥으로서 司天에는 表邪를 내보내기 위하여 辛熱한 약을 쓰며 在泉에는 陽氣를 보충하기 위하여 甘熱한 약을 쓰는데 서로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傷寒論』

(苦微寒), 黃芩(苦寒), 枳實(苦寒) 등을 들 수 있다.

302) 柴胡桂枝乾薑湯도 이와 비슷하다.

303) 『珍珠囊』에서 脾苦濕에 苦以燥之로서 白朮을 들었으며 『傷寒論』의 五苓散, 眞武湯 등에서도 白朮을 사용하고 있다. 尹吉榮은 司天에서는 蒼朮을, 在泉에서는 白朮을 들었다.

304) 澤瀉는 『傷寒論』에서 酸鹹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鹹味가 바로 澤瀉의 利水滲濕의 작용을 표현한 것이다. 淡味는 약간의 甘味, 鹹味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305) 苦溫의 味로 肺氣를 下之시키는 약물로는 杏仁(辛溫)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杏仁이 약간의 苦味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에서는 桂枝(辛熱), 麻黃(甘溫), 乾薑(辛熱), 附子(辛大熱), 細辛(辛熱), 人蔘(甘溫) 등을 사용하였으며, 『三因方』에서는 太陽司天의 경우에 靜順湯에서 附子(辛甘熱)³⁰⁶⁾, 乾薑(辛熱)을 사용하고 있다.

佐藥으로는 辛甘 외에 苦味가 堅之, 燥之의 작용으로 사용되었는데 尹吉榮은 芍藥, 白朮을 예로 들었다. 추가 用法 중에는 以鹹瀉之가 있는데 尹吉榮은 牡蠣, 澤瀉를 예로 들었다.

(2) 五臟瀉法에 적용 가능한 藥物

五臟瀉法은 五運이 太過할 경우, 六氣의 勝復과 反勝에서 사용되고 있다. 勝氣의 경우에는 相克의 本味를 君藥으로 사용하고 나서 추가적 用法으로서 瀉法을 쓰고 있으며, 復氣의 경우에는 六淫의 氣味 運用法과 비슷하게 변형된 瀉法을 사용하고 있다³⁰⁷⁾. 反勝에서는 在泉의 경우에 補法을 추가 用法으로 병행하고 있다³⁰⁸⁾. 五臟瀉法에 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약물들을 살펴보자.

① 木氣에 대한 瀉法

주로 酸味를 사용하게 된다. 『傷寒論』의 桂枝湯에서는 酸味로 芍藥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醫家들도 芍藥을 以酸瀉之의 대표적인 약물로 보았다. 『珍珠囊』에서도 肝欲散에 芍藥으로 瀉하라고 하였으며, 尹吉榮도 反勝과 勝復에서 芍藥을 대표 약물로 들었다. 木運太過의 경우에도 『三因方』에서는 牛膝木瓜湯

(金運太過), 菴蓉牛膝湯(木運不及) 등의 처방에서³⁰⁹⁾ 牛膝(苦酸平), 木瓜(酸溫), 芍藥(苦酸微寒), 肉菴蓉(甘酸鹹溫) 등을 사용하여 芍藥이 포함되어 있다.

佐藥으로는 辛味(補之), 甘味(緩之), 苦味(堅之, 燥之)가 사용되는데 桂枝, 生薑, 甘草, 大棗, 白朮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熱氣, 火氣에 대한 瀉法

주로 甘味를 사용하며 復氣의 경우에는 六淫 用法과 비슷하게 鹹味를 사용하고 있다.

『傷寒論』에서는 甘味로 石膏(甘寒), 粳米(甘平), 甘草(甘平), 人蔘(甘溫)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珍珠囊』에서는 心欲栗에 대한 瀉法으로 人蔘, 甘草, 黃芪를 들고 있다. 이 밖에 尹吉榮은 상황에 따라 茯苓(甘淡平), 生地黃(甘寒) 등을 사용하였다. 火運太過의 경우에 『三因方』의 川連茯苓湯(水運太過), 黃芪茯神湯(火運不及) 등의 처방에서 茯苓(甘淡平), 麥門冬(甘微苦微寒), 車前子(甘寒), 通草(甘淡微寒), 甘草(甘平), 黃芪(甘溫), 茯神(甘淡平), 紫河車(甘鹹溫), 酸棗仁(甘酸平) 등 甘味를 多用하고 있다. 또한, 鹹味로는 尹吉榮은 犀角(鹹冷)을 제시하였다.

佐藥으로는 苦味(發之, 泄之, 下之), 辛味(發之), 甘味(瀉之), 酸味(補之) 등이 사용되는데 黃芩, 柴胡, 枳實, 桂枝, 乾薑, 半夏, 人蔘, 甘草, 芍藥 등을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③ 土氣에 대한 瀉法

주로 苦味를 사용하여 燥濕한다. 일반적으로 白朮을 사용할 수 있으며 尹吉榮은 茵陳도

306) 현대 本草學에서 정한 氣味를 표기하였다.

307) 君藥이 변형되었으며 六淫 用法과 유사한 여러 가지 추가 用法들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五臟瀉法과 六淫 用法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308) 六氣의 發現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太過한 것이 不及한 경우보다 문제가 되므로 瀉法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補法은 瀉法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쓰인 것이다. 主氣의 五味 運用에서 先瀉後補라 한 것이 이러한 의미이다.

309) 『三因方』의 처방은 五行 相克을 받아서 병이 든 臟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五臟瀉法은 오히려 五運不及에서 사용되는 處方과 구성이 유사하다. 즉, 瀉法과 補法을 하나의 처방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五運太過와 五運不及의 氣味 운용이 비슷한 것이다.

함께 제시하였다. 土運太過의 경우에 『三因方』의 蒼朮湯(木運太過), 白朮厚朴湯(土運不及) 등의 처방에서는 白朮 이외에 苦味로서 厚朴(苦辛溫), 靑皮(苦辛微溫)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珍珠囊』에서는 脾欲緩에서 瀉法으로 黃連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佐藥으로는 苦味를 써서 燥之하거나 辛味, 甘味를 써서 陽氣를 發揚시켜 燥濕하거나 酸味, 鹹味를 써서 濕熱을 방지하는 味를 사용하는데, 白朮, 桂枝, 乾薑, 附子, 芍藥, 澤瀉 등의 약물을 쓸 수 있다.

④ 金氣에 대한 瀉法

辛味를 사용하는데, 『三因方』의 麥門冬湯(火運太過), 紫菀湯(金運不及) 등의 처방에서는 白芷(辛溫)를 사용하여 肺氣를 宣布시키고 있다. 尹吉榮은 辛寒으로는 石膏를, 辛溫으로는 半夏를 제시하였다. 辛味の 사용이 적은 이유는 金氣는 高揚되기보다는 收斂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酸味, 苦味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燥司于地에서 平寒의 味를 사용하는 것과 陽明之復에서 酸味로 補하는 것이 이러한 때문이다. 『珍珠囊』에서는 肺欲收에 瀉以辛者로서 桑白皮³¹⁰⁾를 쓰라고 하였다.

佐藥으로는 收斂과 補陰을 위한 苦味를 주로 사용하며 潤肺, 宣肺를 위한 辛味, 甘味도 사용한다. 『三因方』의 麥門冬湯(火運太過)과 紫菀湯(金運不及)은 대부분 이러한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³¹¹⁾.

310) 현대 本草學에서는 氣味를 甘寒으로 규정하였다.

311) 麥門冬湯 : 麥門冬(甘微苦微寒), 白芷(辛溫), 半夏(辛溫), 竹葉(辛苦寒), 甘草(甘平), 鐘乳粉(甘溫), 桑白皮(甘寒), 紫菀(苦甘溫), 人蔘(甘微苦微溫). 紫菀湯 : 紫菀(苦甘溫), 白芷(辛溫), 人蔘(甘微苦微溫), 甘草(甘平), 黃芪(甘溫), 地骨皮(甘寒), 杏仁(苦微辛微溫), 桑白皮(甘寒).

⑤ 水氣에 대한 瀉法

稟堅의 鹹味를 사용하는데 氣운이 지나치게 凝縮되어 潛藏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³¹²⁾. 『三因方』의 五味子湯(水運不及)에서는 鹹味로서 鹿茸(甘鹹溫)을 사용하고 있으며 『珍珠囊』에서는 腎欲堅에서 瀉以鹹者로서 澤瀉를 사용하고 있다. 尹吉榮은 鹹味가 清熱 작용을 가진 것으로 보아 犀角, 芒硝, 牡蠣 등을 제시하였다.

佐藥으로는 陽氣를 補充하고 發散시키는 甘味, 辛味와 氣운을 收斂시켜 固密하게 하는 酸味, 苦味 등을 사용하는데 『三因方』에서는 附子, 藿香 등과 山茱萸, 五味子, 烏梅 등을 사용하였다. 尹吉榮은 司天反勝에서는 大黃, 枳實, 厚朴을, 在泉反勝에서는 生地黃, 牧丹皮를, 勝復에서는 芍藥을 예로 들었다.

III. 結 論

1. 『素問·藏氣法時論』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그 五味 運用 방법은 五臟이 外部의 영향을 받아서 괴로움을 받고 있거나 또는 五臟이 하고자 하는 氣의 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리적인 상황 속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酸苦甘辛鹹의 순서대로 五行에 배속되어 五臟의 精氣를 길러주는 本味の 運用과는 차이가 있다. 『藏氣法時論』의 내용 중 五臟所苦에 대한 五味 運用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五臟이 겪는 어려움에 대처해나가는 것이며, 五臟所欲의 경우에는 補法과 瀉法을 갖추어 五臟의 氣行을 돕거나 억제, 조절하는 것이다. 단, 瀉法은 五臟의 所欲을 억제하지만 補法과 어울려 궁극적으로는 五臟의 기능을

312) 腎水의 陽氣를 發揚시키는 것으로 鹹味가 陽氣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우며 五臟의 本味에도 가까워서 內部的 精氣를 돕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

2. 『內經·運氣篇』에서 五運의 太過, 不及, 平氣에 따른 五味 運用은 五行의 本味를 쫓아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五運의 영향을 받아 萬物이 化生할 때에는 五行의 本性을 쫓아서 그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平氣의 경우에는 자신의 本味만 드러나며 太過, 不及의 경우에는 相克 관계의 味들이 함께 나타난다.

3. 五運의 太過, 不及으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五味를 운용할 경우에, 運太過에는 五臟瀉法을 쓰고 運不及에는 五臟補法을 쓴다. 또한, 四氣에 있어서는 四時 變化의 원리에 따라서 木運에는 涼藥, 火運에는 寒藥, 土運에는 溫藥 또는 熱藥, 金運에는 溫藥, 水運에는 熱藥을 쓰는 것이 원칙이며 단, 運不及일 때는 대체적으로 和平한 氣의 藥을 사용한다.

4. 六氣는 外部的으로 氣의 형태로서 그 盛衰가 드러나므로 五運에 비하여 영향력이 크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심하다. 그러므로 五臟補法과 五臟瀉法을 함께 사용하여 적절히 대처하게 된다. 六氣 중 主氣는 四時 五行의 변화를 그대로 따르므로 五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補法과 瀉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客氣는 主氣보다는 變化의 양상이 매우 심하므로 『藏氣法時論』의 所欲의 補瀉法 이외에 임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所苦의 用法까지 사용하게 된다.

5. 客氣 중 司天之氣와 在泉之氣는 한 해의 六氣 變化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미 일정한 時空 속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그 변화가 특정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급하게 邪氣를 몰

아내거나 五臟의 괴로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標治를 하게 되므로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客氣의 五味 運用法에서 벗어나 時空의 차이에 따라 특정한 味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補法, 瀉法, 所苦의 用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 또한, 在泉之氣의 경우에는 司天之氣보다 세력이 약하므로 주로 補法을 사용하여 五味를 運用하게 된다.

6. 「至真要大論」에 나오는 司天, 在泉의 六淫, 勝復, 反勝의 경우는 일반적인 客氣의 盛衰보다 그 세력이 강하면서 變化가 심하므로 君藥 이외에 佐藥과 추가 用法들을 조합하여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대처하게 된다. 佐藥과 이어서 나오는 추가적 用法의 味들도 「藏氣法時論」에 나오는 五臟의 氣行을 조절하는 五味로 구성되는데, 서로 부족한 作用을 보충하기도 하며 억제, 조절하기도 하여 君臣佐使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傷寒論』에 나오는 주요 方劑의 구성과 그에 대한 成無己의 注를 살펴본 결과 『內經·運氣篇』의 氣味 運用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運氣篇」의 氣味 운용이 실제 임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內經』에서는 단순히 五味로서 약물을 표현하였으나 『傷寒論』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같은 味 안에서도 작용하는 부위나 효능의 차이에 의하여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三因方」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五運의 太過에는 邪氣를 없애거나 氣의 鬱滯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方劑를 구성한 반면에 不及의 경우에는 五臟의 精氣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方劑를 구성하고 있어, 『內經』의 補瀉法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六氣의 경우에도 司天, 在泉끼리 짝을 이루어 방제를 구성하여 「六元正紀大論」의 三陰三陽之政의 五味 運用과 기본 정신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IV. 參考文獻

1. 權依經 : 五運六氣詳解與運用. 甘肅省, 甘肅科學技術出版社, 1987
2. 權依經 : 오운육기학해설. 서울, 法仁文化社, 1996
3. 金基郁 : 運氣學說의 理論 및 運用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1996
4. 김은하 : 國譯 類經圖翼 運氣篇. 서울, 一中社, 1992
5. 雷順群 : 內經多學科研究.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0
6. 朴贊國 :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1998
7. 方約中, 許可松 :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8. 宋炳讚 : 三陰三陽의 運氣論의 理解. 경희대학교대학원, 1993
9. 宋点植 : 醫學輯要. 서울, 圖書出版曉林, 1991
10. 宋点植 : 醫學輯要. 서울, 효림출판사, 1991
11. 楊力 :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12. 王琦 외 : 黃帝內經素問金釋. 서울, 정보사, 1983
13. 王琦외 3인 : 運氣學說의 研究與考察. 北京, 知識出版社, 1989
14. 王琦외 4인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정보사, 1983
15. 王力 : 中國古代文化常識, 서울, 螢雪出版社, 1994
16. 王冰 : 黃帝內經素問. 서울, 일증사, 1993
17. 王洪圖외 :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18. 尹吉榮 :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19. 李時珍 : 本草綱目.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82
20. 李容範 :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1996
21. 任應秋 : 運氣學說. 서울, 동문선, 1994
22. 張介賓 : 類經. 서울, 대성문화사, 1982
23. 張繼有 외 :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
24. 張機 외 :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8
25. 張元素 : 珍珠囊. 북경,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26.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수 공편저 : 本草學. 서울, 영림사, 1991
27. 錢乙 : 小兒藥證直訣.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28. 程思德 : 素問注釋滙粹.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82
29. 周銘心, 王樹芬 : 中醫時間醫學, 서울, 一中社, 1992
30. 陳無擇 : 三因極一證方論. 서울, 일증사, 1989
31.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2
3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2
33. 洪元植 : 中國醫學史.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84